

국립국어원 2007-3-3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연수 교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소개

설 립 목 적

▶ 우리나라 어문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정책 기반을 조성함.
- 어문 규정을 주관하고, 국어사전 편찬으로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
- 각종 어문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어 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
- 한국어의 국외 보급으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함.

조 직

원 장	기 획 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혁신 관리, 감사 및 사정 업무에 관한 사항 한글날 기념행사 및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언 어 정책부	◆ 국어정책팀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국어 순화, 전문 용어 표준화 국어 정책 연구 사업 관리/ 남북 언어 통합, 국어책임관 등 ◆ 국어정보화팀 국어 정보화 촉진 사항/ 연구 결과 전산화 및 DB 구축 자료실, 전산실 운영 관리
	국 어 생활부	◆ 국어실태연구팀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대중 매체의 언어 공공성 향상 ◆ 홍보출판팀 대중 매체를 통한 국어 문화 확산 홍보 및 교육 각종 조사 연구 결과와 간행물의 출판·발간
	국어진흥 교육부	◆ 국어진흥교육팀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국어문화학교 시행 국어상당소 지정, 운영 지원 / 소외 계층의 국어 사용 지원 ◆ 한국어진흥팀 세종학당 설립 / 한국어 교원 자격 및 교육 능력 검정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지원



원

학 예 직	일반행정직	기 능 직	계
25명	9명	8명	42명



는 일

「국 어 기 본 법」

'05년 1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33개조(전문 27개조와 부칙 6개조)로 구성. '05년 7월, 동법 시행령 제정

※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조, 제8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를 거쳐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법 제9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다. 국어책임관 지정(법 제10조)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문 규범 제정 및 개정, 어문 규범 영향 평가 등(법 제11조, 제12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를 거쳐 어문 규범을 제정 및 개정하고,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어문규범의 현실성,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마. 공공 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법 제14조)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도록 함.

바. 전문 용어의 표준화 등(법 제17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함.

사. 국어의 보급 등(법 제19조)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아.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법 제22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 기관 간의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자. 국어능력의 검정(법 제23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차. 국어상담소의 지정 등(법 제24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음.

가 ‘국어기본법’에 따른 주요 활동과 사업

1. 국어책임관 지정 및 운영

국어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공공 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

<국어책임관의 업무 범위>

- 공공기관 내 국어사용 개선을 위한 업무

- 쉽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 다듬은 행정 용어·전문 용어 사용 장려
- 국어책임관 관리 및 지원

- 지역 주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업무

- 지역 주민의 국어 능력 향상
- 지역의 언어 경관 개선
- 지역의 언어문화유산 보전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부처·기관>

- 18개 중앙행정기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 4개 처(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16개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제주도) 그 밖(청와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2. 전국적인 국어 생활상담망 구축을 위한 국어상담소 지정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국적인 국어 생활 상담망을 구축함. 현재 전국 14개소의 국어상담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 어문 규범 등 국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강의 제공,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 기관의 공문서·자료 감수,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등의 업무를 추진함.

전국 국어상담소 지정 현황(2007.3. 현재)

지 역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소장)	연락처
서울·경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팀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www.korean.go.kr	정호성	02)2669-9732 02)2669-9726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3단지 415호 http://www.barunmal.org	남영신	02)735-099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상담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 627호 http://munjang.net	박창원	02)3277-3250, 4056
	한국방송공사 국어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http://korean.kbs.co.kr/main.php/	박영주	02)781-3838
강원도	강원대 국어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남기탁	033)252-4253 250-8120
충청북도	충북대 국어상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http://korean.chungbuk.ac.kr	조항범	043)261-2099 261-3450
	청주대 국어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www.koreanlab.or.kr	김희숙	043)229-8319 229-8311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국어상담소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20 http://korean.smuc.ac.kr	구현정	041)581-2530 550-5391
전라북도	전주대 한국어 문화교육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소강춘	063)225-6115 220-3061
광주· 전라남도	전남대 국어교육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http://kor.chonnam.ac.kr	서상준	062)530-2413 530-2417
대구· 경상북도	경북대 국어생활상담소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370 http://www.knu.korean.knu.ac.kr	홍사만	053)950-5106 950-7498
	영남대 국어생활 상담연구센터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http://oark.yu.ac.kr	서종학	053)810-3192 810-3561
부산· 경상남도	동아대 국어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40 http://kor.donga.ac.kr	하치근	051)200-7025 200-7180
	경상대 국어문화센터	경남 진주시 기좌동 900 http://ckc.gsnu.ac.kr	김용석	055)751-5581 751-6195
제주도	제주대 국어상담소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1	강영봉	064)754-2715 754-2710

3. 국어문화학교 운영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운영함. 특히 2007년부터는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목적과 수준의 수요에 대처할 예정이다.

－ 교육 과정

-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교사 직무연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 *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 참조
- 향후, 원내에 맞춤형 국어전문교육과정 수시 개설 예정

※ 찾아가는 문화학교 강좌 신청 안내

원내 국어문화학교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전국 기관·단체에서 신청하면 요청 장소로 강사와 교재를 보내 강의 제공(수강생 30명 이상, 날짜와 시간, 과목 등은 사전 협의)

§ 문의: 국어문화학교 사무실(전화: (02)2669-9752, 9729, 9736 전송: 2669-9747, 9787)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원내외) 연도별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획)	계
원내 국어 문화 학교	과정 개설	22개반	25개반	29개반	30개반	30개반	32개반	56개반	224개반
	수강 인원	1,292명	1,452명	1,486명	1,458명	1,765명	1,921명	2,300명	11,674명
찾아 가는 문화 학교	강의 횟수	123회	185회	157회	176회	195회	190회	190회	1,216회
	수강 인원	15,412명	16,970명	17,890명	16,332명	15,655명	12,926명	13,000명	108,185명

나 대국민 편의 제공

1.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어정보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자료 검색 가능.

2. 국어 생활 편의 제공

- 가나다 전화(02-771-9909) 월~금 매일(09:00~18:00) 전화 상담원이 한국어 어문 규정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운영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묻고 답하기’에서도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발간함. 국어원 누리집에서 과월호 검색 가능. 2003년 봄호부터 유가지로 출간.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매월 발간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누리집에서 과월호 검색 가능. 정기 수신 요청은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운영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차 례

한글 맞춤법	김형배 / 3
띄어쓰기	권미영 / 19
표준어 규정	안효경 / 37
표준 발음	황연신 / 47
외래어 표기법	김수현 / 67
로마자 표기법	권미영 / 77
언어 예절	전수태 / 91
흔히 잘못 쓰는 말들	여규병 / 119
더 나은 문장 쓰기	김희진 / 133
우리말 다듬기	박용찬 / 155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교수 화법	지연숙 / 175
대화와 인간관계	전정미 / 189
국어생활의 쟁점	김진해 / 209

한글 맞춤법

김 형 배 (국립국어원)

1. ‘한글 맞춤법’이란?

한글[우리글]로 한말[우리말]을 적기 위한 규정이다.

2. 한글 맞춤법의 원리

제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소리대로 적기[表音主義 表記] : 한글이 표음문자[소리글자]이기 때문에 표준어의 발음을 그대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② 어법에 맞게 적기[表意主義 表記] : 소리대로 적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3. 한글 자음의 이름 (㉠제4항)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4. 한글 자모의 순서 (㉠제4항 붙임2)

자 음 :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 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ㅓ	ㅗ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5. 된소리 (ㄹ제5항)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 깎두기, 딱지, 색시, 싹둑(싹둑), 뚝배기, 떡볶이, 떡갈나무
- 야단법석, 갑자기, 납작하다, 넙죽, 몹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적는다. (㉠제13항)

- 똑똑하다, 쓱쓱쓱, 씹씹하다, 씹씹하다, 짹짹하다, 씹씹하다

☐ (1)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바닥에 {털석/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2) 수업 시간에 자꾸 {쑥덕거리면/쑥떡거리면} 안 됩니다.

(3) 이제 와서 {갑자기/갑짜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다.

(4) 저는 자장면 {곱배기/곱빼기}를 시켜 주세요.

(5) 아이의 눈에 {눈곱/눈꼽}이 잔뜩 끼어 있었다.

6. 예사소리 (ㄷ제53항)

다음 어미들은 예사소리로 적는다.

- - (으)르걸 - (으)르게 - (으)르수록 - (으)르지라도 - 시다

문 (1) 진즉 맞춤법 공부 좀 {할걸/할꼐}.

(2) 저는 조금 이따 {갈게요/갈께요}.

(3) 그녀는 {볼수록/볼썽로} 아름답다.

7. 모음 ‘ㅞ’와 ‘ㅟ’ (ㄹ제8항)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계양(揭揚), 게재(揭載), 으레, 케케묵다

8. 모음 ‘ㅡ’ (ㄷ제9항)

‘ㄱ’은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

1) [참고] 북한 문화어의 자모의 차례

[illegible]

모음 :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ㅣ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 무늬, 하늬바람, 널리리, 띄어쓰기, 씹어, 킷어

9. 두음법칙 (ㄱ제10항, 11항, 12항)

- ① 한자 파생어나 합성어 등 : 뒷말에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남부여대(男負女戴), 회계 연도(會計年度), 제작 연대(製作年代)
 - 열역학(熱力學), 등용문(登龍門), 청요리(淸料理)
 -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반나체(半裸體), 실낙원(失樂園), 육체노동(肉體勞動), 부화뇌동(附和雷同), 사상누각(砂上樓閣)²⁾
- ②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 :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 구름-양(量)[雲量], 허파숨-양(量)[肺活量], 칼숨-양,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³⁾
- ③ 한자 성씨(姓氏) :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나(羅)
- ④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서 : 본음대로 적는다.
 - 남녀(男女), 은닉(隱匿), 쌍룡(雙龍), 서오릉(西五陵), 동구릉(東九陵), 왕릉(王陵), 정릉(貞陵), 태릉(泰陵), 가정란(家庭欄), 독자란(讀者欄), 미고란(備考欄),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 ⑤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 :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⁴⁾
- ⑥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 : 본음대로 적는다.
 -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 ⑦ 의존 명사 : 본음대로 적는다.
 - 냥(兩), 년(年), 리(里), 리(理), 량(輛)
 - 몇 냥, 금 한 냥 / 몇 년, 십 년 / 거기까지 몇 리냐? / 그럴 리가 없다.

2) [주의] ‘신년도(新年度), 구년도(舊年度)’는 ‘신년’, ‘구년’에 ‘도’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하다. ‘미립자(微粒子), 수류탄(手榴彈), 파렴치(破廉恥), 고랭지(高冷地)’는 굳어진 말로 보고 형태분석을 하지 않는다.

3) [주의] 노동량, 청소년란, 독자란

4) [주의] 박린수(朴麟洙)→박인수, 김륜식(金倫植)→김윤식 / 김순룡, 객일룡, 정진룡, 서현룡.

/ 객차(客車) 오십 량

⑧ ‘열/렬, 울/률’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열, 울’로 적는다.

- 선열(先烈), 균열(龜裂), 선율(旋律), 전율(戰慄), 운율(韻律), 백분율(百分率)⁵⁾

- 문 (1) {연말년시/연말연시}에는 가족과 함께 차분히 보내는 게 좋겠지요.
(2) 오늘 {작업량/작업양}을 채우려면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
(3) 오늘은 유난히 {구름량/구름양}이 많아 보입니다.
(4) 동굴 벽화에 {쌍룡/쌍용} 그림이 있었다.
(5) 지난 시험에서 {합격률/합격율}이 얼마나 됩니까?
(6) 그때는 감미로운 {선률/선율}의 음악을 들으며 한껏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7) 너도 이제 군대에 다녀오면 {늠름/늠늠}한 청년이 되겠지.

10.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딱딱, 똑딱똑딱, 유유상종(類類相從), 꽃꽂하다, 싹싹하다⁶⁾

11. 어간과 어미

종결형은 ‘-오’, 연결형은 ‘-요’, 높임의 보조사 ‘요’ (㉠제15항, 제17항)

- 문 (1) 이것은 {책이오/책이요}.
(2) 이것은 {책이오/책이요}, 저것은 {붓이오/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3) 그거 {종지오/종지요}.
(4) ‘예, {아니오/아니요}’로 답하시오.

5) [주의] 충렬탑, 명중률(命中率), 합격률(合格率), 시청률(視聽率), 확률(確率).

6) [주의] 그 밖은 (제2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낭랑(朗朗)하다, 냉랭(冷冷)하다, 녹록(碌碌)하다, 늠름(凜凜)하다, 연년생(年年生), 염념불망(念念不忘), 역력(歷歷)하다, 적나라(赤裸裸)하다.

12. 불규칙

① ㅎ불규칙

그렇다	: 그러니	그럴	그러오	그렇습니다	그래
까맣다	: 까마니	까말	까마오	까맣습니다	까매
동그랗다	: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오	동그랗습니다	동그래
퍼렇다	: 퍼러니	퍼럴	퍼러오	퍼렇습니다	퍼레
하얗다	: 하야니	하얏	하야오	하얗습니다	하애
노랗다	: 노라니	노랄	노라오	노랗습니다	노래

② ㄴ불규칙

- 가까워, 괴로워, 아름다워 / 고와, 도와⁷⁾

③ ㄹ탈락

- 살다 : 사는, 삽니다, 사니, 사오, 사시오, 삽시다, 사네, 사세, 살수록
- 날다 : 나는, 납니다, 나니, 나오, 나시오, 납시다, 나네, 나세, 날수록
- 빔다 : 비는, 빔니다, 비니, 비오, 비시오, 빔시다, 비네, 비세, 빔수록
- 말다 :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가지 말라고 했다.

- ㉮ (1) 속옷이 {누레질/누래질} 때까지 입고 다니는 녀석이 어디 있니?
 (2) 그 소식을 듣고는 모두들 {놀라와/놀라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 하늘을 {나르느/나는} 새가 부러울 때도 있지요.

13. 접미사

① 명사형 어미 ‘-(으)ㄴ’ (ㄷ제19항)

-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처럼 만드는 명사형 어미 ‘-(으)ㄴ’
- 받침이 있는 말 뒤 : -음 (먹음, 있음)
- 받침이 없는 말 뒤 : -ㄴ (감, 옴, 잠)
- ㄹ 받침 뒤 : -ㄴ (앓, 삶, 만듦, 들, 베품, 둥글, 췌)

② ‘-이’나 ‘-음’ 접미사 : 원형 밝히지 않는 파생 명사 (ㄷ제19항)

- 굵도리, 다리[鬚]⁸⁾, 목거리[-꺼-](목병), 무너리⁹⁾, 코끼리, 거름(비료), 고

7) [주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름[膿], 노름(도박),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③ ‘-이’나 ‘-음’ 이외의 접미사 : 원형 밝히지 않음 (㉞제19항)

- 명사 :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나머지,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꾸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누룽지, 늘그막, 도랑, 도르래, 동그라미, 빼드렁니, 지팡이, 코뚜레
- 부사 : 거뭇거뭇, 오긏오긏, 주섬주섬,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긏 불긏, 비로소, 비뚱로, 자주, 마주, 차마

④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 원형 밝힘 (㉞제20항)

- 부사 : 곳곳이, 날날이, 살살이, 집집이, 간간이, 번번이, 틸틈이, 줄줄이
- 명사 :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외톨이

⑤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 접미사 결합 : 원형 밝히지 않음 (㉞제20항)

- 꼬락서니, 끄트머리, 끄트러기, 모가치, 모가지, 소가지,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오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고랑, 구렁, 터럭
- ※ 예외 : 값어치, 벼슬아치, 반빛아치¹⁰⁾

⑥ 명사나 어간 뒤에 자음 접미사 결합 : 원형 밝힘 (㉞제21항)

- 굶다랗다, 굶직하다, 넓적하다, 넓적다리, 넓죽하다, 높다랗다, 늑수그레하다, 맛깔스럽다, 부엌테기, 굵적거리다, 굵죽거리다¹¹⁾

⑦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 원형 밝힘 (㉞제23항)

- 깔쭉이, 꿀꿀이, 배불뚝이, 빼죽이, 살살이, 오뚝이, 흘쭉이

※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 : 원형 밝히지 않음.

-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꿩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빼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8) [어휘력] 다리 : 예전에, 여자들의 머리술이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판 머리.

9) [어휘력] 무너리 : ‘문을 열다’에서, 가장 먼저 나온 새끼.

10) [어휘력] 반빛아치 : 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여자 하인.

11) [주의] 접반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예외 : 널따랗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짭따랗다, 짭막하다, 실컷 / 넘치, 납작하다.

⑧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 원형 밝힘 (㉠제25항)

▪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פות, 깨끗이, 넉넉히, 뚜렷이, 버젓이

※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 : 소리대로 적음

▪ 갑자기, 만드시(꼭), 슬며시

⑨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 원형 밝힘 (㉠제25항)

▪ 곰곰이, 더욱이, 생긱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14.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 (㉠제51항)

(1) ‘이’로 적는 것

① ‘ㄸ’ 받침 뒤에서

▪ 깨끗이, 느긱이, 따뜻이, 번뜻이, 빠뜻이, 산뜻이, 지긱이, …

② 첩어 명사 뒤에서

▪ 일일이, 간간이, 겹겹이, 길길이, 곳곳이, 알알이, 줄줄이, 번번이, …

③ 부사 뒤에서

▪ 더욱이, 해죽이, 생긱이, 곰곰이, 오뚝이, 일찍이, …

(2) ‘히’로 적는 것 : ‘-하다’가 붙는 어근 뒤(‘ㄸ’ 받침 제외)

▪ 튼튼히, 꼼꼼히, 답답히, 급급히, 엄격히, 나른히, …¹²⁾

15. 된소리 접미사 (㉠제54항)

-꾼 : 나무꾼,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지계꾼, 노름꾼, 소리꾼, 농사꾼, 사
기꾼, 횡방꾼, 구경꾼, 사냥꾼

-갈 : 때갈, 빗갈, 성갈, 맛갈, 태갈

-때기 : 귀때기, 볼때기, 등때기, 배때기, 나무때기, 판자때기, 널판때기, 송
판때기, 거적때기

-꿈치 : 발꿈치, 발뒤꿈치, 팔꿈치

-빼기 : 코빼기, 이마빼기, 대갈빼기, 곱빼기, 고들빼기¹³⁾

12) [주의] ‘ㄸ’ 받침으로 끝나는 토박이말 뒤에는 대체로 ‘-이’가 결합하지만(고즈넉이, 깊
숙이, 끔찍이, 나직이, 느지막이, 두둑이, 멀찍이, 뽁뽁이, 수북이, 자욱이, 진득
이, 촉촉이, …) 이것은 온전한 규칙이 되지는 못한다. ‘가득히, 까마득히, 넉넉
히, 푹푹히, 솔직히, 아득히’ 등에서는 ‘ㄸ’ 받침 다음에서도 ‘-히’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찍다 : 객찍다, 검연찍다, 맥찍다, 멧찍다¹⁴⁾

16. 접두사 (ㄱ제27항)

(1) 접두사 ‘새-/시-, 셋-/잇-’

어간 첫 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이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 : ‘새-’

어간 첫 음절이 음성 계열 모음이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 : ‘시-’

- 새까맣다/시꺼맣다, 새빨갳다/시빨갳다, 새파랗다/시퍼랗다, 새하얗다/시허얗다

어간 첫 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이고 올림소리 앞 : ‘셋-’

어간 첫 음절이 음성 계열 모음이고 올림소리 앞 : ‘잇-’

- 셋노랑다/잇누렇다

(2)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 : 원형 밝히지 않음

-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17. 사이시옷 (ㄱ제30항)

(1)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

① 앞말(어근₁)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어근₁+어근₂)

② 된소리가 되거나 ‘ㄴ’ 또는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③ 토박이말+토박이말, 토박이말+한자어, 한자어+한자어(6개)

- 나룻배, 나룻가지, 냇가, 머릿기름, 머릿속, 모깃불, 바닷가, 뱃길, 부싷돌, 선짓국, 쇳조각, 아랫집, 잇자국, 장맛비, 장밋빛, 잿더미, 조갯살, 찻집, 횃집, 처갓집, 햇별, 햇바늘, 아랫니,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깃묵, 냇물, 빗물, 뒷일, 베갯잇, 깃잇, 나뭇잎, 윗도리, 윗몸 / 셋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콧병, 탱줄, 텃세, 핏기, 햇수, 횃가루, 깃날, 제삿날, 훗날, 텃마루, 양칫물, 사삿일, 예삿일, 훗일

(2) 사이시옷이 붙는 한자어(6개)

- 찻간(車間), 곳간(庫間), 뒗간(退間), 셋방(貰房), 횃수(回數), 숫자(數字)

13) [주의] 뚝배기/나이배기, 육자배기

14) [주의] 께다리적다, 열통적다/맛적다

[주의] 사이시옷이 안 붙는 말

- 나무꾼, 해님, 머리 방울, 머리말, 소개말, 예부터, 뒤풀이, 뒤뜰, 위쪽, 위층, 수소, 수놈, 핑크빛, 치과, 초점, 화병(火病), 마구간(馬廐間), 개나리길,

18. 합성어

(1)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제31항)

- 땀싸리(대ㄴ싸리), 땀쌀(떼ㄴ쌀), 뱀씨(벼ㄴ씨), 입때(이ㄴ때), 입쌀(이ㄴ쌀), 접때(저ㄴ때), 줍쌀(조ㄴ쌀), 험쌀(해ㄴ쌀) / 뉘뜨다, 부릅뜨다, 칩떠보다, 휩싸다, 휩쓸다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제31항)

① 머리-, 살-, 안-

-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안팎(안ㅎ밖)

② 암-, 수-

- 암컷(암ㅎ것), 암캐(암ㅎ개), 암탉(암ㅎ닭), 암강아지, 암탕나귀, 암돼지, 암평아리, 암키와, 암톨쩌귀
- 수컷(수ㅎ것), 수캐(수ㅎ개), 수탉(수ㅎ닭), 수강아지, 수탕나귀, 수돼지, 수평아리, 수키와, 수톨쩌귀¹⁵⁾

19. 준말

(1) 모음 탈락 (㉠제32항)

- 기러기야 → 기럭아 어제그저께 → 엇그저께 어제저녁 → 엇저녁
- 가지고, 가지지 → 갖고, 갖지 디디고, 디디지 → 딛고, 딛지

(2) 체언+조사 (㉠제33항)

- 나는 → 난 나를 → 날
- 너는 → 넌 너를 → 널
- 무엇이 → 뭇이/무에 무엇을 → 뭇을/무얼/뭇
- 이 애 → 애 이 애는 → 애는 → 앤 이 애를 → 애를 → 앨

15) [주의] 암고양이, 수고양이

- 그 애 → 개 그 애는 → 개는 → 갠 그 애를 → 개를 → 겠
- 저 애 → 재 저 애는 → 재는 → 켜 저 애를 → 재를 → 쟈
- 이리로 → 일로 그리로 → 글로 저리로 → 절로 조리로 → 줄로
- 이것으로 → 이걸로 그것으로 → 그걸로 저것으로 → 저걸로
- 그것은 → 그건 그것이 → 그게

(3) ㄱ-ㅏ → ㅑ, ㅓ-ㅏ → ㅕ, ㄱ-ㅗ → ㅓ, ㅓ-ㅗ → ㅕ (㉠제35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보아	봐	보았다	봤다
두어	뒤	두었다	뒀다
주어	줘	주었다	줬다

(4) ㅓ-ㅑ → ㅕ, ㅓ-ㅗ → ㅕ (㉠제35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되어	돼	되었다	됐다
뵈어	뵈	뵈었다	뵈었다
죄어	죄	죄었다	줬다

※ ‘되’와 ‘돼’ : ‘되어’의 준말이 ‘돼’이다.

- ㉠ (1) 요즘 일 잘 {되요/돼요}? <참고> 요즘 밥 잘 먹어?
- (2) 응, 그런대로 잘 {되/돼}. <참고> 그런대로 잘 먹어.
- (3) 제발 이제 사람 좀 {되라/돼라}. <참고> 이제 밥 좀 먹어라.
- (4) 누가 그렇게 {되라고/돼라고} 했어? <참고> 먹으라고 했어?
- (5) 일이 잘 {되도/돼도} 문제라니까요. <참고> 잘 먹어도 문제예요.

(5) ㅣ-ㅏ → ㅓ (㉠제36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버티어	버터	버티었다	버텼다
일으키어	일으켜	일으키었다	일으켰다

(6) ㅏ-이어→ㅐ어/ㅑ여 (㉞제38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싸어 싸여	뜨이어	띄어
보이어	봔어 보여	쓰이어	띄어 쓰여
쏘이어	쫔어 쏘여	트이어	띄어 트여
누이어	뉘어 누여	꼬이어	퐁어 꼬여

(7) -지-얏- → -짚-, -하지-얏- → -짚- (㉞제39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얏은	그렇짚은	만만하지 얏다	만만짚다
적지 얏은	적짚은	변변하지 얏다	변변짚다
깨끗하지 얏다	깨끗짚다	대단하지 얏다	대단짚다
남부럽지 얏다	남부럽짚다	시원하지 얏다	시원짚다
많지 얏다	많짚다	심심하지 얏다	심심짚다

(8) ‘ㅏ’가 줄어드는 경우 (㉞제40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9) ‘하’가 줄어드는 경우 (㉞제40항)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깨끗짚다)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못짚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익숙짚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넉넉짚다)
섬섬하지 않다	섬섬지 않다 (→섬섬짚다) ¹⁶⁾

16) [주의] ‘ㄱ, ㅅ, ㅂ’과 같은 안울림소리 뒤에서는 ‘하’가 줄어든다.

한글 맞춤법 연습 문제

※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틀린 말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1. 맞춤법은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2. 가당찮은 변명은 그만 해라.
3. 가을이면 어머니는 산에 도토리를 주으러 나가신다.
4. 그곳은 내가 갈래야 갈 수 없는 곳이다.
5.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잘난 채를 하니?
6. 그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래졌다.
7.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뿐이 걸어 들어왔다.
8. 가만이 있으니까 내가 바보로 보이냐?
9. 그는 부정의 표시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10.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다.
11. 그러고서도 미안하지도 않나 봐.
12. 나의 바램은 배던지 사과던지 아무거나 먹고 싶다는 거야.
13. 어찌나 배가 고프든지 자장면 곱배기 한그릇을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 습니다.
14. 나뭇군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지만 선녀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 왔다.
15. 나무가지를 함부로 꺾지 않도록 해라.
16. 다영이는 아직 연필을 깎는 게 서투르다.

17. 냄새가 배지 않게 마루바닥을 깨끗이 닦아라.
18. 다듬이돌은 정말 단단한 돌이다.
19. 회집에서 북어국에 깍두기도 주나?
20. 친구들은 내 작은 눈을 보고 단추구멍이라고 놀렸다.
21. 말들을 마굿간에 몰아넣어야 해요.
22. 난로에 장작깨비를 더 넣어야겠어요.
23. 내 주위에는 성대묘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24. 놀이터에는 꼬마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25. 다람쥐는 도토리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잘도 골라 먹는다.
26. 만듬새를 보니,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하다.
27. 뱀이 개구리를 통채 삼켰다.
28. 햇님이 방긋 웃는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나란이 걸어간다.
29. 등교길에 짝궁을 만나 쏜세지랑 떡볶기를 사 주었다.
30. 글씨를 개발새발 써 놓으면 어떡해 채점을 하겠니?
31. 저만치서 달려와 반기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32. 웬일로 네가 벗으로써 충고를 한마디 하겠다고 하니?
33. 위험을 무릎쓰고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
34. 알다시피 오똑한 코의 사나이는 반드시 이 자리에 올꺼야.
35. 천장 윗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36. 하늘을 쳐다보니 비라도 금새 내릴 거 같다.
37. 하마트면 공부하노라고 밤을 세울뻔 했다.
38. 알맞는 답을 골라 정답을 맞추세요.
39.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40. 저기에 있는 넓다란 판자 좀 가져 오너라.
41. 기회가 다시 있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잘 살것이다.
42. 남세스럽게 끼여들기를 해서는 일체 않됩니다.
43. 쌍룡이 그려져 있는 옷도리가 그렇게 좋든가?
44. 사람들이 그러는데 개는 예쁘데.
45. 약을 다려서 팔면 되지 그건 정말로 아니예요.
46. 현재로서는 핫병인지 알수 없습니다.
47. 시청율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되는 수가 있다.
48. 젓상을 차려 놓고 아버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49.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바램은 남북통일이라고 선생님께서 툴툴히 가리켜 주셨습니다.
50. 그의 머리가 벽에 사정없이 부딪쳤는데, 살펴보니 그의 정수리에 크다란 혹이 하나 우뚝 솟아나 있었습니다.

■ 정답

1. 깨쳐야 2. 가당찮은 3. 주우러 4. 가려야 5. 잘난 {체/척} 6. 휘둥그레졌다 7. 사뿐히 8. 가만히 9. 살래살래 10. 폭발하고 11. 앓은가 봐 12. 바람, 배든지 사과 든지 13. 고프던지, 곱빼기, 한 그릇 14. 나무꾼, 코빼기, 간간이 15. 나뭇가지, 꺾지 16. 깎는 17. 마룻바닥 18. 다듬잇돌 19. 헛집, 북엇국 20. 단춧구멍 21. 마구간 22. 장작개비 23. 성대모사 24. 소꿉놀이 25. 껌데기, 알맹이 26. 만듦새 27. 통째 28. 해님, 나란히 29. 등곶길에, 짹짹, 소시지, 떡볶이를 30. 괴발개발, 어떻게 31. 덩석 32. 웬일로, 벗으로서 33. 무릅쓰고 34. 오뚝한, 올 거야 35. 위쪽 36. 금세 37. 하마터면, 공부하느라고, 새울 뻔했다 38. 알맞은, 맞히시오 39. 기다렸다가, 설레는 40. 널따란, 가져 41. 있으므로, 잘살 것이다 42. 끼어들기, 일절, 안 됩니다 43. 윗도리, 종던가 44. 예쁘대 45. 달여서, 아니에요 46. 화병, 알 수 47. 시청률 48. 제상, 좇아 49. 바람, 툼툼이, 가르쳐 50. 부딪혔는데, 커다란

띄어쓰기

권 미 영 (국립국어원)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 흔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표현을 예로 들어, ‘띄어쓰기’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띄어쓰기’와는 상관없이, 위 문장의 의미를 보통 전자 쪽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대학교 의과대학’처럼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한국대학교의과대학’처럼 붙여 쓴 경우보다 의미 파악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띄어 쓸 것인가’인데,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2. 띄어쓰기의 원리

현행 맞춤법에서 채택한 띄어쓰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어떻게 띄어 쓸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가)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나)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다)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라)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가)는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어 잘게 띄어 쓴 것이다. 그래서 비자립 형식인 조사 ‘에서, 를, 는’, 어미 ‘-다’, 관형사 ‘두’, 의존 명사 ‘수’를 모두 띄어 썼다. 반면 (나)는 자립 형식의 단위로 띄어 쓴 것으로, 위의 조사, 어미, 관형사, 의존 명사를 모두 앞말에 붙여 쓴 것이며, (다)는 위의 비자립 형식 중에서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고, 관형사와 의존 명사는 띄어 쓴 것이다. 끝으로 (라)는 통사적인 구절 단위로 띄어 쓴 것으로, 대체로 우리가 끊어 읽는 단위와 비슷하게 띄어 썼다. 이 중에서 현행 맞춤법은 (다)의 방법으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장의 각 □□는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한다.(맞춤법 제1장 제1항)

잠깐!

1. 단어(*)의 정의

단어란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예 김, 좋다, 꼭, 그 등

(☺ 단어의 개념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문이 나는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면 일단 단어일 확률이 높다.

2 단어의 구성별 종류

- ① 단일어(어근) 예 김, 밥, 돌다, 가다 등
- ② 합성어(어근 + 어근) 예 김밥, 나뭇잎, 돌아가다, 뛰어놀다 등
- ③ 파생어(접두사(*) + 어근) 예 중환자, 총감독, 휘돌다, 치닫다 등
(어근 + 접미사(*)) 예 선생님, 홍씨(홍가), 생각하다, 체하다 등

3. 단어의 품사별 종류

- ① 명사(의존 명사*), 대명사, 수사
- ② 조사(*)
- ③ 동사, 형용사 (용언, 어간 & 어미(*), 본용언 & 보조 용언(*))
- ④ 관형사(*), 부사
- ⑤ 감탄사

(* 표는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임.)

[질문 1] 단어는 모두 띄어 쓰나요?

☞ 그렇다. 원칙적으로 단어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면 두 단어를 붙여 쓰지만, ‘우리 집’처럼 구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조사[예] 이, 가, 을, 를, 에, 에서 등’는 단어로 분류되지만, 의존적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질문 2] 붙여 써야 하는 의존적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앞에서 밝힌 ‘조사’ 외에 ‘접두사’, ‘접미사’, ‘어미’가 있다. 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重)-’, ‘-별(別)’, ‘-었-’처럼 ‘붙임표(-)’로 의존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붙여 써야 한다는 띄어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단어 여부 판별 방법

앞에서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아니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단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기준1] _____

- 강의실 밖에서 {큰소리/큰√소리}가 들린다.
- 김 과장은 늘 {큰소리/큰√소리}만 친다.

☞ 두 단어가 연속되었는데, 그 두 단어의 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면, 새 단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도 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 ‘큰 소리’가 음성이나 음향과 같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면, 이때는 띄어 써야 한다. ‘큰’과 ‘소리’의 합으로 이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허풍, 과장’을 의미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므로 이때는 한 단어로 보고 붙여 써야 한다.

- ㉞ (1) 저녁에 술 {한잔, 한√잔} 합시다.
- (2)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딱 {한잔, 한√잔}만 할게요.
- (3) 이번 면접이 잘 {안되었대요, 안√되었대요}
- (4) 그래서 풀 죽어 있는 것을 보니 {안됐더라, 안√됐더라}.
- (5) 우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 (6) 우리는 끝까지 의견을 {같이할, 같이√할} 것이다.
- (7) {큰형, 큰√형}만 도착하지 않고 있다.
- (8) {우리학교, 우리√학교}는 시설이 매우 좋다.
- (9) 이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제한}이 없다.
- (10) 강남권에 {물량집중, 물량√집중}이 극심하다.

[기준 2]

- 대통령은 은퇴한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돌아√갔다}.
- 그쪽으로 {돌아가지,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는 것이 낫겠다.

☞ 두 단어가 연속될 때 단어인지 판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중간에 다른 말을 삽입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두 단어 사이에 긴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김밥’처럼 이것이 하나의 단어라면 긴밀성이 강해서, ‘김에밥*’처럼 다른 말이 삽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는 ‘돌아선 갔다’와 같이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있다면, 긴밀성이 약하여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겠고,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없다면 긴밀성이 강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겠다.

- ㉞ (11) 방 안을 {둘러보았다, 둘러√보았다}.
- (12) 설날에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다.
- (13) 이대로 {주저앉을, 주저√앉을} 수는 없다.
- (14) 손을 {모아잡고, 모아√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 (15) 할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워담기에, 주워√담기에} 바빴다.

4. 조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질문 1] 조사가 여러 개 연결된 경우에도 붙여 쓰나요?

- {집에서만이라도, 집에서√만이라도, 집에서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다.

☞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에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인데, 조사는 두 개 이상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집’ 뒤에 있는 ‘에서-만-이라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전부 앞말에 붙여 써야겠다. 또한 어미 뒤에 조사를 쓸 경우에도 붙여 쓴다.

- ㉠ (1) {나가면서까지도, 나가면서√까지도} 책을 보았다.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부터√입니다}.
 (3) 아직은 {좋아한다기보다, 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는 정도이다.
 (4) 쌍꺼풀이 {태어날때부터, 태어날√때부터, 태어날√때√부터} 없었다.

[질문 2] 이것도 조사인가요?

- 역시 {친구밖에, 친구√밖에} 없어.
- {이밖에, 이√밖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있었다.

☞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조사를 판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은, 는, 이, 가, 을, 를, 에서’ 등이 조사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밖에, 같이, 는커녕, 라고, 그러’ 등이 조사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똑같은 형태이지만 품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앞 예의 ‘밖에’에서 ‘밖’은 명사로 조사 ‘에’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밖에’ 그 자체가 조사이기도 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뒤에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가 올 경우, ‘그것 외에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이런 쓰임이 아닐 경우에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다. 아래에 혼동하기 쉬운 조사 몇몇을 정리하였다.

[혼동하기 쉬운 조사]

같이, 그러, 깨나, ㄴ즉슨, 는커녕, 나마, 더러, 마는, 마따나, 마저, 만큼, 말고, 밖에, 보고, 부터, 뿐, 서부터, 라고, 야말로, 에게다, 에다가, 에서부터, 으로부터, 이시여, 이야말로, 조차, 치고, 하고, 하며, 한테 등

- 문 (5) {“그래.”라고, “그래.”√라고} 그가 말했다.
 (6) {“그래.”하고, “그래.”√하고} 그가 말했다.
 (7) 철수는 {너하고, 너√하고} 닮았다.
 (8) {소같이, 소√같이} 일만 했다.
 (9) {친구와같이, 친구와√같이} 사업을 했다.
 (10) {너같이 바보같은, 너같이 바보√같은, 너√같이 바보√같은} 사람은 없어.
 (11) 그 계획 {좋습니다그러, 좋습니다√그러}.
 (12) {이야긴즉슨, 이야기√즉슨} 이렇다.
 (13) {빨리는커녕, 빨리는√커녕} 천천히도 못 건졌다.

☞ ‘같이’는 ‘같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로 부사로도 조사로도 사용된다. 먼저 부사인 경우에는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예 모두와 같이 했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올랐다.)’의 뜻을 가진다. 다음으로 조사인 경우에는 ‘① ‘처럼’의 뜻(눈 같이 흰 꽃),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매일같이 지각하다.)’하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같이’가 부사인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조사인 경우에는 붙여 써야 하는데, 이는 대체로 앞말에 ‘와’ 같은 조사를 붙여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은 ‘같다’라는 형용사의 관형형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5.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질문 1] 의존 명사가 무엇인가요?

- 진상을 {들은바, 들은√바},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가, 공헌하는√바가} 없다.

☞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그런데 어떤 형식이 의존 명사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여 붙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에 주요 의존 명사의 목록과 의존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요 의존 명사]

것, 나를,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뿐, 적, 줄, 즈음, 지, 터, 겹,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의존 명사 구별 방법]

- ① 그 자리에 다른 명사를 대치할 수 있나?
(예 아는 것이 힘이다. → 지식)
- ②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나? (예 나도 할 수 있다. → 수가)
- ③ 앞에 기댈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나? (예 먹을 만큼 먹어라 → 먹을)

- ☞ (1) 나는 {내나름대로, 내√나름대로, 내√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2) {너때문에, 너√ 때문에} 힘들었다.
(3) 동생은 내 말에 {들은척도, 들은√척도} 않는다.

(4) {말하는이가, 말하는√이가} 누구지?

(5) 내일 뭐 {할거니, 할√거니}?

(6) 비가 와야 {할텐데, 할√텐데}.

㉟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나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나름’이나 ‘때문’이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제 나름대로’ 혹은 ‘그 때문에’처럼 기댈 수 있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2]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조사인가요?

- 이름이 나지 {않았다뿐이지, 았았다√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 통일√뿐이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조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앞에 기대는 말이 용언류라면 의존 명사이고, 명사류라면 조사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았았다’는 보조 동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을 띄어 쓰고, ‘통일’은 명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은 붙여 써야겠다.

㉟ (7) {틈나는대로, 틈나는√대로} 자료를 찾았다.

(8) 처벌은 {범대로, 범√대로} 해야 한다.

(9) {주는만큼, 주는√만큼} 받는다.

(10) 나도 {당신만큼, 당신√만큼} 할 수 있다.

(11) 그 때 이후 {삼년만, 삼√년만, 삼√년√만}이다.

(12) 그가 화를 {넌만도, 널√만도} 하다.

(13) 청군이 {백군만, 백군√만} 못하다.

(14) 먹고는 {싫다만, 싫다√만} 돈이 모자라다.

(15) {오랜만에,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났다.

㉟ ‘만’은 의존 명사로 ‘시간의 경과’나 ‘타당한 이유가 있음, 가능성’의 의미로, 조사로는 ‘한정, 비교’의 의미나 ‘마는(의문이나 반대 상황)’의 준말로 쓰인다.

[질문 3]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접미사인가요?

- {수일내, 수일√내}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그는 {저녁내, 저녁√내} 안 보였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접미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이지만 흔히 접미사로 오해하여 잘 띄어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의 예에서 ‘내’는 ‘여름내, 마침내, 끝내’처럼 일부 기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이지만, ‘기간√내, 단지√내, 안전선√내’처럼 ‘일정한 범위의 안’이라는 뜻으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16) {부모자식간, 부모√자식간, 부모√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17)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 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
(18) 내일부터 {한달간, 한√달간, 한√달√간} 휴가입니다.
(19) 과일에는 사과, 배, {감들, 감√들}이 있다.
(20) 백화점에는 {사람들,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질문 4]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어미인가요?

- 그 책을 다 {읽는데, 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어미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앞의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데’는 ‘곳, 일,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는데’는 ‘상황’을 설명하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이렇게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혼동이 될 때는, 그 혼동되는 형식 뒤에 조사를 붙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사는 명사류에 결합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조사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면, 의존 명사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 (21) 서류를 {검토한바,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22)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 공헌하는√바} 크다.
- (23) 그를 {만난지, 만난√지} 꽤 오래되었다.
- (24) 무엇이 {틀렸는지, 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 (25) 그는 물 {쓰듯, 쓰√듯} 돈을 쓴다.
- (26) 그는 다 {아는듯, 아는√듯} 말했다.
- (27) 차는 이미 {떠난걸, 떠난√걸}.
- (28) 그렇게 {좋아하는걸, 좋아하는√걸} 어떻게 안 해?

6.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문 (1) {15회, 15√회} 수료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 (2) 오늘 {제3차, 제√3차, 제3√차, 제√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3) 학생은 모두 {40여명, 40√여명, 40여√명, 40√여√명} 정도입니다.
- (4) 연령은 대개 {30세가량, 30√세가량, 30세√가량, 30√세√가량}입니다.

7. 수 표현의 띄어쓰기

[규정]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문 (1) {스물여섯, 스물√여섯}
-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 (3) {육조팔억칠천, 육조√팔억칠천, 육조팔억√칠천, 육조√팔억√칠천}

8.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

[규정]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 (1) {국장검과장, 국장검√과장, 국장√검√과장}
 (2) {열내지스물, 열내지√스물, 열√내지√스물}
 (3) {청군대백군, 청군대√백군, 청군√대√백군}
 (4) {기간및경비, 기간및√경비, 기간√및√경비}를 명시 바람.
 (5) 교실에는 책상, {걸상등, 걸상√등}이 있다.
 (6) 사진, 그림, {영화등등, 영화√등등} 볼 것이 많다.
 (7) 사과, 배, 복숭아, {감등숙, 감√등숙}을 샀다.
 (8) 충주, 청주, {대전등지, 대전√등지}로 돌아다녔다.

9. 단음절어 연속의 띄어쓰기

[규정]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질문] 단음절로 된 모든 단어는 붙여 쓸 수 있나요?

- 훨씬 {더큰새집, 더큰√새집, 더√큰√새집, 더√큰√새√집}이야.
- {더큰이새, 더큰√이새, 더√큰√이새, 더√큰√이√새} 책상

☞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좀 더 큰 이 새 집’처럼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독서 능률이 감퇴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좀더 큰 이 새집’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

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더√큰√새집’으로 붙여 쓸 수는 있지만 ‘더큰√새집’처럼 붙여 쓸 수는 없고, ‘더√큰√이√새’의 경우에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 ㉠ (1) {좀더큰집, 좀더√큰집, 좀√더√큰집, 좀√더√큰√집}이 낫겠다.
 (2) {내것네것, 내것√네것, 내√것√네√것}이 어디 있냐?
 (3) {이곳, 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
 (4) {그때, 그√때}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5) {전날, 전√날} 말씀드린 것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10.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질문 1] 보조 용언이 무엇인가요?

- 선물을 미리 {뜯어버렸다, 뜯어√버렸다}
- 화가 나서 선물을 {뜯어서버렸다, 뜯어서√버렸다}

☞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이 원칙이지만, 붙여 씀도 허용한다. 그래서 앞의 첫 문장에서 ‘뜯어√버렸다’가 원칙이지만 ‘뜯어버렸다’처럼 써도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뜯어서√(휴지통에)√버렸다’처럼 두 개의 용언이 모두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둔 본용언이라면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 (1) 고기를 {잡아본다, 잡아√본다}.

- (2) 고기를 {잡아서본다, 잡아서√본다}.
- (3) 사과를 {깎아드린다, 깎아√드린다}.
- (4) 사과를 {깎아서드린다, 깎아서√드린다}.

[질문 2] 보조 용언은 모두 붙여 쓸 수 있나요?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도와√드린다}.
- 우리는 집에 {가고싶다, 가고√싶다}.

☞ 여기서의 보조 용언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조 용언에 한해서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첫 문장의 경우에는 ‘도와드린다’처럼 붙여 써도 되겠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가고√싶다’처럼 띄어 써야겠다.

- ☞ (5) 나무가 {늘어간다, 늘어√간다}.
- (6)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겨√냈다}.
 - (7) 좋은 내용을 {알아가지고간다, 알아가지고√간다, 알아√가지고√간다}.
 - (8) 오늘 꼭 {하고싶은, 하고√싶은} 것이 있다.
 - (9) 공부는 {하지않고, 하지√않고} 잠만 자면 안 된다.
 - (10) 그 사람은 {학자인양한다, 학자인양√한다, 학자인√양한다}.
 - (11) 나를 {모르는체하고, 모르는체√하고, 모르는√체하고} 갔다.
 - (12)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싶다, 올듯√싶다, 올√듯싶다}.
 - (13) 값을 {물어만보았다, 물어만√보았다}.
 - (14)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버렸다, 떠내려가√버렸다, 떠√내려가버렸다}.
 - (15) 피아노에 {손대봤다, 손대√봤다, 손√대봤다}.
 - (16)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도싶다, 올듯도√싶다, 올√듯도√싶다}.

☞ 붙여 써도 되는 보조 용언이라 하더라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

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질문 3] 이것은 보조 용언이 아닌가요? 왜 띄어 쓰면 틀렸다고 하나요?

- 오늘 유난히 글이 잘 {써진다, 써√진다}.
-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 모두를 {예뻐하신다, 예뻐√하신다}.

☞ ‘-아/어’로 연결된 ‘지다’와 ‘하다’는 대체로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아/어’로 연결된 ‘지다’는 동사와 두루 결합하여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특별한 제약 없이 대부분의 용언과 두루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이는 마치 하나의 문법 요소처럼 인식된다. 따라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어 지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아/어’로 연결되는 ‘하다’ 또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도 이를 모두 붙여 쓰고 있다. 이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두루 결합하여 형용사를 동사로 바꾼다. 그런데 이들은 합성어를 이루는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의 경계를 짓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류의 말을 모두 합성어로 처리하기도 어려우므로 대개 붙여 쓰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아/어 하다’와 같이 띄어 쓴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붙여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11. 성명의 띄어쓰기

[규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1) {김소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 (2) {채영신씨, 채영신√씨}가 여기에 계십니까?
- (3) {김씨, 김√씨}가 이 일을 했다.
- (4) {김씨, 김√씨}들은 다 그래?
- (5) {황보영, 황보√영}이 발표를 했다.

12. 성명 이외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문 (1)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사범√대학}
-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 ‘한국 교육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고유 명사를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단위를 뜻한다.

13.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규정]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 문 (1) {만국음성기호, 만국√음성기호, 만국√음성√기호}
- (2) {관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 (3)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14. 관형사의 띄어쓰기

- ㉠ (1) 요즘 {각(各)가정, 각√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 (2) {각(各)인, 각√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 (3) {고(故)홍길동, 고√홍길동} 씨를 추모하는 모임입니다.
- (4) {고(故)인,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5) {순(純)한국식, 순√한국식}으로 음식을 차렸다.
- (6) 이번에 {순(純)이익, 순√이익}이 크게 났다.
- (7) {본(本)국어원, 본√국어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 (8) {본(本)원, 본√원}에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모십니다.
- (9) {총(總)인원, 총√인원}이 40여 명이다.
- (10) {총(總)인구, 총√인구}의 8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1음절로 된 관형사의 경우 종종 붙여 쓰는 것을 보게 된다. 대개 이것을 접두사로 생각하여 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형태가 관형사로도 접두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때때로 혼동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이들은, 관형사의 경우에는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고, 접두사의 경우에는 몇몇 명사밖에 올 수 없다는 것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글을 쓸 때는 사전에 곁에 두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5. 외래어의 띄어쓰기

[질문 1] 외래어를 띄어 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가 국민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 그는 {톱클래스, 톱√클래스} 가수이다.

☞ 외래어는 원어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이라고 해도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이나 준말, 원어에 없는 외래어는 붙여 쓴다.

- ㉠ (1)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생각난다.
- (2) 우리 집에는 {에어컨, 에어√컨}이 없다.

- (3)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도핑테스트, 도핑√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 (4) 요즘 {뉴스쇼, 뉴스√쇼}가 인기가 있다.
- (5)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고스톱, 고√스톱}을 쳤다.

[질문 2] 외래어와 한자어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모두 붙여 쓰나요?

- 최근에 {아마존강(江), 아마존√강}을 여행했다.
- 요즘 {프랑스어(語),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 모든 {알코올류(類), 알코올√류}는 중독성이 있다.

☞ 외래어와 고유어, 혹은 외래어와 한자어 간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다. 단지 ‘외래어 표기법’에 ‘카리브√해, 몽블랑√산’ 등이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체로 지명은 ‘아칸소√주, 에베레스트√산’처럼 띄어 쓰는 것으로, 언어명이나 종족명은 ‘러시아√어/러시아어, 게르만√족/게르만족’처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기타 ‘이슬람력’이나 ‘디자인류’처럼 띄어 쓸 경우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아 ‘이슬람 역’, ‘디자인 유’와 같이 써야 하는 말은 붙여 쓰는 것으로, 그 원칙을 삼고 있다.

■ 정답

3. (1) 한잔 (2) 한√잔 (3) 안√되었대요 (4) 안됐더라 (5) 가위바위보 (6) 같이 할 (7) 큰형 (8) 우리√학교 (9) 전매√제한 (10) 물량√집중 (11) 둘러보았다 (12) 찾아가서 (13) 주저앉을 (14) 모아√잡고 (15) 주위√담기에
4. (1) 나가면서까지도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 (3) 좋아한다기보다 (4) 태어날 √때부터 (5) “그래.”라고 (6) “그래.”√하고 (7) 너하고 (8) 소같이 (9) 친구와√같이 (10) 너같이 바보√같은 (11) 좋습니다그러 (12) 이야긴즉스 (13) 빨리는커녕
5. (1) 내√나름대로 (2) 너√때문에 (3) 들은√척도 (4) 말하는√이가 (5) 할√거니 (6) 할√텐데 (7) 틈나는√대로 (8) 법대로 (9) 주는√만큼 (10) 당신만큼 (11) 삼√년√만 (12) 널√만도 (13) 백군만 (14) 싶다만 (15) 오랜만에 (16) 부모√자식√간 (17) 하든지√간에 (18) 한√달간 (19) 감√들 (20) 사람들 (21) 검토한바 (22) 공헌하는√바 (23) 만난√지 (24) 틀렸는지 (25) 쓰듯 (26) 아는√듯 (27) 떠난걸 (28) 좋아하는√걸
6. (1) 15회, 15√회 (2) 제3차, 제3√차 (3) 40여√명 (4) 30세가량, 30√세가량
7. (1) 스물여섯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3) 육조√팔억√칠천
8. (1) 국장√겸√과장 (2) 열√내지√스물 (3) 청군√대√백군 (4) 기간√및√경비 (5) 결상√등 (6) 영화√등등 (7) 감√등속 (8) 대전√등지
9. (1) 좀더√큰집, 좀√더√큰√집 (2) 내것√네것, 내√것√네√것 (3) 이곳 (4) 그때 (5) 전날
10. (1) 잡아본다, 잡아√본다 (2) 잡아서√본다 (3) 깎아드린다, 깎아√드린다 (4) 깎아서√드린다 (5) 늑어간다, 늑어√간다 (6) 이겨냈다, 이겨√냈다 (7) 알아가지고√간다, 알아√가지고√간다 (8) 하고√싶은 (9) 하지√않고 (10) 학자인양한다, 학자인√양한다 (11) 모르는체하고, 모르는√체하고, (12) 올듯싶다, 올√듯싶다 (13) 물어만√보았다 (14) 떼내려가√버렸다 (15) 손대√봤다 (16) 올√듯도√싶다
11. (1) 김소월 (2) 채영신√씨 (3) 김√씨 (4) 김씨 (5) 황보영, 황보√영
12. (1)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사범√대학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13. (1) 만국음성기호, 만국√음성√기호 (2) 관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14. (1) 각√가정 (2) 각인 (3) 고√홍길동 (4) 고인 (5) 순√한국식 (6) 순이억 (7) 본√국어원 (8) 본원 (9) 총√인원 (10) 총인구
15. (1) 아이스크림 (2) 에어컨 (3) 도핑테스트, 도핑√테스트 (4) 뉴스쇼 (5) 고스톱

표준어 규정

안 효 경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제 1 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한글 맞춤법 규정과 표준어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

● 나두(?) 너 사랑해.

☞ 위의 문장은 ‘나도’를 비표준어인 ‘나두’로 적은 것으로, 맞춤법이 틀린 문장은 아니다. 맞춤법은 같은 소리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표준어는 소리부터 다른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표준어인 서울말은 다른 방언보다 언어적으로 우월한가?

☞ 표준어는 여러 방언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언어이다.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서울말이 언어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표준어의 실제>

I.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 {간막이/칸막이}를 쳤다.

☞ 공간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 말로서,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인 ‘칸’

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칸’은 한자어 ‘間’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칸’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칸막이, 빈칸, 방 한 칸’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초가삼간, 뒷간, 외양간’ 등의 예에서처럼 이미 굳어진 말에서는 ‘간’을 그대로 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붉게 물든 {동녘/동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 (2) 어머니는 지금 {부엌/부엌}에 계신다.
- (3) 물려 받은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떨어먹었다}.
- (4) 휴지를 {재털이/재떨이}에 넣지 마세요.
- (5) {과녁/과녁}을 정확히 바라.

2. 콩 중에서 {강남콩/강낭콩}이 제일 맛있다.

㉞ ‘강남콩’은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들여온 콩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발음이 변했다 할지라도 어원을 밝혀서 적어주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좋다. 그러나 ‘강남콩’의 경우에는 발음이 이미 ‘강낭콩’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언중들이 어원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남콩’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변화된 발음에 따라 ‘강낭콩’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돈이 없어서 {삭월세/사글세} 방도 얻을 수 없다.

3. 애가 우리 집 {셋째야/세째야}.

㉞ 원래 ‘세째’는 차례를 나타내는 것으로, ‘셋째’는 수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로 구별되어 쓰이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쓰임과 의미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아 ‘셋째’로 통합하여 쓰기로 한 것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애가 우리 집 {둘째야/두째야}.
- (2) 내 차례는 {스물둘째야/스물두째야}.
- (3) 진수가 빵을 {열둘째나/열두째나} 먹었어.

(4) 내일이 우리 아이 {돌/똥}이에요.

(5) 이 자리를 {빌어/빌려}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4. 내 동생 별명은 {오희이/오희이}예요.

☞ 현대 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점점 약화되어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는 추세와 관련된 예로, 현실적인 발음이 ‘오희이’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1) 토끼가 {깡충깡충/깡충깡충} 뛰어 갑니다.

(2)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오손도손/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습니다.

(3) {늦둥이/늦둥이}를 낳았어요.

5. {부주금/부조금}을 대신 내어 주세요.

☞ 현실적인 발음이 ‘부주’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언중들이 한자의 의미(어원)를 의식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형태대로 ‘부조’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1) 오늘 {안사돈/안사둔}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2) 오늘 {삼촌/삼춘}이 미국에서 와요.

6. {아기야/애기야} 가자.

☞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국어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분 (풋내기, 냄비, 동댕이치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는 ‘아기’처럼 ‘ㅣ’ 역행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1) {아지랑이/아지랭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2) {서울나기/서울내기}는 상대하지 마세요.

7. {미류나무/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 있네.

☞ ‘미류’는 한자어 ‘美柳’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실적인 발음을 고려하여

모음이 단순화된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괴팍하신/괴팍하신} 분이다.
- (2) {으레/으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3) 술만 드시면 {케케묵은/케케묵은} 이야기를 꺼내신다.
- (4) {허우대/허위대}는 멀쩡한 사람이 하는 짓은 아이 같다.

8.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바라요/바래요}.

㉞ ‘바라/바래’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바래’로 발음하는 것이 상당한 빈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모음조화 약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바라요’처럼 모음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키고 있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주착/주책} 부리지 마세요.
- (2) 너무 {나무라지/나무래지} 마세요.
- (3) 고기는 {상치/상추}에 싸서 먹어야 맛있어요.

9. {웃몸/윗몸} 일으키기 매일 하고 있어요.

㉞ ‘위’와 ‘아래’의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나 ‘윗’이 되고 대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와 ‘윗’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선택되는데,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오게 되면 사이시옷이 없는 ‘위’가 온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윗니/웃니}를 먼저 닦으세요.
- (2) {윗층/위층}으로 올라가세요.
- (3) {윗돈/웃돈}을 얹어 주었다.

10. {구절/귀절}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다.

㉞ ‘글귀’와 ‘귀글’만을 제외하고 ‘匂’는 ‘구’로 읽는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가을에는 아름다운 {시귀/시구}가 저절로 떠오른다.
- (2) 어울리지 않는 {문구/문귀}는 빼세요.

11. 시장에서 {무/무우}와 배추를 샀다.

☞ 현실적으로 ‘무우’보다 준말인 ‘무’가 더 널리 쓰이므로 준말만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뱀이 {파리/또아리} 틀고 앉아 있다.
- (2) {술개/소리개} 울음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다.

12. {귀후비개/귀이개/귀개} 좀 주세요.

☞ 준말인 ‘귀개’가 쓰이고는 있지만, 본말인 ‘귀이개’가 더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본말만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흔히 ‘귀후비개’라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 또한 비표준어이다.

13.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시누/시누}가 더 밋다.

☞ 본말인 ‘시누이’와 준말인 ‘시누, 시누’가 모두 표준어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저녁노을/저녁놀}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았다.
- (2) 나는 바느질이 몹시 {서투르다/서툴다}
- (3) 서울에 {머무르게/머물게} 되면 전화 주세요.
- (4) 너무 {서두르지/서둘지} 마세요.

14. 파리가 {천장/천정}에 붙어 있다.

☞ ‘천장’ 또는 ‘천정’처럼 서로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이는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정한다. 위의 예문에서는 ‘천장’이 표준어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꼭두각시/꼭둑각시} 인형을 만들었다.

- (2) 철수가 일을 제대로 {할는지/할른지/할런지} 모르겠다.
- (3) 민수와 나는 {떨래야/떼려야} 떨 수 없는 관계이다.
- (4) 산에 {가던지/가든지} 바다에 {가던지/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 (5) 내일 {가려고/갈려고} 합니다.
- (6) 콩 {서/세} 말 샀다.

15. 음식물에 파리가 {꼬인다/뽀다/피인다}.

☞ 원칙적으로는 ‘피다’가 표준어이지만 ‘꼬이다’도 표준어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이다’는 비표준어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소고기/쇠고기} 좀 사 와라.
- (2) 나사를 {조이다/죄다/죄이다}.
- (3) 물이 {고이다/괴다/괴이다}.
- (4) 별을 {쪼이다/죄다/죄이다}.

II.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6. {알타리무/총각무}로 김치를 담갔다.

☞ 고유어 계열인 ‘알타리무’보다 한자어 계열인 ‘총각무’가 더 널리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표준어로 정한 경우이다.

17. {우렁챙이/멍게}는 좋아하지 않는다.

☞ 원래 표준어이던 ‘우렁챙이’보다 방언이던 ‘멍게’가 더 많이 사용되어서, ‘멍게’를 표준어로 정한 것으로, ‘우렁챙이’도 표준어로 남겨 두고 있다.

18.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빈자떡}이 먹고 싶다.

☞ 원래 방언이던 ‘빈대떡’이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빈자떡’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멍게’의 경우와 달리 ‘빈대떡’만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19. 저 사람 정말 {주책이다/주책없다}.

☞ 일정한 짓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며 실없이 행동하는 경우에 ‘주책이다’와 ‘주책없다’가 같은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책’의 일차적인 의미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주책없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20. 울 밑에 선 {봉숭아야/봉선화야/봉숭화야}.

☞ ‘봉숭아’와 ‘봉선화’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러나 ‘봉숭화’는 비표준어로, ‘봉숭아’와 ‘봉선화’를 잘못 결합시켜 만든 어형으로 추정된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가뭇/가뭇}이 심하게 들었다.
- (2) 더위가 기승을 {떨다/부린다}
- (3) 저게 제 {책상이에요/책상이어요}.
- (4) 컵을 {깨뜨렸다/깨트렸다}.

<구별하여 써야 할 말>

1. 고무줄을 길게 {늘였다/늘렸다}.

회사의 직원을 {늘였다/늘렸다}.

☞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의 의미이다.

2. 회장님의 {결제/결제}가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말일이 되기 전에 물품 대금을 {결제/결제}해야 한다.

☞ ‘결제’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위사람이 아랫사람의 안전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제’는 일을 처리하면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때 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3.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맞췄다/맞혔다}.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춰/맞혀} 보았다.

☞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시키다’의 의미를 지닌다.

4. 화를 {돈구지/돈우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한다.

할머니의 안경 도수를 {돈구어/돈우어} 드려야겠다.

☞ ‘돈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라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 반면 ‘돈우다’는 ‘기분이나, 흥미, 의욕, 입맛 등을 더 높아지게 하다’ 또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다’를 의미한다.

5. 다리가 {저리고/절이고} 힘이 없다.

배추를 소금에 {저렸다/절였다}.

☞ ‘저리다’는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이 둔한 상태를 의미하고, ‘절이다’는 소금을 먹여 절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6. 생선을 {조리다/졸이다}.

마음을 {조리다/졸이다}.

☞ ‘조리다’는 어육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바득하게 바짝 끓인다는 뜻으로서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뜻의 ‘졸이다’와 구분된다.

7. 부모 속 좀 작작 {씩여라/씩혀라}.

재능을 {씩이다/씩히다}.

☞ ‘씩히다’는 ‘음식을 씹히다’, ‘재주를 씹히다’와 같이 쓰이고 ‘씩이다’는 ‘속을 씹이다’, ‘골치를 씹이다’와 같이 쓰인다.

8. 공부를 {하느라고/하노라고} 잠도 못 잤다.

{쓰느라고/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서 ‘자기 나름으로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고’는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란 뜻을 표시한다.

9. 살을 {에는/에이는} 추위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찬바람에 살이 {에는/에이는} 듯 했다.

☞ ‘에다’는 타동사이고 ‘에이다’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살을 에이는 추위’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10. 여우가 사람을 {호렸다/홀렸다}.

예쁜 여자에게 {호렸다/홀렸다}.

☞ ‘호리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고, ‘홀리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11.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많이 {벗어졌다/벗겨졌다}.

신발이 꼭 끼어 잘 {벗어지지/벗겨지지} 않는다.

☞ ‘벗겨지다’는 ‘뿔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해 떼어지거나 떨어지다’, ‘사실이 밝혀져 죄나 누명 따위에서 벗어나다’의 뜻인 반면, ‘벗어지다’는 ‘뿔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흘러내리거나 떨어져 나가다’,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의 뜻이다.

12. 나무, 바위 같은 자연에는 영혼이 {깃들여/깃들여} 있다.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깃들일} 곳이 있다.

☞ ‘깃들다’는 ‘아늑하게 서려 들다’,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며 있다’란 의미로 쓰이고, ‘깃들이다’는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란 뜻으로 쓰인다.

13. 외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번역해야 {함으로/하므로} 응시자는 외국어 능력을 꼭 갖추야 한다.

나는 노래를 실컷 {부름으로써/부르므로써} 외로움을 달랬다.

☞ ‘-하므로’는 ‘-하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까닭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라는 뜻으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낸다. ‘-함으로’에는 ‘-써’가 붙을 수 있으나 ‘-하므로’에는 ‘-써’를 붙일 수 없다.

14. 철수가 이번 토요일에 {결혼한대/결혼한데}.

그 집 아들은 벌써 책을 {읽대/읽데}.

☞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반면에 ‘-데’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회상하며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 정답

1. (1) 동넙 (2) 부엌 (3) 털어먹었다 (4) 재떨이 (5) 과녁
2. (1) 사글세 (2) 고살
3. (1) 둘째야 (2) 스물두째야 (3) 열둘째나 (4) 둘 (5) 빌려
4. (1) 깡충깡충 (2) 오순도순 (3) 늦둥이
5. (1) 안사돈 (2) 삼촌
6. (1) 아지랑이 (2) 서울내기
7. (1) 괴팍하신 (2) 으레 (3) 케케묵은 (4) 허우대
8. (1) 주책 (2) 나무라지 (3) 상추
9. (1) 윗니 (2) 위층 (3) 웃돈
10. (1) 시구 (2) 문구
11. (1) 빠리 (2) 술개
13. (1) 저녁노을, 저녁놀 (2) 서투르다, 서툴다 (3) 머무르게, 머물게 (4) 서두르지, 서둘지
14. (1) 꼭두각시 (2) 할는지 (3) 떼려야 (4) 가든지, 가든지 (5) 가려고 (6) 서
15. (1) 소고기, 쇠고기 (2) 조이다, 죄다 (3) 고이다, 괴다 (4) 쪼이다, 쪼다
20. (1) 가뭇, 가뭇 (2) 떠다, 부린다 (3) 책상이에요, 책상이어요 (4) 깨뜨렸다, 깨트렸다

표준 발음

황 연 신 (서울대학교)

1. 표준 발음법이란?

표준 발음법은 ①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②전통성과 ③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표준 발음법 제1항).

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름.

▪ 늣으니[늘그니] 늣고[늘꼬] 늣소[늣쏘]

② 소리의 길이의 경우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현재 구별하여 쓰고 있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표준 발음법에 포함하였음.

③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싣따]가 자주 쓰이나 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마딤따]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딤따]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마싣따]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로 함.

2. 표준 발음에서 인정되는 자음의 종류는?

2.1. 자음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ㅋ
ㅍ ㅎ (19개)

※ 발음 위치와 방법에 따른 분류

	입술소리	혀끝소리	(경)구개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예사소리	ㅂ	ㄷ, ㅅ	ㅈ	ㅊ	ㅎ
거센소리	ㅃ	ㅌ	ㅊ	ㅋ	
된소리	ㅃ	ㄷ, ㅅ	ㅈ	ㅊ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2.2. 모습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 ㅟ ㅠ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ㅖ, ㅙ’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一	丅
중모음	ㅐ	ㅑ	ㅓ	ㅕ
저모음	ㅒ	ㅓ		

(2) 1의 표상

표준 발음에서 /ㄴ/는 길게 날 때와 짧게 날 때 소리 값에 차이가 있다. /ㄴ:/는 중설 모음이고 /ㄴ/는 후설 모음이다. 즉, /ㄴ:/는 /ㅡ/와 /ㅗ/와의 중간 모음인 올린 /ㅜ/로 발음한다.

$$/ \vdash : /$$

벌 : (-이 쏘다)

병 : (위)

없 : 다

14

벌(-받다)

병(-마개)

업다(아이들)

적 : 다(조금)

적다(쓰다)

석 : 자(세 글자)

섞자(혼합)

선 : 수(-단)

선수(-치다)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어른, 건강, 선수, 어깨, 서리, 버릇

(3) 이중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들 이중 모음 가운데서 /ㅓ/가 긴소리인 경우에는 /ㅓ:/에 준해서 발음해야 한다. ‘건본, 견다, 별(星), 연(軟)하다, 열쇠, 영감(令監), 염주(念珠), 편지, 현대’ 등의 첫째 음절의 ‘ㅓ’가 그 예이다.

(4) /ㄱ/와 /ㄴ/의 구분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게, 개, 예, 애, ‘베개를 베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ㄱ/와 /ㄴ/가 구별이 안 되는 이유는 열린 모음 /ㅏ/를 닫힌 모음 /ㅓ/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ㅏ/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ㅓ/를 발음할 때보다 아래턱을 더 내리고 혀의 앞부분도 낮은 위치로 내린 다음 입술을 편 상태로 발음해야 한다.

/ㄱ/

/ㅏ/

게

개

네게

내게

베다

배다

네 것

내 것

(5) /내/와 /니/와 /네/의 발음

/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문자와는 달리 /네/와 발음이 비슷하게 된다. ‘금괴(金塊)’가 ‘금궤(金櫃)’와 같이 발음되는 경우가 그 한 예다. 현재 /내/와 /네/가 구분이 되지 않고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열린 이중 모음 /내/를 닫힌 이중 모음/네/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내/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네/를 발음하는 경우보다 입술을 좀 더 편 상태로 아래턱을 좀 더 내리고 발음해야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문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웬, 웬지, 외나무, 되다, 뒀다.

(6) /니/의 발음

‘희망’ :[*희망/히망/*호망]

‘주희’ :[*주희/주히/*주호]

→ 자음이 초성에 올 때 ‘니’는 [ㅣ]로 발음한다.

‘의논’ :[*의논/*이논/*으논]

‘주의’ :[*주의/주이/*주으]

→ 자음이 초성이 오지 않을 때, 첫 음절 ‘니’는 [-ㅣ]로 발음해야 한다.

→ 첫 음절 이외에선 [ㅣ]로도 발음할 수 있다.

나의(고향) : [나의/*나이/*나으/나에]

→ 조사 ‘니’는 [궤]로도 발음할 수 있다.

(7) 용언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의 발음

가지어→가져, 찌어→찌, 다치어→다쳐

[저, 찌, 처]와 같이 경구개음 ‘ㅈ, ㅉ, ㅊ’ 다음에서 ‘ㄷ’ 같은 이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는 없다.

(8) ‘네’의 발음

예절[예 절/*에 절]

옛날[엔 : 날/*엔 : 날]

차레[차 레/*차 레]

의례[의 레/*의 레]

계시다[계 : 시다/계 : 시다]

매벌[매벌/매벌](袂別)

개폐[개 폐/개 폐](開閉)

혜택[혜 : 택/혜 : 택]

‘예, 레’ 이외의 ‘ㄹ’은 [ㄴ]로도 발음이 가능하다. ‘레’는 둘째 음절에 위치한 경우라도 꼭 그 음가 그대로 발음해야 한다.

㉡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인 것을 고르세요.

- (1) 널리리[널리리/널리리/늘리리]
- (2) 띄어쓰기[떠어쓰기/띄어쓰기/뜨어쓰기]
- (3) 민주주의의 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에의의/민주주의에의이/민주주의에이이/민주주의에으으]
- (4) 결례[결 례/결 례]
- (5) 예쁘다[예쁘다/예쁘다]
- (6) 통계[통 : 계/통 : 계]
- (7) 폐단[폐 : 단/폐 : 단]
- (8) 은혜[은혜/은혜]
- (9) 돌치+어→돌쳐[돌쳐/돌쳐]
- (10) 굳히+어→굳쳐[구쳐/구쳐]
- (11) 잊히+어→잊혀[이쳐/이쳐]

3. 소리의 길이

3.1. 긴소리와 짧은소리

발음의 혼란 중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긴 소리를 짧은 소리로 혼동하여 잘못 내는 경우이다. 짧은 세대로 갈수록 긴소리와 짧은소리 구분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발음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긴소리

짧은소리

말 : (언어)	말(동물)
밭 : (-을 치다)	밭(-바닥)
살 : (-다)	살(-결)
밤 : (-송이)	밤(-낮)
별 : (집)	별(-받다)
병 : (-원)	병(-마개)
시 : 장(-님)	시장(-하다)
모 : 자(-관계)	모자(쓰다)
과 : 장(-하다)	과장(-님)

3.2. 첫음절 이외에선 긴소리로 나지 않는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눈보라[눈 : 보라]	/	첫눈[천눈]
말씨[말 : 씨]	/	참말[참말]
밤나무[밤 : 나무]	/	쌍둥밤[쌍둥밤]
많다[만 : 타]	/	수많이[수 : 마니]
멀리[멀 : 리]	/	눈멀다[눈멀다]
벌리다[벌 : 리다]	/	떠벌리다[떠벌리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 : 신 바 : 니/반 : 신 바 : 니]

재삼재사[재 : 삼 재 : 사]

3.3. ‘봤다’의 발음은 [봬:따]일까 [봬따]일까?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 → 봐[봬 :]	기어 → 겨[겨 :]
되어 → 돼[돼 :]	두어 → 뒤통[뒤 :]

하여 → 해[해:]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찌, 치어 → 처’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3.4. 긴 소리를 가진 첫 음절에서 짧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 — 감으니[가르니]

밟다[밟 : 따] — 밟으면[발브면]

신다[신 : 따] — 신어[시너]

알다[알 : 다] — 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 : 다] — 끌어[끄 : 러]

뺨다[뺨 : 따] — 뺨은[뺨 : 븐]

벌다[벌 : 다] — 벌어[버 : 러]

썰다[썰 : 다] — 썰어[써 : 러]

없다[엮 : 따] — 없으니[엮 : 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 : 다] — 꼬이다[꼬이다]

밟다[밟 : 따] — 밟히다[발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 : 리다]

벌리다[벌 : 리다]

없애다[엮 : 쎄다]

(3)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

㉡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인 것을 고르세요.

- (1) 검찰청(檢察廳) [검:찰청/검찰청]
- (2) 전화(電話)[전:화/전화]
- (3) 없애다[업:썰다/업썰다]
- (4) 많다[만 : 타/만타]
- (5) 수많이[수 : 마니/수 : 마니]
- (6) (꿈을)꿔다[꿔:따/꿔따]
- (7) 별똥별[별:똥별/별똥별/별:똥별:/별똥별:]

4. 소리의 변화

4.1 흘받침의 발음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낫, 낫, 낫, 낯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ㄱ, ㄲ, ㅋ → [ㄱ]

▪ 국[국], 부엌[부엌], 낚시[낙씨]

ㄷ, ㅌ, ㅎ, ㅗ, ㅜ, ㅡ → [ㄷ]

▪ 받고[받꼬], 밭[받], 낳고[낙꼬], 낫[낙], 낫[낙], 낫[낙]

ㅂ, ㅍ → [ㅂ]

▪ 밥통[밥통], 앞[압]

4.2 겹받침의 발음

(1) 겹받침의 단순화

국어에서 겹받침은 11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있다.

이들 겹받침이 들어간 음절이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두 자음 중에서 하나만 발음된다.

(2) 첫 번째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ㄱ, ㄴ, ㄹ, ㄷ, ㅌ, ㅍ’은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자음만이 발음된다.

넋[넉], 앓다[안따], 여덟[여덜], 외곶[외골], 핥다[할따], 값[갑]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발음에 혼동을 보이는 단어로 ‘짧다’, ‘넓다’가 있다. 이 경우 ‘짧다’는 [짹따]가 아닌 [찰따]라고 발음해야 하며 ‘넓다’ 역시 [넙따]가 아닌 [널따]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뵈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자음이 발음되어 [뵈:따], [넙쩌카다], [넙쭈카다], [넙똥글다]로 발음해야 한다.

(3) 두 번째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ㄴ, ㄹ, ㄷ’은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두 번째 자음만이 발음된다.

닭[닥], 쫓다[점따], 읊다[읍따]

다만 ‘ㄴ’ 뒤에 ‘ㄱ’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 번째 자음이 발음된다.

굶다[국따], 굶고[굴꼬], 굶게[굴께]

맑다[막따], 맑고[말꼬], 맑게[말께]

읽다[익따], 읽고[일꼬], 읽게[일께]

주의해야 할 것은 파생어들인 ‘깜작깜작하다, 깜작거리다, 굶다랴다, 굶직하다, 굶적거리다, 늪수그레하다, 늪정이, 엷죽엷죽하다’ 등의 경우에 ‘ㄱ’ 앞

이 아니므로 역시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4) ‘ㄴㅎ’, ‘ㄷㅎ’의 발음

‘ㄴㅎ’, ‘ㄷㅎ’의 경우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자음인 ‘ㄴ’과 ‘ㄷ’이 발음된다. 다만 두 번째 자음 ‘ㅎ’의 영향으로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읽다[일타/*일따]

읽고[일코/*일꼬]

많다[만타/*만따]

많고[만코/*만꼬]

㉡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발음해 보세요.

뭉까지, 엇고, 앓다, 훑다. 뵈고, 뵈고, 넘죽하고, 읽다, 읽더라, 읽고,
뭉고, 뭉더라, 갑작거리다, 늑수그레하다, 굶직하다. 읽다.

4.3. 받침 ㅎ의 발음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놓고, 많고, 좋다, 옳다, 닳지, 하얗지요. 놓아, 많아. 좋아. 옳아, 닳아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 ㅅ’가 결합되는 경우 [ㄱ, ㄷ, ㅈ, ㅅ]로 발음된다. 그리고 받침 ‘ㅎ’ 앞에 ‘ㄱ, ㄷ, ㅂ, ㅈ’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ㄱ, ㄷ, ㅂ, ㅈ]로 발음된다.

ㅎ + ㄱ, ㄷ, ㅈ = ㄱ, ㄷ, ㅈ

▪ 놓고[노코], 종던[조턴], 쌓지[싸치]

▪ 많고[만코], 앓던[안턴], 닳지[달치]

※ 놓고 *[논코]/*[노꼬]

ㄱ, ㄷ, ㅂ, ㅈ + ㅎ = ㄱ, ㄷ, ㅂ, ㅈ

▪ 각하[가카], 만형[마텅], 좁히다[조피다], 꽃히다[꼬치다]

얇히다[일키다], 넓히다[넌피다]

옷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ㅎ + ㅅ = ㅆ

▪ 당소[다쏘], 많소[만:쏘], 싫소[실쏘]

나아가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시된 ‘옷 한 벌, 낮 한때, 꽃 한 송이’ 등이 그것인데, 다음의 경우들도 그 예들이 된다.

온갖 힘[온:가팀]

못 형벌[무텅벌]

몇 할[머탈]

밥 한 사발[바판사발]

국 한 대접[구칸대접]

물론 단어마다 끊어서 발음할 때에는 ‘옷 한 벌[온 한 벌]’과 같이 발음한다. 즉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

4.4. 연음과 절음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연음이라 하고,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대표음으로 바뀐 뒤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절음이라 한다. 연음은 어미, 조사, 접미사와 같은 의존 형태소에 연결되는 경우에, 절음은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에는 절음의 원칙이 적용되는 [마딘따, 머딘따]의 발음이 원칙이지만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마싯따, 머싯따]도 허용한다.

빛이[비치] / 빛 아래[비다래]

꽃을[꼬출] / 꽃 아래[꼬다래]

밭을[바틀] / 밭 아래[바다래]

높이[느피] / 늪 앞[느밧]

젓이[젓이] / 젓 어미[저더미]

웃이[오시] / 헛웃음[허두슴]

㉠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쓰인 항목을 고르세요.

(1) 부엌에서 [부어케서/부어게서]

- (2) 밭을 [바슬/바츨/바틀/바들]
- (3) 무릎이 [무르비/부르피]
- (4) 꽃을 [꼬츨/꼬즐/꼬틀/꼬슬/꼬들]

5. 소리의 변화

5.1. 구개음화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굳이든다. 굳이, 미단이, 땀받이, 밭이. 벼훅이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이외에 ‘히’가 결합될 때에도 받침 ‘ㄷ’과 합하여 [ㅊ]으로 구개음화하여 발음한다. 즉 ‘견히다[거치다]’, ‘받히다[바치다]’ 등이 그 예다.

5.2. 자음동화

(1) 장애음의 비음화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먹는, 단는, 젓명울, 있는, 밥물, 앞마당

장애음은 비음 앞에서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뀐다. 즉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ㅎ), ㄴ(ㄴ, ㄹ, ㄷ, ㅌ)’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장애음의 비음화’라 한다.

-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웁만[키웁만]
몹몹이[몹몹씨] 굶는[궁는] 훅만[훙만]
- 단는[단는] 짓는[진 : 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쫘는] 꽃망울[꼇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2) ㄴ의 비음화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음료, 담력, 정리, 빈라덴, 온라인

‘ㄴ, ㄷ’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ㄴ은 [ㄴ]으로 발음된다.

음료[음뇨], 종로[종노], 십리[십니], 막론[망논]

(3) 유음화

‘ㄴ’은 ‘ㄷ’의 앞이나 뒤에서 [ㄷ]로 발음한다. 첫소리 ‘ㄴ’이 ‘ㄷ’, ‘ㅌ’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난로, 신라, 천리, 찰나, 칼날, 물난리, 할는지, 닳는, 뚫는, 활네

다만 ㄴ으로 끝나고 독립성이 있는 2음절 한자어에 ㄷ로 시작된 일음절 접미사가 결합된 다음과 같은 예들은 ㄷ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녁]
공권력[공뀐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온감]/*[옥감] 있고[일꼬]/*[익꼬]
꽃길[꼇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뻬]/*[뭉뻬]

㉠ 다음 중 표준 발음을 무엇일까요?

- (1) 음운론[음운논/음울론]
- (2) 신문로[신문노/신문로]

- (3) 선릉[선능/선릉]
- (4) 춘란[춘난/출란]
- (5) 되어[되어/되여]
- (6) 피어[피어/피여]
- (7) 아니오[아니오/아니요]

5.3, 경음화

- (1)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 ㄷ, ㅌ, ㅌ, ㅌ), ㅂ(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뺨] 닢받이[닉빠지] 닭장[닥짱] 뺨대다[뺨때다] 웃고름[온꼬름]
 있던[일뎌] 꽃고[꼴꼬] 꽃다발[꼴따발] 발갈이[반까리] 솔전[솔쩐]
 곱돌[곱똥] 덮개[덥개] 넓죽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읍조리다] 값지다[갑찌다]

- (2)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신고[신 : 꼬] 꺾안다[껴안따] 앓고[안꼬] 닭고[담 : 꼬]
 삼고[삼 : 꼬] 더듬지[더듬찌] 었다[언따] 젊지[점 : 찌]
 안기다[안기다]/*[안끼다] 감기다[감기다]/*[감끼다]

- (3)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또] 말살[말쌀]
 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쑤] 물질[물쩔]
 발전[발쩔]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썰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결결[결결](缺缺)

별별[별별](別別)

- (4)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 (5)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손-재주[손째주] 굴-속[굴 : 속] 술-잔[술잔]

아침-밥[아침밥]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 다음 중 표준 발음을 무엇일까요?

- (1) 신발 신고[신 : 고/신 : 꼬] 어디 가니?
- (2) 아이를 굶기다[굶기다/굶끼다]
- (3) 살을 빼기 위해 하루 한 끼 굶기[굶기/굶끼]!
- (4) 김밥[김밥/김뽕]
- (5) 불뵈[불뵈/불뽕]
- (6) (날아다니는)잠자리[잠자리/잠짜리]
- (7) 잠자리(잠자는 자리)[잠자리/잠짜리]
- (8) 작다[작다/작따]
- (9) 게임[게임/게임]
- (10) 효과[효과/효파]
- (11) 눈사람[눈사람/눈싸람]
- (12) 체증[체증/체쥬]
- (13) 일방적[일방적/일방쩍]

5.4. 음의 첨가

㉠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숨이불, 색연필, 논일, 한여름, 앞이마, 막일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 : 니불] 흘-이불[흔니불] 막-일[망닐] 샷-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꼴닙] 내복-약[내 : 봉낙]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캥널차]
늑막-염[능망념] 콩-엿[콩녘] 담-요[담 : 뇨] 눈-요기[눈 뇨기]
영업-용[영엄룡]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궁민눌리] 밤-웃[밤 : 눌]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마금] 검열[검 : 념/
거 : 멸]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용[금녕/그똥]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 : 릴] 술-잎[술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히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절약[저략] 월요일[위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ㄷ)’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절] 송별-연[송 : 버련] 등-용문[등용문]

㉮ 다음 중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 (1) 월요일[위료일/월료일]
- (2) 목요일[모교일/몽뇨일]
- (3) 쌍용[쌍용/쌍농]
- (4) 촬영[촬령/촬령]
- (5) 금융[그뿡/금녕]
- (6) 검열[거 : 멸/검 : 념]
- (7) 문-요?[무뇨/문뇨]
- (8) 상-요?[상요/상뇨]

5.5. 사이시옷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넷가[내 : 까/넌 : 까] 셋길[새 : 낄/쌔 : 낄] 빨랫돌[빨래뜰/빨랫뜰]
콧등[코똥/콘똥] 깃발[기빨/긴빨] 대팻밥[대 : 패뺨/대 : 뽕뺨]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랫니→아랜니] 텃마루[툇 : 마루→툇 : 마루]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갯넝→베갯넝] 깻잎[깻넝→깻넝] 나뭇잎[나뭇넝→나뭇넝]

사이시옷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자연스럽게 [ㄴ]으로 발음된다.

뒷일[뒀:닐] 깃잎[깡닙] 도리깃열[도리깡널] 뒷웃[뒀:눈]

㉠ 다음 중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 (1) 머리말[머리말/머린말]
- (2) 인사말[인사말/인산말]
- (3) 사이시옷[사이시온/사이씨온/사인씨온]
- (4) 사잇소리[사이소리/사이쏘리/사인쏘리]
- (5) 피자 집[피자집/피자쩍/피짜쩍/피짹쩍]

■ 정답

1. 어 : 른, 건 : 강, 선 : 수, 어깨, 서리, 버릇
2. 구별해서 발음해 보세요.
3. 구별해서 발음해 보세요.
4. (1) 널리리 (2) 띠어쓰기 (3) 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에의/민주주의에의이 (4) 결례 (5) 예쁘다 (6) 통 : 계/통 : 게 (7) 폐 : 단/폐 : 단 (8) 은혜/은혜 (9) 둔처 (10) 구처 (11) 이처
5. (1) 검 : 찰청 (2) 전 : 화 (3) 업 : 썰다 (4) 만 : 타 (5) 수 : 마니 (6) 펼 : 따 (7) 별:똥별
6. 날, 난, 난, 난
7. 목까지, 언꼬, 알따, 홀따, 밥꼬, 널꼬, 넙쭈카다, 익따, 익떠라, 일꼬, 물꼬, 목떠라, 각쭈꺼리다, 늑쭈그레하다, 국쭈카다. 일타
8. 노코, 만 : 코, 조 : 타, 올타, 달치, 하 : 야치요, 노아, 마 : 나, 조 : 아, 오라, 다라
9. (1) 부어케서 (2) 바틀 (3) 무르피 (4) 꼬출
10. 고지들따, 구지, 미다지, 땀바지, 바치, 벼홀치
11. 멍는, 단는, 전명울, 인는, 밤물, 암마당
12. 음노, 담넉, 정니
13. (1) 음운논 (2) 심문노 (3) 설릉 (4) 출란 (5) 올라인 (6) 피어/피여 (7) 아 니오/아니요 (8) 되어/되여
14. (1) 신 : 꼬 (2) 굶기다 (3) 굶끼 (4) 김밥 (5) 불법 (6) 잠자리 (7) 잠짜리 (8) 작다 (9) 게임 (10) 효 : 과
15. 숨니불, 생년필, 논닐, 한녀름, 앞니마, 망닐
16. (1) 위로일 (2) 모교일 (3) 쌍용 (4) 좌령 (5) 그뿡/금뿡 (6) 거 : 멸/검 : 념 (7) 무뇨 (8) 상요
17. (1) 머리말 (2) 인사말 (3) 사이시온 (4) 사이쪼리/사인쪼리 (5) 피자집

외래어 표기법

김 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1. 머리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 가운데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별도의 학습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중이 이에 관한 규정을 모르고 외래어를 사용하여 표기상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외래어 표기법에 관해 언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부정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용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이해

2.1.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는 외국과의 교류로 외국의 문물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거나 우리말이 있어도 의미상의 변화를 의도하여 외국어 어휘를 국어에 동화하여 국어 어휘로 사용하는 말이다.

외국어 어휘가 외래어로 정착되는 기간이나 방식은 각 어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외국어와 외래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대체적으로 외래어는 발음, 형태, 의미상에 있어서 원래의 외국어와는 다르게 변형되어 사용하고 있다.

즉 발음에 있어서 ‘fighting[faitɪŋ], radio[reidiou]’의 [f]나 [r]은 국어에는 없는 음으로 이를 표기할 문자 역시 없다. 따라서 이들을 국어음으로 변형하여 각각 [표]과 [리]로 발음하고 ‘파이팅, 라디오’로 표기한다.

형태상의 변형은 형용사나 동사인 외국어 어휘에 국어 조어법을 적용하여

가령 ‘simple[simpl]+하다 → 심플하다, study[stʌdi]+하다 → 스터디하다’와 같이 ‘-하다’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이다.

의미상의 변형은 외국어의 고유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로 ‘meeting[mi:tiŋ] 미팅’은 원래의 의미인 ‘회의’와 더불어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garden[ga:rdn] 가든’은 요식업체의 상호로 사용되기도 한다.

2.2.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전체 4장으로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래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표기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외래어 사용 초기에는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v]를 ‘ㅁ’, [f]를 ‘ㅍ’으로 적는 경우가 있었고, 장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붙임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외래어도 국어 어휘의 일부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제2항은 가장 이상적인 표기는 외래어의 음운을 국어의 자모와 1:1로 대응

하는 것이지만 [f]나 [r]과 같이 국어음이 존재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2개 이상의 외국어 음을 하나의 국어 자모로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시한 것이다.

제3항은 외래어의 받침은 국어 표기와 달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7개로 간단하게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커피숍, 코너킥’과 같은 표기 형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국어의 경우 ‘ㅅ, ㅈ, ㅊ, ㅌ, ㅍ’ 등의 대표음은 ‘ㄷ’인데 외래어는 ‘ㅅ’을 대표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어 어휘의 경우 가령 ‘빛, 빛, 빛’의 발음은 [빈]이나 모음을 결합하면 ‘빛+이[비시], 빛+이[비지], 빛+이[비치]’와 같이 그 음가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외래어의 경우도 ‘인터넷+이[인터넷시], 디스켓+이[디스케시]’로 그 음가가 ‘ㄷ’이 아닌 ‘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국어의 자모로 모든 외국어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어의 무성과 열음(k, t, p)은 거센소리(ㄱ, ㅌ, ㅍ)로, 유성과 열음(g, d, b)은 예사소리(ㄱ, ㄷ, ㅂ)로 적도록 하고 있다.

제5항은 외래어 표기 원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전에 대부분의 언중이 사용하여 온 어휘 가운데 표기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몇몇 어휘는 표기법에 적용하지 않고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radio[reidiou]’는 표기법 상으로는 발음기호에 따라 ‘레이디오’로 적어야 하고, ‘camera[kæməɾə]’는 ‘캐머러’로 적어야 하나 관용을 인정하여 각각 ‘라디오, 카메라’로 적도록 하고 있다.

2.3. 외래어 표기 용례

A. 자음의 표기

(1) 파열음

어두에 파열음이 올 경우 표기 원칙에 따라 무성과 열음(k, t, p)은 거센소리(ㄱ, ㅌ, ㅍ)로, 유성과 열음(g, d, b)은 예사소리(ㄱ, ㄷ, ㅂ)로 적는다.

- 1) café[kæfei/kəfei] 카페/까페

trio[triou] 트리오/뜨리오

Paris[pæris] 파리/빠리

gas[gæs] 가스/까스

double[dʌbl] 더블/떠블

bus[bʌs] 버스/빠스

무성파열음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올 때 받침으로 적거나 ‘으’를 붙여 적는다. 일반적으로 영어 이외의 경우는 ‘으’를 붙여 적으면 되나, 영어의 경우는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이는 이중모음이나 장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 robot[rɒbɒt] 로봇/로보트

internet[intənet] 인터넷/인터네트

Tibet[tibet] 티벳/티베트

cake[keik] 케익/케이크

tape[teip] 테이프/테이프

flute[flu:t] 플룻/플루트

또한 짧은 모음과 유음이나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있는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짧은 모음과 유음이나 비음 사이의 무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어야 한다.

3) lipstick[lipstik] 립스틱/리프스틱

napkin[næpkin] 냅킨/내프킨

mattress[mætris] 매트리스/매트리스

sickness[siknis] 식니스/시크니스

유성파열음의 경우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head[hed] 헛/헤드
 herb[hə:b] 헵/허브
 gagman[gægmæn] 객맨/개그맨

그러나 간혹 관용을 존중하10부칙과 다른 표기를 인정하고 있어 언중이 실제 표기를 할 때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규칙과 달리 표기하는 어휘는 그 용례를 별도로 명시하여 언중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hip[hip] 힙/히프
 set[set] 셋/세트
 bag[bæg] 백/배그
 web[web] 웹/웹브

(2) 마찰음

마찰음 [f]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에 모음 앞에서는 ‘프’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프’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어로는 마찰음 [f]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 6) fighting[faitɪŋ] 파이팅/화이팅
 fantasy[fæntəsi] 판타지/환타지
 frypan[fraipæn] 프라이팬/후라이팬
 graph[græf] 그래프/그래푸

마찰음 [s]는 [s] 뒤에 모음이 이어지는 대부분의 경우와 [s]가 어말에 올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러나 기본 원칙에서 명시하였듯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사소리인 ‘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7) service[sə:rvis] 서비스/씨비스

center[sentər] 센터/쎄터
 sauna[saunə] 사우나/싸우나
 sign[sain] 사인/싸인
 dance[dæns] 댄스/뎌쓰
 gas[gæs] 가스/까쓰

마찰음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 등으로 적는다.

8) shrimp[ʃrimp] 쉬림프/슈림프
 dash[dæʃ] 대쉬/대시
 English[ɪŋɡlɪʃ] 잉글리쉬/잉글리시
 shopping[ʃɒpɪŋ] 쇼핑/쇼핑
 leadership[liːdəʃɪp] 리더쉽/리더십

(3) 파찰음

국어에서는 ‘ㄷ, ㅌ’ 같은 구개 자음 뒤에서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다. 즉 ‘ㄷ, ㅌ’을 지닌 단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든 단모음으로 발음하든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외래어를 적을 때에도 ‘ㄷ’이나 ‘ㅌ’ 뒤에 발음상 구분되지 않는 ‘자, 주, 차’ 등의 이중모음 표기를 하지 않고 단모음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9) television[telɪvɪʒən] 텔레비전/텔레비전
 juice[dʒuːs] 주스/쥬스
 chance[tʃɑːns] 찬스/찬스
 chart[tʃɑːt] 차트/차트

(4) 유음

유음 [l]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으며, 어중에서는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 [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

는다. 다만 ‘Hamlet[hæmlit] 햄릿, Henley[henli] 헨리’과 같이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 10) plaza[pla:zə] 프라자/플라자
- clinic[klinik] 클리닉/클리닉
- catalogue[kætəlog] 카다로그/카탈로그
- club[klʌb] 크럽/클럽

B. 모음의 표기

외래어 표기에서 모음의 경우는 발음기호를 확인하지 않고 철자에 의한 표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예가 많이 발생한다.

(1) 단모음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표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에 의하면 [ə]와 [ʌ]는 ‘어’로, [æ]는 ‘애’로, [ɔ]와 [o]는 ‘오’로 적도록 되어 있다.

- 11) terminal[tə:rminəl] 터미널/터미날
- dollar[dələr] 달러/달라
- color[kʌlər] 컬러/칼라
- honey[hʌni] 허니/하니
- accessory[æksesəri] 악세서리/엑세서리
- talent[tələnt] 탈렌트/탤런트

특히 ‘con-’은 [kɒn-]과 [kən-]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중은 철자 ‘o’에 의해 ‘콘’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컨’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철자가 아닌 발음기호에 의해 표기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12) concert[kɒnsə:t] 콘서트/컨서트
- concept[kɒnsept] 콘셉트/컨셉트

condition[kəndiʃən] 콘디션/컨디션

control[kəntroul] 콘트롤/컨트롤

collection[kəlekʃən] 콜렉션/컬렉션

(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spike[spaik] 스파이크, sauna[saunə] 사우나, skate[skeit] 스케이트’와 같이 [ai]는 ‘아이’, [au]는 ‘아우’, [ei]는 ‘에이’ 등으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boat[bout] 보트/보우트

pose[pouz] 포즈/포우즈

shadow[ʃædou] 섀도/섀도우

window[windou] 윈도우/윈도우

power [pauə] 파워/파우어

tower [tauə] 타워/타우어

C. 복합어의 표기

복합어는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이는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한 것이다.

14) outlet [autlet] 아울렛/아웃렛

make up [meikʌp] 메이컵/메이크업

headlight [hedlait] 헤드라이트/헤드라이트

D. 인명·지명의 표기

인명·지명의 표기는 다른 일반 명사에 비해 구별이 용이한 것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Caesar 시저, Hague

헤이그'와 같이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르고,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와 같이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에도 관용을 따르는 등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동양의 인명·지명 표기의 경우는 국어의 한자음으로 읽는 습관이 있어 따로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에 그 표기법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인명은 제1항에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孔子, 孟子' 등의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공자, 맹자'로 표기하고, '毛澤東, 張國榮'과 같은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발음에 따라 '마오쩌둥, 장궈룽'으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지명의 경우는 제2항에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린 한자음대로 하고, '廣州 광저우, 杭州 항저우'와 같이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인명·지명은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札幌 삿포로' 등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15) 鹿兒島 녹아도/가고시마

安倍晋三 안배진삼/아베신조

海南 해남/하이난

鄧小平 등소평/덩샤오핑

문제는 '京都, 東京, 上海, 黃河'와 같이 일본 및 중국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교토, 도쿄, 상하이, 황허'와 함께 '경도, 동경, 상해, 황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언중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관용 표기의 경우는 그 목록을 명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16) 北海島 북해도/홋카이도

大阪 대관/오사카

萬里長城 만리장성/완리창청

吉林 길림/지린

3. 맺음말

외래어는 국어 어휘 가운데 하나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된다.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해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은 기본 원칙과 함께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규칙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여야 한다.

언중이 외래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기법에 관한 이해와 함께 바른 표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 과정에 외래어 표기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규범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규범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 매체도 자막에 외래어를 표기할 경우 표기법에 맞게 표기하여 언중의 외래어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언중도 외래어가 국어 어휘임을 인식하여 표기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정답

- 1) 카페, 트리오, 파리, 가스, 더블, 버스
- 2) 로봇, 인터넷, 티베트, 케이크, 테이프, 플루트
- 3) 립스틱, 냅킨, 매트리스, 시크니스
- 4) 헤드, 허브, 개그맨
- 5) 히프, 세트, 백, 웹
- 6) 파이팅, 판타지, 프라이팬, 그래프
- 7) 서비스, 센터, 사우나, 사인, 댄스, 가스
- 8) 슈림프, 대시, 잉글리시, 쇼핑, 리더십
- 9) 텔레비전, 주스, 찬스, 차트
- 10) 플라자, 클리닉, 카탈로그, 클럽
- 11) 터미널, 달러, 컬러, 허니, 액세서리, 텔런트
- 12) 콘서트, 콘셉트, 컨디션, 컨트롤, 컬렉션
- 13) 보트, 포즈, 새도, 원도, 파워, 타워
- 14) 아웃렛, 메이크업, 헤드라이트
- 15) 가고시마, 아베신조, 하이난, 덩샤오핑
- 16) 북해도, 홋카이도, 대관, 오사카, 만리장성, 완리창청, 길림, 지린

로마자 표기법

권 미 영 (국립국어원)

1.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와 특징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 □□□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뜻을 밝혀서 형태소별로 적는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의 원칙이 “국어의 ■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왕십리’라는 말은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왕십니]’로 발음되므로, 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Wangsipri’가 아니라 ‘Wangsimni’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 문 (1) 로마자 표기에서 발음대로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왜 로마자 표기가 필요한가?

☞ 로마자 표기를 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도로 표지판에 ‘왕십리’를 ‘Wangsipri’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발음할 것이고, 그 발음은 우리가 알아듣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표기이므로 이처럼 발음대로 적는 것이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1) 삼성(기업명) ()
- (2) 대우(기업명) ()
- (3) 국민(은행명) ()
- (4) 조선(신문명) ()
- (5) 중앙(신문명) ()

화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우리 국민의 언어 의식과 맞지 않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반달표(˘)는 ‘ㅓ(ö)’와 ‘ㅡ(ü)’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부호가 포함된 표기는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하여, ‘삼성’에서처럼 ‘ㅓ’를 ‘u’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ㅓ’는 ‘u, oo, woo’ 등의 여러 잘못된 표기가 사용된 것이다.

또 어갯점(˙)은 ‘ㅍ(p)’, ‘ㅌ(t)’, ‘ㅋ(k)’ 등을 표기하는 데 쓰였는데,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국인의 언어 의식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라는 단어는 개정되기 전의 로마자 표기에 따르면 ‘kagu’로 써야 했다. 같은 자음인 ‘ㄱ’을 환경에 따라(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따라) ‘k’와 ‘g’의 두 개의 로마자로 구별해서 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ㄱ’과 전혀 다른 음소인 ‘ㅋ’은 ‘k’에 어갯점(˙)을 더하여 ‘k˙’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늘 ‘k, t, p, ch’를 써야 하는지 ‘g, d, b, j’를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하면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처럼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라는 부호는 개정된 표기법에서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기본적으로 행정 구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며, 그 외에 이름의 표기나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모음과 자음의 로마자 표기 익히기

2.1. 모음

(1) 단모음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ㅛ ()		ㅜ ()	

(2) 이중모음

① ‘y’ 계열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	-----------	-----------	-----------	-----------	-----------

② ‘w’ 계열

ㅘ ()	ㅚ ()	ㅞ ()	ㅟ ()
-----------	-----------	-----------	-----------

③ 기타

ㅡ ()

☞ 단모음의 표기에서는 ‘ㅑ’와 ‘ㅓ’를 ‘eo’와 ‘eu’로 표기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표기할 경우 외국인들이 ‘eo’는 ‘에오’로 ‘eu’는 ‘에우’로 읽을 가능성이 ‘어’나 ‘으’로 읽을 가능성보다 높겠지만, 로마자에 한국어의 ‘어’와 ‘으’를 한 글자로 적을 만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적게 되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y’나 ‘w’를 넣어 적으면 된다. 그런데 ‘ㅞ’는 ‘weo’가 아니라 ‘wo’로 표기하며, ‘ㅡ’는 단모음 ‘ㅡ’와 ‘ㅣ’의 결합이어서 ‘eui’로 적어야겠지만 ‘ui’로 적는다는 것에 주의해야겠다.

2.2. 자음

(1) 파열음

ㅂ (,)	ㅃ ()	ㅍ ()
ㄷ (,)	ㄸ ()	ㅌ ()
ㄱ (,)	ㄲ ()	ㅋ ()

(2) 파찰음

ㅈ ()	ㅉ ()	ㅊ ()
--------------	--------------	--------------

(3) 마찰음

ㅅ ()	ㅆ ()	ㅎ ()
--------------	--------------	--------------

(4) 비음

ㅁ ()	ㄴ ()	ㅇ ()
--------------	--------------	--------------

(5) 유음

ㄹ ()	ㄺ ()	ㄻ ()
--------------	--------------	--------------

☞ 자음의 표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ㄱ, ㄷ, ㅂ’는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지만,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② ‘ㅇ’은 자음 앞이나 단어의 끝, 즉 받침으로 쓰일 때에만 소리([ŋ])가 나므로, ‘아’는 ‘a’로 적어야지 ‘nga’로 적어서는 안 된다.
- ③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처럼 ‘ㄹ’이 겹쳐서 발음될 때는 ‘ll’로 적는다.

3. 유의할 점

앞에서 이미 강조했지만 로마자 표기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대로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 다음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여 로마자로 바꾸어 쓰시오.

(1) 신문로[]

(2) 막일 []

(3) 해돋이[]

(4-1) 잡혀[]

(4-2) 집현전 []

(5) 압구정[]

(6) 해운대[]

(7) 본인 성명 []

(8-1) 제주도 []

(8-2) 청주[]

(9) 속리산[]

(10) 삼성 []

3.1.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자음 동화)

☞ 자음 두 개가 서로 연이어 발음될 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음운 또는 두 음운이 바뀌어 서로 비슷하게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우리말을 발음할 때 반드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말의 자음 동화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바뀐다.

백마[백마] Bangma 달는다[단는다] danneunda 갑문[감문] Gammun

② ‘ㄷ’은 ‘ㄹ,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삼례[삼네] Samnye 종로[종노] Jongno

③ ‘ㄱ, ㅂ’ 뒤에 ‘ㄷ’이 오면 ‘ㄱ, ㅂ’은 ‘ㅇ, ㄹ’으로, ‘ㄷ’은 ‘ㄴ’으로 둘 다 바뀐다.

곡릉[공릉] Gongneung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④ ‘ㄴ’ 다음에 ‘ㄷ’이 오면 ‘ㄷ’이 ‘ㄴ’으로 바뀔 수도 있고, ‘ㄴ’이 ‘ㄷ’로 바뀔 수도 있다.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신라[실라] Silla

⑤ ‘ㄷ’ 다음에 ‘ㄴ’이 오면 ‘ㄴ’이 ‘ㄷ’로 바뀐다.

별내[별래] Byeollae

(2) ‘ㄴ, ㄷ’이 덧나는 경우(음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냐, 녀, 뇨, 뉴]로 발음하는 현상을 음운 첨가 혹은 ‘ㄴ’ 첨가라고 한다. 이

때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 자음이 ‘ㄹ’이면 첨가된 ‘ㄴ’ 소리는 앞의 자음 동화 ④에 의하여 ‘ㄹ’로 발음된다. 이렇게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은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유의해야겠다.

학여울[항녀울] Hangnyeul

알약[알락]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구개음화)

㉞ ‘ㄷ’이나 ‘ㅌ’은 뒤에 ‘ㅣ’ 모음이 오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ㅈ’이나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를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 구개음화 현상도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㉞ ‘ㄱ, ㄷ, ㅂ, ㅈ’가 ‘ㅎ’와 합하여 거센소리 ‘ㄲ, ㅌ, ㅍ, ㅊ’로 소리 나는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이 현상도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말을 발음할 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 다만, □□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㉞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운이 변화하는 현상은 대개 『표준 발음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할 때 발음대로 적는다. 하지만 거센소리되기는 체언의 경우에 한해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하지 않고 ‘ㅎ’을 밝혀 적는다.

- [붙임] □□□□□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된소리되기는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무시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는 된소리되기가 규칙적인 경우도 있지만 현재 혼동을 보이는 발음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앞의 체언의 거센소리되기와 된소리되기 현상, 이 둘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예외가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예를 들어 ‘세운’을 로마자로 ‘Seun’으로 적으면 ‘세운’뿐만 아니라 ‘순’으로 읽을 수도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Se-un’처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붙임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3.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음절의 첫 글자는 모두 대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혹은 모두 소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하지 않으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는 것(부산 Busan)이 원칙이다. 고유 명사 이외의 경우에는 대개 소문자로 적는다.

3.4.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인명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는 것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한국 사람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으므로 굳이 서양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쓸 필요는 없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마자로 성명을 적을 때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이름은 대개 두 음절인데 이를 붙여 쓰는 것(나리 Nari)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나리 Na-ri)도 허용하고 있다.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 예를 들어 ‘빛나’라는 이름은 ‘[빈나]’로 발음되지만, ‘Binna(Bin-na)’로 적지 않고, ‘Bitna(Bit-na)’로 적는다. 이것은 이름의 경우 음절 각각을 따로 읽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음절별로 따로 적는 것은 이름에는 향렬이 있고 각각의 음절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5.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행정 구역 단위 앞에는 반드시 붙임표(-)를 넣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겠다. 또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왕리[이왕니]’처럼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Inwang-ni’가 아닌 ‘Inwang-ri’로 적는다.

- ‘□, □, □’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청주시’는 ‘Cheongju’, ‘함평군’은 ‘Hampyeong’, ‘순창읍’은 ‘Sunchang’으로 적을 수 있다.

3.6.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로마자로 표기할 때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은 ‘Namsan’으로 ‘다보탑’은 ‘Dabotap’으로 쓴다. ‘Nam-san’이나 ‘Dabo-tap’처럼 붙임표를 넣거나, ‘Nam Mountain’, ‘Dabo Pagoda’처럼 영어 단어를 섞어서 적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7.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여권에 올린 인명이나,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명이나 단체명의 로마자 표기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 이기에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당연히 『로마자 표기법』을 잘 익혀 올바른 표기로 써야 할 것이다.

■ 정답

2.1.

ㅣ (i), ㅍㅑ(wi), ㅡ(eu), ㅍㅓ(u) / ㅑ(e), ㅑㅓ(oe), ㅑㅓ(eo), ㅑㅓ(o) / ㅑ(ae), ㅑㅓ(a)
 ㅑ(ya), ㅑㅓ(yeo), ㅑㅓ(yo), ㅑㅓ(yu), ㅑㅓ(yae), ㅑㅓ(ye)
 ㅑ(wa), ㅑㅓ(wae), ㅑㅓ(wo), ㅑㅓ(we)
 ㅑ(ui)

2.2.

ㅑ(b, p), ㅑㅑ(pp), ㅑㅑ(p) / ㅑ(d, t), ㅑㅑ(tt), ㅑㅑ(t) / ㅑ(g, k), ㅑㅑ(kk), ㅑㅑ(k)
 ㅑ(j), ㅑㅑ(jj), ㅑㅑ(ch)
 ㅑ(s), ㅑㅑ(ss) / ㅑ(h)
 ㅑ(m), ㅑㅑ(n), ㅑㅑ(ng)
 ㅑ(r - 모음 앞), ㅑㅑ(l - 어말, 자음 앞), ㅑㅑ(ll)

3.

- (1) 신문로 [신문노] Sinmunno
- (2) 막 일 [망 닐] mangnil
- (3) 해돋이 [해도지] haedoji
- (4-1)잡 혀 [자 펴] japyeo
- (4-2)집현전 [지편전] Jiphyeonjeon
- (5) 압구정 [압꾸정] Apgujeong
- (6) 해운대 [해운대] Hae(-)undae
- (7) 성 명 [홍빈나] Hong Bitna(Bit-na) 홍빛나
- (8-1)제주도 [제주도] Jeju-do
- (8-2)청 주 [청 주] Cheongju(-si)
- (9) 속리산 [송니산] Songnisan
- (10) 삼 성 [삼 성] Samsung

언어 예절

전 수 태 (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친족에 대한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 전반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결실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편찬한 『우리말의 예절』(1991)이다. 대량 전달 수단을 가진 조선일보가 문제 제기 기사를 써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모았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 기사를 쓰는 한편으로 지방에 따라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표준 화법으로 발표하였는데 위의 책은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그 후 『표준 화법 해설』(1992),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1995) 등의 단행본을 잇달아 간행하였다. 또, 1996년에는 조선일보와 함께 『우리말의 예절』(1991)에 북한의 언어 예절을 더하여 증보판으로 『우리말의 예절(상, 하)』을 발간함으로써 명실 공히 남북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예절의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1. 부부 사이

남편

호칭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아버지, ○○ 아빠
	장년, 노년	여보, 영감, ○○ 할아버지, ○○ 아버지
지칭어	남편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영감[장년, 노년]
	시부모에게	아비, 아범, 그이(이이, 저이)
	친정 부모에게	○ 서방, 그 사람

남편을 부르는 명칭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4년째 된 어느 부부는 상대방을 ‘자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딸아이가 “자기야, 이게 뭐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잘못 쓴 호칭어를 아이가 듣고 배운 것이다.

아내

호칭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어머니, ○○ 엄마
	장년, 노년	여보, 임자, ○○ 할머니, ○○ 어머니
지칭어	아내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임자[장년, 노년]
	친부모에게	(○○) 어미(어멈), 그 사람
	장인, 장모에게	(○○) 어미(어멈, 엄마), 집사람, 그 사람, 안사람

또 28세의 어떤 주부는 대학 동창인 남편에게 처음에는 ‘○○야’ 하고 부르다가 이제는 ‘○○ 씨’ 정도로 불러 주거나 ‘이봐요’, ‘당신’, ‘여보’, ‘자기야’ 등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는데 시부모 앞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을 부를 때 ‘보세요’ 하거나 ‘있잖아요’ 하고 얼버무리기가 일쑤다. 대학 선배와 결혼한 30세의 한 주부는 결혼 전의 습관이 입에 배서 둘이 있을 때나 남 앞에서나 자기 남편을 ‘형’이라고 부른다. 시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어느 방송국 여성 프로듀서의 이야기다. 예정 시간보다 일찍 방송국에 도착한 출연자에게 “일찍 오셨군요.” 하니까 “아빠가 데려다 주셨어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 남편’으로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지만 방송을 시작하기만 하면 ‘아빠’로 바뀐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덕수궁에는 봄 가을로 흰 면사포의 화려한 물결이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추억 사진’을 찍기 위해서이다. 이 때

면사포를 쓴 신부가 신랑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흔히 듣게 된다.

그러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보’가 가장 무난하다. 신혼 초에는 ‘○○ 씨’, ‘여봐요’도 쓸 수 있다. 신혼 초에 바로 ‘여보’라고 부르기 가 어려우므로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남편을 ‘형’, ‘오빠’, 아저씨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어법에도 맞지 않아 써서는 안 되지만 ‘○○ 씨’는 흔히 쓰이고 있고 ‘아저씨’나 ‘오빠’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신혼 초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녀가 있을 때에는 ‘○○ 아버지’, ‘○○ 아빠’라고 한다. 장년이나 노년이 되면 남편을 ‘영감’, ‘○○ 아버지’, ‘○○ 할아버지’로 부른다. 남편을 가리키는 말은 나이에 관계없이 ‘당신’이 제일 무난하고 신혼 초에는 ‘○○ 씨’라고 할 수 있으며 장년이나 노년에는 ‘영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를 부르는 말 역시 ‘여보’가 연령을 떠나 언제나 무난하다. 신혼 초에는 ‘○○ 씨’, ‘여봐요’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때에는 ‘○○ 엄마’, ‘○○ 어머니’도 쓸 수 있다. 장년, 노년일 때에는 ‘임자’, ‘○○ 엄마’, ‘○○ 어머니’, ‘○○ 할머니’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당신’이 제일 무난하고 신혼 초에는 ‘○○ 씨’, 장년, 노년에는 ‘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에게 자기 아내를 말할 경우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남편의 직장이나 아내의 직장에 대하여는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 자기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집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 필자가 최근에 평양에서 월남한 두 인사를 대상으로 부부 호칭어, 지칭어에 대한 그 쪽 상황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데 평양에서는 ‘여보’나 ‘여봐요’ 대신 흔히 ‘여’ 하고 부르고 남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에는 흔히 ‘세대주’라고 한다. ‘세대주’라는 명칭은 북한에서 거의 매일 같이 있는 인민반 회의에 세대주인 남편이 참석하는 일이 많아서 생긴 이름인 것 같다. 함경북도에서는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에는 ‘나그네’라고 지칭한다. 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그네’와 사는 아내들은 남편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다.

2.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

호칭어	살아 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어릴 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성장 후	어머니, 아버지	
지칭어	부모, 조부모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 아버지
	친척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어머님), 아버지(아버님)
	남편에게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친정어머니(님), 친정아버지(님)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예절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배운 대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는 말을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절 교육을 거의 받은 일이 없는 신세대, 즉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는 혼인 전에 쓰던 말을 혼인 이후까지 쓰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성세대의 말투를 따르려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혼인의 단꿈에 젖어 있는 어느 신부의 이야기이다. 집안에서 귀염둥이로 자라서 혼인을 했는데 남의 집 맡며느리가 되었다. 가끔 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집에서도 수다를 떨 때에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저희 엄마는요, 저희 아빠가요’ 하고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섭섭하더라도 여기서는 친정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너는 우리 집 맡며느리가 아니니?” 하고 나무란다고 한다.

어느 대학원생의 경험담이다. 수업이 늦게 끝나 교수를 모시고 저녁을 같이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연히 소주잔이 오가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셔서 어머님이 항상 집에 아버님 드실 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 이때 자신의 아버지를 교수님 앞에서 ‘아버지’가 아닌 ‘아버님’이라고 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자녀

		혼인하지 않은 자녀	혼인한 자녀
호칭어		○○[이름]	(○○) 아비(아범), (○○) 어미(어멈), ○○[이름]
지 칭 어	가족, 친척에게	○○[이름], [그들이 부르는 대로]	(○○) 아비(아범), (○○) 어미(어멈), ○○[이름],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의 직장 사람들에게	○○ 씨, ○ (○○) 직함(님)	
	타인에게	우리 ○○[이름],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돈 쪽 사람에게		○○ 아비(아범), ○○ 어미(어멈), [그들이 부르는 대로], ○○[이름]

어느 회사 사장의 이야기이다. 직원이 자기에게 청첩을 내밀면서 오는 토요일이 선친의 고회 잔치여서 고향에 좀 다녀와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선친의?” 하고 되묻자 “예,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하고 대답을 했다. 나무랄 데 없이 성실한 사원인데 자신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선친(先親)으로 부르는 데 놀랐다.

표준 화법에서 부모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이고 어렸을 때에는 ‘아빠’, ‘엄마’로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성장 후에는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 혼인한 딸은 물론 친정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게 되어 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들딸이 자신의 부모를 말하거나 혼인한 딸이 자신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아버님’, ‘어머님’처럼 ‘-님’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존경의 예의보다 친밀감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 친정 부모, 외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님’을 붙여 쓸 수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타인에게 말할 때는 ‘선친’(先親), 돌아가신 어머니를 타인에게 말할 때에는 ‘선비’라고 한다.

기혼의 딸이 남편의 시대 쪽 사람에게 친정 부모를 가리킬 때에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또는 지역 이름을 넣어서 ‘○○동 아버지’, ‘○○동 어머니’라고 부른다. 물론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자기 아이들이 부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에게 기댄 이 말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노인들끼리 모임 기회가 종종 있다. 물론 자식들을 모두 분가시켜 놓고 한

가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행복한 노인들이다. 그런데 어느 노인들은 자신의 아들 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 박사가 굉장한 효자거든” 한다거나 “우리 김 장군이 말야, 그게 아니래.”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식을 잘 둔 사람이 부럽기도 하지만 도가 지나칠 때에는 듣기에 거북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딸 부잣집에서 자란 어느 주부는 시집에서도 친정에서 어리광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지난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감정은 아이 엄마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친정에서 모두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채린 어미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호칭이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 아주 섭섭했다.

자녀를 부르는 말은 미혼일 경우에는 이름으로 부르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가리킬 때에는 이름으로 가리켜도 좋고 가리키는 자녀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방의 경우에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 ‘누나’, ‘삼촌’, ‘고모’로 말할 수 있다. 자녀가 혼인을 하면 아들의 경우, 아이가 없을 때에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비’, ‘아범’, ‘○○ 아비’, ‘○○ 아범’으로 말하거나 이름으로 말한다. 혼인한 딸은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름으로 부르고 아이가 있을 때에는 ‘어미’, ‘어멈’, ‘○○ 어미’, ‘○○ 어멈’이라고 하거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자기 아들딸을 ‘박사’, ‘장군’으로 말할 때에는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려 써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 가운데에서 현재 평양에서는 ‘엄마’라는 말은 있으나 ‘아빠’라는 말이 쓰이지 않음을 참고로 밝힌다.

3.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시부모

호 칭 어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지 칭 어	시조부모에게	아버님(아버지), 어머님(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남편에게	아버님, 어머님
	자녀에게	할아버지(할아버님), 할머니(할머님)

며느리

호 칭 어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야
지 칭 어	며느리에게	아기, 새아기, (○○) 어미(어멈), 너
	부모에게	며늘애, (○○) 어미(어멈), ○○ 댁(처)
	배우자에게	며늘애, 새아기, (○○) 어미(어멈), ○○ (처)
	아들에게	(○○) 어미, 네 댁, 네 처
	사돈에게	며늘애, ○○ 어미, [그들이 부르는 대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대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지난봄에 결혼한 어느 새댁의 이야기이다. 며칠 전 만동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올라오셨으니 그 다음날 모여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자신의 바로 윗동서인 둘째 동서도 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약속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다 모인 가운데 즐거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 새댁은 한껏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한 마디 했다.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많이 잡수세요.”

그러자 이를 들은 큰동서가 넋지시 편잔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막내 동서는 아직도 ‘어머니’, ‘어머니’ 하면 어떻게 해. ‘어머님’이라고 해야지.”

모두들 가볍게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이 새댁은 시집 식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만 같아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다정하게 들릴 것 같아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만동서 때문에 역효과가 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봐

도 편잔을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요즈음은 시아버지에 대하여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아직도 항상 조심스럽고 대하기 어려운 어른이다. 그러므로 ‘-님’을 붙이면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여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다. 반드시 ‘아버님’이라고 해야 한다. 더구나 어린이의 말인 ‘아빠’는 써서는 안 될 말이다. 다만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머님’을 원칙으로 하되 ‘어머니’라고 ‘-님’을 붙이지 않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는 시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며느리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시조부모에게 시부모를 가리킬 때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원칙으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이는 시부모보다 시조부모가 더 웃어른이므로 ‘아비’, ‘어미’라고 해야 한다고 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도 없다. 자녀에 기대어 ‘할아버지(할아버님)’, ‘할머니(할머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댁 친척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가리킬 때에는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으로 말한다. 친정 부모나 친척에게는 ‘-시-’를 붙여 ‘시아버님(시아버지)’, ‘시어머님(시어머니)’ 또는 자녀에 기대어 ‘○○ 할아버지(할아버님)’, ‘○○ 할머니(할머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대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지난여름 큰아들을 장가들여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어느 젊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거리감 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한 끝에 며느리에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일렀다. 결혼 전부터 아들과 몇 년을 사귀면서 자기 집 드나들 듯하여 이미 한 식구처럼 가까워진 데에다 아들 형제를 두고 딸이 없었던 터여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 주리라는 마음에서였다. 처음에는 ‘엄마’ 소리를 쑥스러워하던 며느리도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다른 친구들이 ‘너희 시어머니는 신식이어서 좋겠다.’는 한 마디에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런데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오신 어느 날 손자며느리가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향하여 “엄마, 사과를 제가 깎을까요?”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

다. 이 젊은 시어머니가 호된 꾸중을 들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며느리에 대하여 호의적인 위의 예와는 반대로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 감정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장남과 3년 전 결혼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어느 주부의 말이다. 친구들과 만나면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시어머니의 기분을 알 수 있다.’고 웃곤 한다. 평상시는 ‘우리 새아기’, ‘우리 며느리’ 하다가도 무엇인가 불만이 있는 듯싶을 때에는 대놓고 부를 때에는 어김없이 ‘애야’니, ‘야’니 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남에게 말할 때에는 ‘개’니 ‘재’니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한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야’이다. 이 가운데 ‘애야’는 어조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며느리를 ‘새댁’, ‘젊은이’라고도 하는 모양이나 이는 보편성이 없다. 또 흔히 며느리를 ‘큰애야’, ‘작은애야’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자신의 친자녀를 부르는 경우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역시 표준 화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가리키는 말은 해당 며느리에게는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너’이다. 부모와 배우자에게 며느리를 이르는 말은 ‘며늘애’, ‘새아가’와 아이의 이름을 넣은 ‘(○○) 어미(어멈)’, 아들의 이름을 넣은 ‘○○댁’, ‘○○ 처’로 정하였다. ‘며느리’라고 하면 남의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나 배우자 앞에서 낮추어 말하는 편이 자연스러우므로 ‘며늘애’로 한 것이다. ‘○○댁’이라고 하면 ‘청주댁’, ‘광주댁’ 등 여인들의 친정 동네가 떠오르지만 ‘철수댁’, ‘영수댁’ 등 이름과 같이 쓰면 혼란도 없고 또 지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것이다. 며느리의 친부모인 사돈에게 며느리를 말할 때에는 ‘며늘애’, ‘○○ 어미’라고 한다.

4. 처부모와 사위 사이

처부모

호칭어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니
칭 어	장인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니
	장모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니
	아내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 장모님, 어머니
	남편에게	아버님, 어머니
	부모, 동기에게	장인(어른), ○○ 외할아버지, 장모(님), ○○ 외할머니

결혼 1년을 넘긴 김명희 씨는 남편인 이영신 씨에 대하여 불만이 많고 이 따금씩은 이 일로 다투기까지 한다. 이영신 씨는 결혼 전부터 오래 사귄 친구이고 자주 김명희 씨 집에 놀러 왔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스스럼없이 대해 주었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친정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장모’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도 어머니가 안 계시는 곳에서가 아니고 계시는 데에서 이렇게 칭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명희 씨로서는 친정 부모 면전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하고 부르는 것은 딸을 둔 자신의 부모를 홀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영신 씨의 말은 다르다. 결혼까지 했는데 옛날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점잖게 행동하려고 일부러 배워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다.

사위

호 칭 어		○ 서방, ○○ 아비(아범), 여보게
칭 어	사위에게	○ 서방, 자네
	딸에게	○ 서방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	○ 서방, ○○ 아비(아범)
	사위의 부모에게	○ 서방
	아들에게	○ 서방, 매부, 매형, 자형

김윤배 씨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사람들이 처부모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보다는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젊은 사위들을 못마땅해 한다. 따뜻함과 친근함은 혈연관계가 갖는 속성이므로 남남 사이인 이들을 피를 나누고 태를 가른 혈족처럼 혈연적 유착 관계로 이끌어 가려는 부름말, 가리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가 계시는 데에서는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 친인척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가깝게 지내려는 태도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위의 처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부모를 부를 때 친부모처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의 집 며느리가 되면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도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위가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즈음 젊은 세대들 사이에 널리 퍼진 생각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경우에 친부모처럼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 같다. 그리하여 표준 화법에서 처부모를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은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원래 이는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에게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처부모를 당사자에게 직접 부를 때에나 처가 쪽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친부모나 동기, 친척, 남에게는 ‘장인 (어른)’, ‘장모(님)’,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한다. 이때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쓸 수가 없다. 특히 친부모가 처부모보다 나이가 많을 때에는 처부모에게 ‘-님’을 빼고 ‘장인’, ‘장모’라고 부르는 것이 좋으며 친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친부모에게는 존경한다는 생각보다는 친밀감이 앞서므로 ‘-님’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친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하고 부른다면 자칫하면 친부모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다.

사위를 부르는 말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사위를 점잖게 부르는 ‘○

서방'이라는 말 대신 딸을 부르듯 '그 애', '○○야(아)' 등 비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직은 장모보다는 장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족 안에서 권력 또는 권위 구도를 보여 주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세대가 올라갈수록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전통적으로 사위에 대한 말씨가 '해라'가 아니라 '하계'였던 것을 생각할 때 자기 딸을 대하듯 반말을 한다든가, '그 애', '○○' 등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대체로 '○ 서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대체로 장모는 사위를 어려워하여 바로 부르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모가 사위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위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어렵고도 귀한 손님이 아닌 셈이다. 사위는 단순히 딸의 남편으로서 처부모에게는 자신의 자식과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양 있는 처부모는 아직도 사위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언어 현실은 대체로 사위를 '○ 서방', '여보게' 하고 부르므로 이를 사위를 부르는 표준 화법으로 정하였다. 당사자인 사위에게 이를 때에는 '○ 서방', '자네'라고 하며 해당하는 딸이나 다른 동기, 친척에게도 '○ 서방'이라고 말하면 큰 잘못은 없다. 아들이나 다른 딸에게는 '○ 서방'과 함께 그들이 부르는 대로 '매부', '형부'라고 할 수 있다. 외손자, 외손녀에게 사위를 이룰 때에는 아이들에게 기대어 '아버지', '아빠'라고 해도 좋다. 타인에게는 '사위', '○ 서방'이라고 한다.

참고로 말하면 평양에서는 장인, 장모를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라고도 하며 사위는 '싸우'라고 부른다.

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이 골고루 있는 회사원 최아무개 씨는 결혼 전까지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누나, 동생을 부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동기가 결혼하여 상황이 아주 복잡하여졌다. 형수를 부를 때에도 큰형수는 '형수님'이라고 하고, 둘째 형수는 '형수씨'라고 하며, 셋째

형수에 대해서는 그냥 ‘형수’라고 한다. 누나의 남편은 ‘자형’이고 손아래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 또는 ‘김 서방’이라고 부른다.

도봉구에 사는 이아무개 씨는 누나의 남편을 ‘매부’, ‘매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여자 형제를 한자로 표기할 때 손위가 ‘자(姉)’이고 손아래가 ‘매(妹)’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다. 그런데 누나와 여동생을 동시에 가리키는 ‘누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동생의 남편은 물론 누나의 남편까지도 ‘매부’로 부르게 된 것 같다는 것이 이 씨의 생각이다. 어쨌든 의미상으로 볼 때 손아래를 가리키는 ‘매’와 손위를 가리키는 ‘형’은 결합할 수가 없으므로 ‘매형(妹兄)’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누나의 남편은 당연히 ‘자형(姉兄)’이 되고 그 반대일 경우는 ‘매제(妹弟)’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남자 동기(남자 기준)

		형	형의 아내
호칭어		형, 형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지칭어	당사자에게	형, 형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부모에게	형	아주머니, 형수
	동기, 처가 쪽 사람에게	형, 형님	아주머니(님), 형수(님)
	자녀에게	큰아버지(님)	큰어머니(님)
	타인에게	형, 형님	형수(님)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호칭어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지칭어	부모, 동기, 타인에게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처가 쪽 사람에게	동생, 아우	제수(씨), 계수(씨)
	자녀에게	삼촌, 작은아버지(님)	작은어머니(님), 숙모(님)

먼저 남성의 처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 화법에서는 형수의 경우는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말할 때에는 ‘아주머님’, ‘형수님’이라 하고 부모에게 이를 때에는 ‘-님’을 빼고 ‘아주머니’, ‘형수’라고 한다. 그러나 첫째, 둘째의 차이에 따라 ‘-님’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는 않는다. 남동생의 아내는 직접 부를 때에는 ‘제수씨’, ‘계수씨’라 하고 부모나 동기에게는 ‘제수(씨)’, ‘계수(씨)’라고 한다. 또 표준 화법에서는 누나의 남편을 ‘매부’, ‘매형’, ‘자형’으로 두루 부르며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 ‘○ 서방’이라 한다. 이 가운데서 누나의 남편을 ‘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말도 지방에서는 물론 서울에서도 세력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형’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어느 지방에서는 누나의 남편을 ‘매형’, ‘자형’,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라고 이른다. 누나의 남편이나 여동생의 남편을 뭉뚱그려 ‘매부’로 부르는 것보다는 위아래를 가려 부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표준 화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매제’라는 말은 ‘매형’과 상대가 되는 말이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표준 화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이제 여성의 처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오빠의 아내는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이를 때에는 ‘언니’, ‘새언니’라고 하고 부모나 동기에게는 ‘언니’, ‘새언니’ 외에 ‘올케’라고도 한다. 시댁 쪽 사람이나 남에게는 ‘새언니’, ‘올케’라고 한다.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로 부르고 가리킨다. 언니의 남편을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가리킬 때에는 ‘형부’라고 하고 친정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형부’, 특히 남자 형제에게 말할 때에는 ‘매부’라고 한다. 여동생의 남편을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 서방님’, 나이가 적으면 ‘○ 서방’이라고 한다. 또 부모에게 이를 때에는 ‘○ 서방’, 동기에게 이를 때에는 ‘○ 서방’ 또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부’, ‘매부’라고 한다. 참고로 덧붙이면 지금 평양에서는 ‘매형’, ‘자형’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매부’만이 쓰인다. 또 평양에서는 언니의 남편은 ‘형부’가 아닌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길을 묻기 위해 ‘아저씨’ 하고 불러 세우면 “체네(평양에서는 처녀를 이렇게 부름)가 언제 나한테 언니 줬어?” 하고 농을 걸어 온다는 것이다. 남쪽으로 귀순한 어느 처녀(아가씨)의 이야기이다.

(2) 여자 동기(남자 기준)

		누나	누나의 남편
호칭어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지 칭 어	부모에게	누나	매부, 매형, 자형
	동기 및 처가 쪽 사람, 타인에게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호칭어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지 칭 어	부모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동기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형부
	처가 쪽 사람에게	누이동생	매부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타인에게	누이동생	매부, ○ 서방

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결혼 3년째인 주부 이 씨는 결혼 전부터 알던 남편의 남동생에게는 ‘○○ 씨’라고 부담 없이 이름을 부르지만 나이가 한참 어린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아가씨’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시부모 앞에서는 더 심각해진다. ‘○○ 씨’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그 ‘○○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제 ‘○○ 씨’의 신부 호칭까지 새로운 걱정거리이다.

(1) 남편의 아우

호칭어		미혼자	도련님
		기혼자	서방님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미혼자	도련님
		기혼자	서방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동생, ○○ 작은아버지, ○○ 삼촌
	자녀에게	미혼자	삼촌
		기혼자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타인에게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 작은아버지, ○○ 삼촌

(2) 시누이 남편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
호칭어		아주버님, 서방님	서방님
지 칭 어	자녀에게	고모부(님)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	(지역 이름) 아주버님,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

42세의 주부 박 씨는 나이 어린 윗동서와의 호칭 문제가 늘 마음에 걸린다. 윗동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적다. 그 동안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존댓말로 형님 대접을 했고, 윗동서는 ‘자네’라는 명칭과 함께 ‘하계’를 한다. 그 간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참았으나 이제 나이 40이 넘으니 대우를 받고 싶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예순 세 번째 생신날이어서 친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주부인 김 씨는 음식 준비에 정신없이 바빴으나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방을 차지하고 왈자지껄 시끄러웠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으로부터 집으로 급히 오다 접촉 사고를 내었으니 지금 곧 골목길 입구의 제과점으로 10만원만 가져다 달라는 전화가 왔다. 김 씨는 평소에 미혼의 시동생을 ‘도련님’으로 불러 왔었는데 이 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이 미워져서 ‘삼촌’이 10만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

렸다. 그 사이 남편은 자신의 삼촌의 일로 알고 10만원을 가지고 시숙모님과 함께 제과점으로 나갔다.

같은 날 같은 집이라고 가정하자. 김 씨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저…… XX 아빠니다.” 이번에는 손위 시누이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다. 시누이 남편과 통화를 해 본 적이 없는 김 씨는 당황해서 얼른 “○○ 엄만데요…… 형님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때 예의 그 시동생이 “어느 형님 찾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아니 아주버님이나 ○○ 아빠 말구요…… 고모 말이에요.” 하였다. 조금 후에 “이 녀석아, 날 찾는 전화가 아니잖냐. 네 매형이 누날 바꾸라지 않아.” 하는 시고모의 투덜거림에 이어 “형수님이 그랬는데요. 고모 전화라고요.”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우선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버님’으로 정해졌다. 남편의 형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달리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혼인에 관계없이 ‘아주버님’으로 부르는 전통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친정 쪽 사람에게 남편의 형을 이룰 때에는 ‘시아주버니’와 자녀에게 기댄 표현인 ‘○○ 큰아버지’를 쓴다.

남편의 아우, 즉 시동생이 미혼일 때에는 ‘도련님’을 호칭어로 한다. 자녀에 기댄 명칭인 ‘삼촌’은 쓰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아우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서방님’으로 부른다.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아우를 가리킬 때에도 미혼자는 ‘도련님’, 기혼자는 ‘서방님’이다. 전통적인 말이어서 특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남편의 누나에 대한 부름말은 ‘형님’이다. 남편의 누이동생에 대한 호칭어는 ‘아가씨’, ‘아기씨’이다. 남편의 누이동생이 혼인을 하여도 부르는 말에는 변함이 없다. 말하자면 40살 된 손아래 시누이도 ‘아가씨’로 부른다는 것이다. 시누이를 아이들에게 기대어 ‘고모’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아가씨’가 남의 처녀를 부르는 말이어서 가족을 부르는 말로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써 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어서 채택된 것이다.

남편 형의 아내는 ‘형님’이 바른 부름말이다. 전통적으로 동서끼리는 남편

의 나이 순서에 따라 차례가 정해져서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으로 부르고 존댓말을 써 왔다. 윗동서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대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편 아우의 아내는 ‘동서’로 부른다. 물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을 때에는 ‘동서’라고 이르고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전통적 예법에 맞다.

부르는 말과 가리키는 말을 정하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시누이 남편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제로 전문가들이 만나 두 번이나 회의를 하였으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다가 세 번째에서야 겨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부름말은 ‘아주버님’과 ‘서방님’을 표준으로 정했다. ‘아주버님’은 현재 여러 지방에서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고 ‘서방님’도 서울 지방에서 ‘○○동 서방님’, ‘○○동 서방님’ 등으로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서방님’이다. ‘아주버님’은 손위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이고 ‘서방님’은 손위,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게 두루 쓰이는 말이라는 의견들을 존중한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지금 평양에서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아기씨’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아이들에 기대어 ‘삼촌’, ‘작은아버지’, ‘고모’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말들이 낡은 시대의 잘못된 관습이거나 자본주의 사회의 그릇된 말이라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7.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결혼 5년째인 김만용 씨는 아내보다 7살 위이고 아내의 오빠, 말하자면 손위 처남인 이범혁 씨보다는 4살 위이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후에 처가에 들렀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이범혁 씨’라고 불렀는데 옆에 있던 장인어른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형님’으로 부르도록 엄명(?)을 내렸다. 김만용 씨는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그 후 손위 처남을 줄곧 형님으로 불러 왔다.

(1) 아내의 남자 동기

		아내의 오빠	아내의 남동생
호칭어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지 칭 어	당사자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자네
	아내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남, ○○ 외삼촌	처남, ○○ 외삼촌
	장인, 장모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당 사 자 의	손위 동기, 그 배우자	형님, 처남[연하]
		손아래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삼촌, 외숙부(님)

(2) 아내의 여자 동기

		아내의 언니	아내의 여동생
호칭어		처형	처제
지 칭 어	당사자에게	처형	처제
	아내에게	처형	처제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형, ○○ 이모	처제, ○○ 이모
	장인, 장모에게	처형	처제
	당 사 자 의	손위 동기, 그 배우자	처형
		손아래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이모(님)	이모

그러던 어느 날 김만용 씨와 이범혁 씨가 동석한 자리에 김만용 씨의 두 살 아래인 남동생이 합석을 하게 되었다. 김만용 씨 동생과 이범혁 씨가 첫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김만용 씨의 동생이 자신의 고등

학교 선배임을 이범혁 씨가 알아차렸다.

“저, 혹시 대한고등학교 출신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 너……”

“네, 이범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너를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그들은 크게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 ‘처남’으로 정하였다. 옛날부터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처남’이었고 처가 쪽의 차례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로 아래위가 정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차례에 따라 부르는 말이 정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지나친 남성 중심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처남과 매부 사이가 매우 가까워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여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 부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손위 처남이라도 나이가 적을 때에는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내의 남동생은 전통을 따라 ‘처남’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 본인에게 가리킬 때에는 ‘처남’ 또는 ‘자네’라고 한다.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처형’으로 정하였다. 부모, 동기, 타인에게 말할 때에는 ‘처형’, ‘○○ 이모’를 쓰고 자녀에게는 ‘이모(님)’를, 아내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처형’이라고 한다. 아내의 여동생을 부를 때에나 아내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처제’라고 하고 부모, 동기, 남에게 말할 때에는 ‘처제’ 또는 ‘○○ 이모’라고 한다. 처형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님’, ‘동서’로 결정하였다. 아내 오빠의 경우와 한가지로 손위 동서에게도 ‘동서’라고 해야지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역시 현실을 존중해서 ‘형님’이라고 하되, 나이가 적으면 ‘동서’라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부’, ‘매부’ 등을 적절히 쓸 수 있다. 아내의 여동생 곧 처제의 남편은 전통적으로 불러 오는 바대로 ‘동서’ 또는 ‘○

서방'을 부르는 말로 결정하였다. 가리키는 말은 손위 동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가 쪽 사람들에게는 '동서' 또는 '○ 서방'으로 정하였다.

손위 처남의 아내는 '아주머니', 손아래 처남의 아내는 '처남의 댁'이라고 부른다. '아주머니'가 숙모를 가리키고 또 남에게도 '아주머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처남의 댁' 역시 '청주댁', '안성댁' 등에서 보는 것처럼 낮추어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손위 처남의 아내를 직접 부르지 않고 가리킬 때에는 손아래의 경우처럼 '처남의 댁'이라고 한다. 또 손아래위를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숙모(님)'라 하고 부모, 동기, 남들에게는 '처남의 댁', '○○ 외숙모'라고 이른다.

8. 숙질 사이

부부 교사로서 결혼한 지 5년 된 이영란 씨는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결혼 후 전혀 엉뚱한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다. 시아버지의 오 형제 가운데 밑으로 삼 형제가 남편과 나이가 같거나 두세 살씩 밑인데 예우에서 작은아버지들은 예외 없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남편보다 네다섯 살씩 적은 작은어머니들은 남편에게 거리낌 없이 반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결혼 날을 잡은 막내 삼촌이 오늘은 호텔 커피숍에서 신부 측 가족들과 만나는 날이다. 그런데 신부감은 스물네 살이라고 하니 자신보다 아홉 살이 적은 작은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일이 끔찍할 수밖에 없었다.

영란 씨가 남편과 함께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앉자 그 때까지 다 소꿉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맞은편의 신부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머. 선생님. 선생님, 이영란 선생님이시죠? 저 모르시겠어요? 나미예요. 김나미!”

아찔한 현기를 느끼며 영란 씨는 눈을 감아 버렸다. 자신의 교사 초년 시절에 담임을 했던 중학교 제자가 지엄하신 작은어머니로 다가와 눈앞을 깜

깜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조카와 그 배우자

		남자 조카		조카의 아내	여자 조카	조카의 남편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미성년:○○[이름] 성년: 조카, ○○ 아버지, ○○ 아범, 조카님[시가 쪽의 나이 많은 조카]		아가, 새아가, ○○ 어머니, ○○ 어멈, 질부(姪婦), 생질부(甥姪婦)	미성년:○○[이름] 성년: 조카, ○○ 어머니, ○○ 어멈, 조카님[시가 쪽의 나이 많은 조카]	○ 서방, ○○ 아버지, ○○ 아범
지칭어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친조카를	조카	조카며느리, 질부(姪婦)	조카딸, 질녀(姪女)	조카사위, 질서(姪婿)
		누이의 자녀를	생질 (甥姪)	생질부 (甥姪婦)	생질녀 (甥姪女)	생질서 (甥姪婿)

회사원 이수호 씨는 조카를 보낼 테니까 책을 몇 권 챙겨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친구에게서 받았다. 조카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 정도면 심부름을 잘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런데 씩씩한 대학생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꽃 같은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조카가 아니고 질녀로구나 생각하고 친구의 성이 박씨니까 박씨겠거니 했는데 그것이 아니란다. 결국 알고 보니 누이의 딸, 말하자면 생질녀였던 것이다. 수호 씨는 전화로 그 친구를 나무랄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아, 누나의 딸을 왜 조카라고 해서 헛갈리게 하나?”

친구도 한 마디 했다.

“번거로운 세상 더 번거롭게 만드네.”

아버지의 형은 말로 할 때에는 모두 ‘큰아버지’이며 ‘-님’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편지에서는 ‘-님’을 붙일 수 있다. 조카며느리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하듯이 ‘-님’을 붙인다. 아버지의 말형의 경우는 특히 ‘백부’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부르는 말로는 마땅하지 않고 남에게 가리킬 때

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의 형을 자녀에게 기대어 말할 때에는 ‘큰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님)’, ‘종조부(님)’ 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동 큰할아버지(님)’ 등으로 부르거나 가리킨다.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친정 큰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의 형이 되므로 ‘큰외할아버지’, ‘외종조할아버지(님)’, ‘외종조부(님)’, ‘○○동 큰외할아버지(님)’ 등으로 한다. 큰아버지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자녀가 말하는 사람보다 어린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아빠) 계시냐?’로 말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아버지 계십니까?’로 한다. 큰어머니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에 맞추어 말하면 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 ‘아저씨’이고 결혼을 하면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항렬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다섯 살이 안 되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에 대하여는 경어를 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만조카인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른 조카들보다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언어 예절이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무거운 책임을 가졌으므로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어는 ‘고모’, ‘아주머니’이다. 고모를 자신의 자녀에게 말할 때에는 ‘대고모’, ‘왕고모’, ‘고모할머니’라고 한다. 어머니의 여자 동기를 부르는 말은 ‘이모’, ‘아주머니’인데 자신의 자녀에게 말할 때에는 ‘이모할머니’라고 한다.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는 고모, 이모 대신 지역 이름을 넣어 ‘○○동 할머니’, ‘○○동 할머니’처럼 쓸 수 있다. 고모부, 이모부는 자녀에 기대어 말할 때에 고모, 이모에 맞추어 ‘고모할아버지’, ‘이모할아버지’, ‘○○동 할아버지’, ‘○○동 할아버지’라고 한다.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고모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말이 없다. 이때에는 지역 이름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남동생은 ‘외삼촌’, ‘아저씨’이고 그 아내는 ‘외숙모’, ‘아주머니’이다.

시댁 쪽의 나이 많은 남자 조카나 여자 조카는 ‘-님’을 붙여 ‘조카님’이라

한다. 친조카는 ‘조카’ 또는 ‘조카딸’이라 하고 조카며느리는 ‘조카며느리’ 또는 ‘질부(姪婦)’라 하며 조카사위는 ‘조카사위’ 또는 ‘질서(姪婿)’라 한다. 누이의 자녀는 부를 때에는 친조카의 경우와 같으나 가리킬 때에는 ‘생질(甥姪)’, ‘생질녀(甥姪女)’, 그 배우자는 ‘생질부’, ‘생질서’라 한다. 처의 조카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부르고 남에게 가리킬 때에는 앞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 ‘처조카사위’ 등으로 말한다.

9. 사돈 사이

(1) 위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형수, 율케 등)의 부모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사장 어른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장 어른, [관계말]

우이동에 사는 조미숙 씨는 며칠 후에 며느리를 본다고 한다.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사돈 사이라는데 마땅한 호칭어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 며느리 될 애의 어머니에게는 ‘사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는다. 또, 며느리의 형제들에게는 며느리에 빗대어 “큰언니 수고하십니다.”, “시누이 결혼 준비에 큰올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말하지만 개운하지가 않은 것이다.

(2) 아래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 및 조카,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조카	
호칭어 및 사자에게 지칭	남자	여자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관계말]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관계말]

잠실에 사는 문채옥 씨는 사위의 부모가 안 계시다. 사위의 누님이 있는데 그이는 자신에게 ‘사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맞는가? 그럼 그 자신은 사위의 누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상계동에 사는 윤정태 씨는 며느리를 보았다. 며느리의 남동생을 ‘사제’, ‘사돈총각’, ‘여보게’ 중 어느 것으로 호칭하는 게 좋은가. 딸의 시누이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 또, 딸의 시할아버지도 ‘사돈어른’으로 부르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대학생인 이상규 씨는 누나의 시고모 댁에서 중학생을 가르친다. 누나의 시고모를 누나처럼 ‘고모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주머님’ 하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댁에서는 누나처럼 ‘고모님’ 하고 부를 때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첫째, 같은 항렬의 사돈 사이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 지칭하는 말 가운데에 발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사돈’으로 정했다. 상대방이 나이가 위일 때에는 ‘사돈어른’, 아래일 때에는 ‘사돈’으로 부르도록 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이다. 발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으로 정했다. 안사돈이 나이가 적어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으로 한 것이다. 안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 ‘사돈’으로 정했다. 나이가 아래이고 친밀한 사이이면 ‘사돈’, 나이가 위이면 ‘사부인’으로 부르도록 한 것이다. 안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으로 정했다. 나이 차이가 많거나 친밀한 경우에는 ‘발사돈’을 쓸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삼촌 항렬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

도 부모의 호칭어와 같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동기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는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남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이고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이다. 이들 같은 항렬의 사람인 당사자에 대한 지칭어는 대체로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함께 경우에 따라 제삼자에 기댄 표현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위 항렬의 경우이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는 부르는 사람과 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 어른’을 호칭어로 정했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사장 어른’을 택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안 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인 ‘사장 어른’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장 어른’과 ‘○○ 시(처)조부모’와 같은 관계말을 쓴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 어른’으로 부르도록 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장 어른’,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조카의 이름에 기댄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와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했다.

셋째, 아래 항렬의 경우이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조카,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조카와 같이 아래 항렬은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 호칭어와 지칭어가 달라진다. 아래 항렬의 남자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으로 적절히 부르도록 했다. 상대방의 항렬이 낮더라도 나이가 더 많거나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 (외, 고종, 이종) 사촌 형’ 등과 같은 관계말을 적절히 쓰도록 했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로 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도록 한 것이다. 지칭어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 (외, 고종, 이종) 사촌 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했다.

우리말처럼 호칭어와 지칭어가 발달한 말도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양하게 발달한 호칭어와 지칭어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가문에 따라 다르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전에는 기성세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를 엄격히 교육하였고 자녀들은 가정뿐 아니라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예전의 그 엄격히 지켜지던 호칭어, 지칭어를 아는 이가 드물다. 또, 젊은이들은 이들을 배운 일이 없다. 새로운 세대들의 언어 예절이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대체로 신세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생활에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흔히 잘못 쓰는 말들

여 규 병(동아일보 어문연구팀장)

1. 뜻이 헛갈리는 말들

㉡ ‘초토’가 잘못 쓰인 것은?

- (1) 2005년 4월 발생한 산불로 낙산사가 불타는 등 강원도 양양군 일대가 초토화되었다.
- (2)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초토화되었다.
- (3)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초토화하였다.

☞ ‘초(焦)’는 ‘그을릴 초’이다. 따라서 ‘초토(焦土)’는 ‘그을린 땅’이라는 뜻이다. 불이 나서 땅이 그을린 상태이거나 불 때문에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초토’이다. 뉴올리언스처럼 비와 물과 바람으로 엉망진창이 된 곳을 ‘초토’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초토’는 산불이 난 양양 지역이나 폭격 맞은 바그다드를 표현할 때에 적절한 말이다. 허리케인으로 물에 잠긴 뉴올리언스나 2004년 12월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피해를 본 남아시아처럼 불이 아닌 비바람 해일 같은 자연현상으로 ‘매우 어지럽고 못 쓰게 된 모양’은 ‘쑥대밭’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 ‘버금가다’가 적절하게 쓰인 것은?

- (1) (인천을) 중국 푸둥 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2004년 8월 건설교통부 ‘신수도권 및 혁신도시 발전방안’)
- (2) 아르빌은 이라크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립국가에 버금

가는 자치를 누려 왔다.

(3)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졌다.

☞ ‘가장 뛰어난 것, 첫째가는 것’을 ‘ 으뜸’이라고 하며, ‘ 으뜸의 바로 아래’를 버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으뜸은 첫째이며, 버금은 둘째이다. 버금이 홀로 쓰일 때는 잘못 쓰이는 경우가 드문데 ‘버금가다’라는 형태로 쓰이면 ‘둘째가다’라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동등(同等)’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1)에서는 한국 공무원이 수도권 발전 방안을 세우면서 ‘중국의 푸둥에 둘째가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능가하는’이나 ‘필적하는’을 써야 한다. (2)에서도 ‘둘째가는’이라는 의미의 ‘버금가다’보다는 ‘비슷한’ ‘맞먹는’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낫다.

㉠ ‘갑부’가 바르게 쓰인 것은?

- (1)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세계의 갑부다.
- (2)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세계 갑부의 대열에 합류했다.
- (3) 이건희, 신격호 회장 세계 갑부 순위 후퇴.

☞ ‘갑부(甲富)’란 ‘첫째가는 부자’이다. ‘갑부’의 ‘갑’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식으로 사물의 순서를 매길 때 쓰는 ‘첫째’를 이르는 말이다. 첫째가는 부자가 여러 명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2) ‘갑부의 대열’, (3) ‘갑부 순위’라는 말은 옳지 않다. ‘부자(부호) 대열’, ‘부자 순위’라고 하면 된다. 다만, 범위를 좁혀 ‘한국의 갑부’, ‘부산 갑부’처럼 할 수 있다.

㉠ ‘자문’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그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 (2) 시장은 그 일에 정통한 담당자에게 자문했다.
- (3)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그 일에 관해 자세히 자문했다.
- (4) 그 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했다.

☞ ‘자문(諮問)’은 국어사전에서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

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낱말이다. 특히 '자(諮)'는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문의함'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이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1)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다'라고 하면 '질문해 달라고 하다'와 마찬가지로 뜻이 되고 만다. 이때 '문의하다', '도움을 구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3)에서는 아랫사람인 수석비서관이 윗사람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는 없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물음에 대응하는 경우라면 '자문에 응하다', '조언하다', '물음에 답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4)도 '물음을 받아'라는 뜻이 되므로 옳지 않다. 이 역시 '조언을 듣다', '도움을 받다'라고 하면 된다.

다만, 어떤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속해 있으면서 그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밝히거나 조언을 하는 기구나 변호사 등은 '자문 기구', '자문 변호사'처럼 쓸 수 있다.

㉡ '아는 척하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도 아는 척한다.
- (2) 그가 나를 보더니 아는 척했다.
- (3)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

㉡ '아는 척하다'는 '모르는 것을 아는 듯이 거짓으로 꾸미다'의 뜻이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듯한 표정을 하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라는 뜻으로는 '알은척하다'를 써야 한다. 따라서 (2)는 '그가 나를 보더니 알은척했다'라고 해야 한다. ㉠은 '그가 나를 알은척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알은척도 안 한다. 친구에게 알은척하지도 않고 돌아누웠다. 다음에 만나 봐라, 알은척이나 하나'처럼, ㉢은 '내 처지를 알은척하는 표정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위 현장을 보고 알은척했다. 남의 일에 함부로 알은척하지 마라'처럼 쓰인다.

'아는 척하다'와 '알은척하다'의 '척'은 '체'로 바뀌 '아는 체하다', '알은체하

다’로 할 수 있다. 다만, ‘아는 척하다’는 구(句)이므로 띄어 쓰지만 ‘알은척하다’는 한 낱말이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㉞ ‘회복’이 잘못 쓰인 것은?

- (1) 그가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2) 피로 회복을 위해 ‘박카스’를 마신다.
- (3)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 ‘회복(回復)’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이다. ‘건강 회복’은 ‘건강을 되찾음’을, ‘신뢰 회복’은 ‘신뢰를 다시 쌓음’을 뜻한다. 따라서 ‘피로 회복’이라고 하면 ‘피로한 상태로 돌이킴’이라는 뜻이 되고 만다. (2)는 ‘원기 회복’으로 하거나 ‘피로 해소’라고 해야 이치에 맞게 된다.

㉞ ‘배’가 잘못 쓰인 것은?

- (1) 두께는 두 배로 늘어나고, 면적은 두 배로 줄어든다.
- (2) 속도가 5배 빨라졌다.
- (3) 물가가 10년 전보다 두 배 늘어났다.

☞ ‘배(倍)’는 ‘갑절 또는 곱절,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곱하기’이다. 이 ‘배’는 ‘들다, 늘다, 오르다, 빠르다’ 같은 말과 어울려 쓰이지만 ‘줄다, 내리다, 느리다’ 같은 말과는 어울리지 못한다. ‘줄다’와 같은 말에는 ‘2분의 1로 줄었다, 10% 줄었다’처럼 ‘분수’나 ‘%’ 따위를 함께 쓰면 된다.

㉞ ‘-산(産)’이 잘못 쓰인 것은?

- (1) 국내산
- (2) 수입산
- (3) 미국산
- (4) 통영산

☞ ‘-산’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거기에서 산출된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한국산, 미국산, 멕시코산, 외국산, 제주산’처럼 쓴다. (2)의 ‘수입’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산’을 붙일 수 없다.

2. 혼동하기 쉬운 말들

㉠ ‘붙이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메모지를 벽에 덕지덕지 붙여 놓았다.
- (2) 중환자에게 간호사를 붙여 주었다.
- (3)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 ㉠붙이다: 포스터를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찬장을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집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싸움을 붙이다. 경호원을 붙이다. 단서를 붙이다. 습관을 붙이다. 이름을 붙이다. 한 대 올려붙이다.

㉡부치다: 일이 힘에 부치다. 부채로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책을 소포로 부치다. 남의 논을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저냐를 부치다. 토의에 부치다. 원고를 인쇄에 부치다. 당숙 댁에 몸을 부치고 있다.

㉢ ‘빌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학생은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용서를 빌었다.
- (2) 조문객들은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3) 한자의 뜻(새김)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기도 했다.(시정곤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 ‘빌다’는 호소하거나, 간청하거나,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께 빌다’, ‘용서를 빌다’, ‘동냥을 빌다’처럼 쓰인다. (3)은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라는 뜻이 있는 말 ‘빌리다’를 써야 한다.

㉣ ‘당기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공사 기간을 당겨 예정보다 일찍 끝냈다.
- (2) 그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당겼다.
- (3) 지천으로 있는 집의 음식보다는 역시 남의 집 음식이 당기는 것이었다.
- (4) 한참을 웃었더니 수술한 자리가 당겼다.

☞ ‘당기다’는 ‘마음이 끌리다’, ‘입맛이 돋우어지다’, ‘물건 따위를 가까이 오게 하다’, ‘시간을 앞당기거나 줄이다’라는 뜻이다. (4)처럼 피부 따위가 팽팽해진다는 뜻으로는 ‘땡기다’를 써야 한다. ‘불이 옮겨 붙거나 그렇게 하다’를 나타내는 말은 ‘땡기다’이다. ‘바싹 마른 나무가 불이 잘 땡긴다’, ‘담배에 불을 땡겼다’처럼 쓴다.

㉠ ‘새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고개 드니 날 샀네.(서울 4·19국립묘지 사거리 근처 PC방 이름)
- (2) 여기서 우리 밤 셀까?(“ ·현재는 폐업)
- (3) 그날 밤이 새도록 그는 흥분이 되어서 자기의 과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였습니다.(김동인, 광염 소나타)

☞ ‘새다’는 ‘날이 밝아 오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다. ‘날이 새다’, ‘밤이 새다’처럼 쓰인다. (2)에서처럼 목적어 ‘밤(을)’이 있으면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라는 뜻의 타동사 ‘새우다’를 써야 한다.

㉠ ‘발자국’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그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 (2) 범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 (3) 백범의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 그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

☞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이다. (1)처럼 소리가 나는 것은 ‘발소리’라고 한다. 흔적이나 (3)에서와 같이 지나온 과거의 역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발자취’다.

㉠ ‘산자락’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눈에 보이는 산자락의 뿌리는 모두 백두대간에 닿아 있다.
- (2) 마을을 감싼 산자락을 오르기 시작했다.
- (3) 멀찍이 산자락에 싸여 초가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유재용, 성역)

☞ ‘산자락’은 ‘밋밋하게 비탈져 나간 산의 밑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1)은 ‘산’ 또는 ‘산봉우리’라고 해야 하며, (2)는 ‘산비탈’이라고 해야 한다.

㉮ ‘틀리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너와 나는 생각이 틀리다.
- (2) 아무리 좋은 기사가 실린 신문이라도 교정이 틀려 있다면 틀린 신문입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 (3)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

☞ ‘틀리다’는 (2)처럼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케 되거나 어긋나다’, 또는 (3)처럼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1)처럼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함’을 뜻할 때는 ‘다르다’를 써야 한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음’을 뜻할 때에도 ‘고장 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는 역시 달라’처럼 ‘다르다’를 쓴다.

3. 뜻을 바로 알고 써야 할 말들

3.1. 태아(胎兒)-태어나다

‘태아’는 ‘포유류의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체(幼體)’이다. 이 ‘태아’를 모든 동물이 세상에 나오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7월 30일치 신문들은 대부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룡 태아 화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공룡은 ‘알’로 번식하는 파충류다. 따라서 ‘태아’가 될 수 없다. ‘태아 화석’은 ‘알 화석’이라고 해야 한다. 이 말만으로 부족하다면 ‘부화 직전의 알 화석’이라고 하면 된다.

‘태어나다’도 ‘사람이나 동물이 형태를 갖추어 어미의 태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므로 알로 번식하는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은 태어날 수 없다. 그러나 2005년 8월 26일치 신문도 대부분 한 동물원에서 홍학 새끼가 ‘태어났다’라고 잘못 보도했다.

알로 번식하는 난생 동물은 알을 낳아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품어 주기도 하는데 이를 ‘까다’라고 한다. 난생 동물 가운데 벌레나 물고기가 알을 낳는 것을 특별히 ‘슬다’라고 하기도 한다. 또 파리의 알은 ‘쉬’라고 해서 파리가 알을 낳는 것은 ‘쉬를 슬다’라고 한다.

3.2. 선영(先塋)

신문 등에 실린 부고(訃告)를 살펴보면 그 마지막에 ‘장지(葬地)는 ○○○ 선영(先塋)’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塋’은 ‘무덤 영’이므로 ‘선영’은 ‘조상의 무덤’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장지’가 ‘조상의 무덤’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때는 ‘선영’이 아닌 ‘선산(先山)’이라고 하거나 ‘선영하(先塋下)’라고 해야 한다. ‘선산’은 ‘선영’과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 하나 더 있는 말이다.

3.3. 선친(先親)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인답시고 ‘선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바른 말이 아니다. ‘선친’은 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친의 고집은 닮았지만, 결단력은 닮지 않은 것 같다.”처럼 쓰는 말이지 제3자가 “그 사람의 선친은 훌륭한 분이셨다.”처럼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한자어로는 ‘선대인(先大人), 선고장(先考丈)’ 등이 있다.

3.4. 여부(與否)

흔히 ‘생사 여부’, ‘존폐 여부’, ‘진위 여부’, ‘성패 여부’처럼 쓴다. ‘여부’는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생사, 존폐, 성패, 진위’ 등은 이미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여부’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

다. 굳이 ‘여부’를 쓰려면 ‘생존/사망 여부’, ‘존재/폐지 여부’, ‘성공/실패 여부’, ‘진실/허위 여부’라고 해야 한다.

3.5. 탄신(誕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부처와 예수 두 성인(聖人)이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수가 태어난 날인 12월 25일은 1949년 이 영이 제정될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의 명칭은 ‘기독탄생일’이다. 1975년 부처의 탄생일을 공휴일에 넣을 때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때 ‘기독탄생일’도 ‘기독탄신일’로 수정하였다.

‘탄신’은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로서 ‘신(辰)’은 ‘날[日]’을 나타낸다. ‘탄신일’이라고 하면 ‘일’은 사족에 지나지 않는다. ‘생일(生日)’의 높임말은 ‘생신(生辰)’, ‘탄일(誕日)’, ‘탄생일(誕生日)’이다. 대통령령의 두 성인 ‘탄신일’은 ‘탄신’이나 ‘탄생일’, 또는 관련 종교계에서 쓰는 말로 고쳐야 마땅하다.

3.6. 미망인(未亡人)

흔히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잘못이다. ‘미망인’은 ‘춘추좌씨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했다’는 뜻으로 여성이 스스로 낮추어 이르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 같은 뜻으로 남편을 여윈 사람을 부르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큰 실례가 될 일이다. 그냥 ‘부인’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3.7. 장본인(張本人)

‘장본인’은 ‘어떤 일을 피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일컬을 때 쓰인다. 다만 이 말이 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일부에서는 이 말을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듣게 될 당사자가 부정적인 뜻으로 느낀다면 큰 실례가 될 테니 조심할 일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민주화를 이끈 주인공(주역)’처럼 구분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3.8. 절체절명(絶體絶命)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절체절명’이다. 몸이 잘라지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라는 뜻으로 절박한 상황을 과장해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흔히 ‘절대절명(絶對絶命)’으로 잘못 쓰곤 한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연상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듯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이 쓰인다.

4. 일본어의 영향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어 찌꺼기가 우리의 말글살이를 흐려 놓고 있다. 찌꺼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본어 또는 일본어식 조어가 마구잡이로 우리 생활에 흘러들고 있다.

4.1. 입장(立場)

‘입장’은 수많은 우리말을 죽이는 낱말이다. 일본어 ‘立場(たちば)’은 우리말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 뜻이 엄청나게 확대된 대표적인 낱말이다. 이 말은 ‘처지(處地)’로 순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 뜻이 ‘처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입장’이 쓰인 문장을 살펴보면 ‘입장’은 그 쓰임새에 따라 ‘처지, 위치, 형편, 상황, 자리, 직책, 방침, 태도, 자세, 견해, 의견, 주장, 판단, 해명, 생각, 체면, 시각, 관점, 인식, 원칙, 뜻, 심정, 동향, 노선, 의지, 결심’ 같은 말 가운데 하나로 바뀌 주면 뜻이 더 확실해진다. 아예 ‘입장’을 없애 버려야 뜻이 더 분명해지기도 한다.

심지어 ‘입장 난처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처하다’라는 말이 ‘처지가 곤란하다’라는 뜻이니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야 할지 정말 난처해지고 만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다.(⇨방침, 태도)

○신문사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 전문가의 기고를 모두 실었다.(⇨

- 주장, 또는 삭제·양측을 대변하는)
- 익삼 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통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처지, 또는 삭제·익삼 씨로서는)
 -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얼넘기게 되면 내 입장이 난처해진다.(⇨삭제·내가 난처해진다.)
 - 비록 그들에게 밥을 구걸하는 입장이지만, 그들이 자기를 걸인이 아닌 당당한 신사로 대해 주기를 희망했다.(⇨형편, 처지)
 - 난 문학을 할 작정ियो.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문학을 할 작정ियो.(⇨자세, 또는 삭제·불편부당한 문학을)
 - 저희들은 대원위 합하께오서 왜국의 유혹에 동요하시고 그동안 견지해 오시던 자주적인 입장을 버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생각, 태도, 정책)
 -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관점, 시각, 또는 삭제·자주적으로 재정리하려는)
 - 다만 지금의 이 결론이, 단지 수양 자기의 억측이라든가 한명회의 보고가 허보라든가 하여야 안평의 입장이 서게 될 터인데...(⇨체면)
 -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정적에 대한 적개심, 자신의 결백함과 친척에 대한 그리움을 조부의 입장에서 읊었다.(⇨처지, 심정)

4.2. 현해탄(玄海灘)

‘현해탄’은 일본어 ‘젠카이나다(玄海灘)’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본어이다. ‘대한해협’의 남쪽, 일본 후쿠오카 서북쪽에 있는 바다’를 일본인들은 ‘젠카이나다’라고 부른다. 즉 ‘대한해협’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후쿠오카 앞바다를 일컬어 ‘젠카이나다’라고 하는데 이 ‘젠카이나다’를 마치 ‘대한해협’을 운치 있게 부르는 말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이 아주 많다.

대부분 ‘현해탄을 건너다’ ‘현해탄을 오가다’ ‘현해탄을 넘다’ 같은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을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뱃놀이했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면 이치에 맞겠지만 ‘일본으로 가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다’라는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일이다.

현해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 셈이다. 각종 지도에도 ‘Korea Strait’라고 되어 있다. ‘현해탄’은 ‘대한해협’이라 해야 마땅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쓰시마 섬 동쪽의 일본 쪽 해협 역시 ‘대한해협’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쓰시마 섬을 중심으로 일본 쪽은 대한해협 ‘동수도(eastern channel)’이며 대한민국 쪽은 ‘서수도(western channel)’가 된다. 이 ‘대한해협 동수도’를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야 굳이 쓰시마 해협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4.3. 잔고(殘高) 판매고(販賣高)...

‘잔고, 생산고, 수출고, 판매고...’와 같은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고(高)’가 일본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고’는 금액이나 양(量)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고’는 ‘-액, -금, -량’으로 바뀌서 표현해야 한다.

‘잔고’는 ‘잔금, 잔액, 나머지’로, ‘생산고’는 액수를 뜻할 때는 ‘생산액’으로, 규모를 말할 때는 ‘생산량’으로 하면 된다. 다른 예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금액이나 양을 나타내는 말에 ‘고’가 쓰였다면 이는 모두 일본식 조어이므로 ‘-액, -량’ 등으로 바꿔 주어야 옳다.

4.4. 수입선(輸入先) 거래선(去來先)

‘수입선, 거래선’ 같은 말도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선(先)’ 역시 일본어에서 온 것이다. 이 ‘선’은 일본어에서는 ‘상대방’이나 ‘대상’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선’에 이런 뜻이 없다. ‘수입처, 거래처’처럼 ‘-처(處)’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행선지(行先地)’도 일본어이다. 우리말로로는 ‘갈 곳, 목적지’라고 한다.

4.5. 세대(世帶)

가구(家口)를 흔히 ‘세대’라고 하는데 일본어 ‘世帶(せたい)’를 우리말로 읽은 것이다. 주민등록 등본 등을 떼어 보면 ‘세대주’라는 항목이 있기도 하다.

우리말을 가장 정확히 써야 할 관공서에서 오히려 우리말을 버리고 일본어를 국민 모두에게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도 그대로 ‘총 2000세대 분양’ 등의 문구가 버젓이 나온다.

독립된 한 집안을 이룰 때에는 ‘세대’가 아닌 ‘가구’를 써야 한다. 그 집의 주인이나 가장도 ‘세대주’가 아니라 ‘집주인, 가구주, 가장’으로 써야 한다.

4.6. 내역(內譯)

‘내역’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 ‘내역’ 또한 일본어이다. 우리말에는 ‘명세(明細)’가 있다. 자세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업 내역, 물품 내역, 공사비 내역’ 같은 말은 ‘내역’을 ‘명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으로 바꿔 주면 된다.

4.7. 사체(死體)

문국진: 일본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체라는 것은 동물의 사체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송장, 시체가 되지요. 사람과 동물은 구별합니다.

우에노 마사히코: 일본은 한자 제한으로 ‘시(屍)’와 ‘사(死)’를 통일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전부 통일해서 ‘사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고 ‘시(屍)’라는 한자를 없앴습니다.

문국진: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사체 부검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물의 사체를 부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국진,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4.8. 그 밖의 것들

고수부지(高水敷地)⇒둔치, 강터	곤색(紺色)⇒감색, 진남색, 검남색
굴삭기(掘削機)⇒굴착기(掘鑿機)	기라성(綺羅星)⇒빛나는 별(기라성 같은⇒쟁쟁한)
노건(路肩)⇒갓길, 길썰	다테기⇒다짐, 다진 양념
다시(出汁)⇒맛국물	부(分)⇒푼(8부 능선⇒8푼 능선, 3부 다이아몬드⇒3푼 다이아몬드)
부지(敷地)⇒터, 대지	선착장(船着場)⇒나루
소테⇒소매(소테나시⇒민소매)	소라색(空色)⇒하늘색
수순(手順)⇒차례, 순서	시건(施鍵)장치⇒잠금장치
시말서(始末書)⇒경위서	시합(試合)⇒겨루기, 경기
십팔번(十八番)⇒애창곡	아나고⇒붕장어
오텡(御田)⇒꼬치 ※요즘은 오텡이 ‘어묵’의 뜻으로 더 많이 쓰임.	와사비(山葵)⇒고추냉이
전향적(前向的)⇒긍정적, 미래지향적, 적극적, 발전적	정종(正宗・まさむね)⇒청주(淸酒) ※정종은 일본 마사무네(正宗) 가문에서 빚은 술에서 유래함.
지리⇒맑은탕	진검(眞劍)승부⇒정면승부
혹성(惑星)⇒행성(行星)	

더 나은 문장 쓰기

—단어 선택과 문장 구성과 표현을 중심으로—

김 희 진 (국어생활연구원 원장)

■ 좋은 문장의 요건

1. 분명하다.
2. 알기 쉽다.
3. 간결하다.
4. 자연스럽다.
5. 어법에 맞다.

1. 단어와 의미 면

가. 단어 선택이 부적절함

(1) 병에 걸릴 가능성(可能性)

가능성(可能性):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 // 가능성을 점치다. / 합격할 가능성.

(2) 난이도(難易度)를 낮추어 문제가 쉬워졌다.

난이도(難易度):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난이도 조정.

난도(難度): 어려움의 정도.//문제의 난도가 높아 풀기 어렵다.

(3) 국민 만족도가 선진국에 버금간다는 평가

버금가다: 으뜸의 바로 아래가 되다.// 왕에 버금가는 권세/실력이 그에 버금가다.

(4) 집집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分離收去)한다.

분리수거(分離收去):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늘어놓은 것을 거두어 감. ‘따로 거두기’, ‘따로 거두어 가기’로 순화함.

분류(分類): 종류에 따라서 가름. ‘나눔’으로 순화함.//도서 분류

배출(排出):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가스 배출/노폐물 배출/오염 물질 배출/공해 배출 업소/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자 쓰레기의 배출이 크게 줄었다.

(5) 조용히 음악을 듣는 와중(渦中)에 종이 울렸다.

와중(渦中): ①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② (주로 와중에 끌려 쓰여)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많은 사람이 전란의 와중에 가족을 잃었다.

(6) ① 전문가의 자문(諮問)을 받아

② 자문을 구하려고 대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자문(諮問):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자문하다: 정부는 학계에 자문하여 환경 보호 구역을 정하였다.//그 기관에 경제 시책을 자문하다./그 회사는 유명한 경제 전문가에게 매사를 자문하고 있다.

조언(助言):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또는 그 말. ≒도움말.//조언을 구하다/조언을 듣다/조언을 받다/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다/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다/나는 누구의 조언도 없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조언하다: 학생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조언하다/전문가는 그 회사에 정보 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나는 그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전망이 있는지를 조언해 줄 생각이다./나는 소년에게 더 이상 자학적인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의사는 그에게 정밀 진단을 받아 보라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부모들에게 자녀와 대화할 기회를 수시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7) ① 수강 희망자는 속히 접수(接受)하세요.

② 그 단체는 고발장을 만들어 구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하다(接受-): ①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다. ②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

(8) 진위 여부(眞僞與否)를 확인하도록

진위(眞僞):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진위를 판단하다/진위를 가려내다/진위를 밝히다./새로 발굴되었다는 유물의 진위에 대하여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9)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타산지석(他山之石):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그처럼 종술이를 심하게 꾸짖는 이유도 실상은 타산지석으로 들으라고 막내 놈을 은근히 겁주기 위함이었다.《윤홍길, 완장》

(10) 아까운 혈세(血稅)

혈세(血稅): 가혹한 조세.//탐관오리가 백성들로부터 혈세를 거두어들였다./가뜩이나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군자금까지 내어 놓으라니, 그야말로 혈세 아닌가?/백성의 혈세를 범포한 영문 죄인들을 색출하시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나. 동의(同義)가 중복됨

(1) 낙도(落島) 어린이와 자매 결연(結緣)을 맺고 →결연하고/인연(을) 맺고

결연하다(結緣): 인연을 맺다.//요즘은 불우한 청소년과 결연하려는 독지가가 늘고 있다./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결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2) 서민들의 애환(哀歡)과 기쁨이 살아 있는 드라마.→애환/슬픔과 기쁨

애환(哀歡):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삶의 애환/이산가족의 애환
과 염원/뿌영고 뚝고 심심한 그 막걸리에는 한국인의 소박한 애환이,
김삿갓의 그 웃음 같은 것이 그대로 깃들여 있다.《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비) 희비(喜悲).

(3) 탄신일(誕辰日)→탄신/탄일/탄생일

탄신(誕辰):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 석가 탄신. (비) 탄생일, 탄일.

다. 사동 표현이 남용됨

- | | |
|------------------------------|----------|
| (1) 부담을 경감(輕減)시키는 방법 | → 경감하는 |
| (2) 어릴 때부터 교육(敎育)시켜야 한다. | → 교육해야 |
| (3) 업무 내용을 구체화(具體化)시켜 주고 있어서 | → 구체화해 |
| (4) 효율을 극대화(極大化)시키려는 노력 | → 극대화하려고 |
| (5) 청정 무공해 이미지를 부각(浮刻)시켜 | → 부각해 |
| (6) 꿈을 실현(實現)시키려고 애쓴다. | → 실현하려고 |

라. 이중 피동 표현이 남용됨

- | | |
|--------------------------|--------|
| (1) 이러한 일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 → 학습되는 |
| (2) 문이 딱 닫혀져서 잘 열리지 않는다. | → 닫혀서 |

마. 지나치게 줄임

- (1) 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 (2) 굳건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바. 순화 대상어를 씀

(1) 입장

- ① 미국 시애틀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한 대응 V 입장을 밝혔다.→방침
- ② 외교부 차관은 독도 인근 해역의 방사능 조사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

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방침/의견

- ③ 일본 측은 우리 EEZ 내에서 옛 소련의 원자력 폐기물과 관련한 방사능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단호하다.→태도

- ④ 사학법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 태도/소신

- 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태도/자세

- ⑥ 경계획정 회담에서는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의견/견해

- ⑦ 카드사는 이 씨에게 결제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어렵다고

- ⑧ 집단 휴가를 떠날 때 수업 손실은 누가 메워야 하는가? 묵묵히 수업에 매진하는 동료 교사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교사들도

☞ ‘입장’은 이 밖에도: 결심, 관점, 노선, 동향, 뜻, 상황, 생각, 시각, 심정, 원칙, 위치, 의지, 인식, 자리, 주장, 직책, 처지, 체면, 판단, 해명, 형편 등으로 쓰인다.

2. 문장 면

가. 필요한 말이 빠짐

- (1) 극의 완성도에 노력했다.
(2) 위험 요인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자.

☞ ‘가능한’은 ‘최단 시일’을 꾸미는 말로 사용할 수 없음. 이런 경우에는 ‘-ㄴ/는 한’이 라는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법에 맞음.

- (3) 심전도 검사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250여 명이다.

(4) 막판 부동산의 향방이 관세를 가를 전망입니다.

☞ 전망: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 국내에서 자신의 성에 불만을 갖고 ‘반대의 성’으로 활동하는 성전환증자는 적게는 1천명에서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성별 정정 신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양측은 조만간 도쿄에서 제7차 EEZ 회담을 재개한다는 데만 합의함으로써 또다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골프장 코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어길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나. 호응이 안 됨

- (1) 뇌졸중은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 원인 중 첫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며
→ 사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며/사인 중 첫 번째로 많으며

다. 접속 관계가 부적절함

- (1) 저희는 사후(事後) 수습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여러분의 심려를 씻어 드릴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 (2) 경찰청은 ‘알기 쉬운 아동 유괴 및 실종 예방 가이드’ 1만 5,000부를 냈다.
- (3) 입과 손발이 테이프로 묶인 박 군.

라. 어순·배열이 어색함

- (1)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2)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이 많았으며

-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자

3. 표현 면

가. 표현 방식이 부자연스러움

1) 명사구 사용이 지나침

- (1) 업무 갈등→업무에서 오는 갈등

2) 번거로움

- (1) 주민들에 대한 치료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2) 유아기에 있어서도 욕구가 충족될 때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배운다.
 (3)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역 투입

- (1)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2) 바로 노예와 다름 아니었다.
 (3) 안전사고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한 잔의 커피
 (5)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
 (6)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7)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 ‘-라는’은 ‘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더-’, ‘-으리-’ 뒤,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라고 하는’이 줄어든 말임. 그러므로 ‘없다라는’이란 말은 ‘없다는’으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8) 보다 조심스럽게

나. 비논리적인

- (1)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2) 하산(下山)할 때에는 쓰레기를 되가져갑시다.

다. 자극적이고 과장됨

- (1) 고름 우유, 공업용 우지 라면, 쓰레기 만두
- (2) 대거 소환, 인사 단행¹⁷⁾
- (3) 직원들 초긴장

라. 차별적인

성: 미혼모, 미망인, 처녀작, 처녀출전, 바깥어른, 학부형, 여편네
신체조건: 맹인, 귀머거리, 절름발이 행정, 병어리 냉가슴, 말라깽이, 똥보,
얼짱, S라인
인종과 지역: 유색인종, 혼혈아, 코시안, 상경하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 잡상인, 철밥통, 간호원, 신용불량자, 미숙아, 사생아

<대안 예>

가정부, 파출부 → 가사도우미
간호원 → 간호사
결손가정 → 한부모가정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노가다 → 일용직 건설노동자
미망인 → (고인인 ~의) 부인
미숙아 → 이른둥이
백수 → 취업준비자, 구직자

17) 단행(斷行): 결단하여 실행함.

병어리 → 언어장애인
 봉급/월급쟁이 → 봉급/월급생활자
 시집가다 → 결혼하다
 신용불량자 → 금융채무연체자/금융채무불이행자
 안내양 → 안내원
 안마사 → 수기사
 양심적 병역거부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에이즈환자 → HIV보균자/감염자
 잡상인 → 상인
 집사람 → 아내
 처녀 출전 → 첫 출전
 처녀생식 → 단성생식
 청소부 → 환경미화원
 학부형 → 학부모

마. 비속(卑俗)함

- (1) ‘행장 연임이’ 물건너갔다.
- (2) 열 받은 직원들.
- (3) ‘왕따’ 당하는

신문 자료 첨부 (모두 12쪽) 153쪽까지

우리말 다듬기

박 용 찬 (국립국어원)

제 1 장 우리말 다듬기란?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순화’란 우리말 속에 있는 잡스러운 말을 없애서 우리말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말을 단순하고 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어 순화라 하면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온 것입니다.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순수 우리말 쓰기’에 해당하고,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쉬운 우리말 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말에서 ‘순화’는 상황에 따라 ‘純化’를 가리키기도 하고 ‘醇化’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른 한자어이지만 둘 다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국어나 언어와 호응하여 쓰일 때에는 ‘純化’보다는 ‘醇化’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국어 순화(國語醇化)’, ‘언어 순화(言語醇化)’란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 직후 ‘국어 순화’의 주된 관심사는 ‘일제 잔재 언어(일본어 투 용어)’의 순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순화(醇化)’보다 ‘정화(淨化)’가 더 널리 쓰였습니다. ‘정화’가 ‘순화’에 비해 윤리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순화’와 ‘정화’는 각각 영어의 ‘refinement’와 ‘purification’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화’란 말이 일반화된 건 197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런데 ‘순화’를 쓰든 ‘정화’를 쓰든 이들은 모두 ‘순수 우리말 쓰기’와 더 관련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쉬운 우리말 쓰기’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즉, ‘순화’와 ‘정화’는 우

리가 지금까지 ‘국어 순화’라 하여 가리켜 왔던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 가운데 전자에 더 주안점을 둔 말입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국어 순화’가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와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일반화된 ‘순화’는 일반 국민 대부분에겐 여전히 생소하기만 한 말입니다.

반면 최근 들어 ‘순화’와 ‘정화’를 달리 이르는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고,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말 다듬기’는 삼척동자라도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입니다. 따라서 ‘순화’와 ‘정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우리말 다듬기는 왜 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즉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國語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 용어(일본어 투 용어)를 대대적으로 순수 우리말로 바꾼 일은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방적, 강제적으로 유입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복 직후 일본어 투 용어에 대한 ‘정화(淨化)’ 차원의 우리말 다듬기가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말 다듬기는 프랑스의 순화 정책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자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순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순수 자국어 쓰기’로서 우리의 ‘순수 우리말 쓰기’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에서 벌이는 순화 정책이 우리의 관심을 끄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의 차용에 관한 한 거의 방

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2003년부터 일본 국립국어연구소를 통하여 간헐적이지만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 자국어 쓰기’와 거리가 멉니다. 일본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외래어를 선별해 순수 일본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어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쉬운 말 쓰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도 우선적으로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쉬운 우리말 쓰기’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선 곤란합니다. 일본어 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요즘의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쉬운 우리말 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입니다.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쓰는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는 우리말의 본래 자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신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처럼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ㄴ.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다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봄.)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일제 잔재 언어의 청산으로 시작된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 대하여 전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처럼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주로 영어)를 다듬을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다량으로 널리 쓰면 쓸수록 좋지 않겠느냐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들은 저절로 서양식 외국어를 익히도록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 언어생활에서 많이 그리고 빈번히 쓰는 일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말의 순수성이나 순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웬만한 외래어·외국어는 모두 다 우리말로 다듬어 쓰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말로 완전히 정착한 외래어까지도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하였습니다(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하는 쪽에서 ‘우리말 다듬기’라 하여 지금껏 아무 불편 없이 써 왔던 말까지도 생소한 다른 말로 바꿔 쓰도록 강요하니,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외래어·외국어를 쓰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심리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언어 차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의 하나입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은 더더욱 불가피합니다.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은 모두 외국어이기에 그것을 우리말(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 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 서양식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국립국어원 간행)에 실려 있는 총 440,594개의 주표제어에서 서양식 외래어는 총 24,019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서양식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0,542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순수 서양식 외래어 24,019개 가운데 21,492개(순수 서양식 외래어의 89.5%)가 영어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서양식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되는 말인 셈입니다.

어종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
표제어 수 (440,594)	111,156	252,278	24,019	36,618	1,323	14,480	720
백분율 (100%)	25.2	57.3	5.4	8.3	0.3	3.3	0.2

그런데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는 말(신조어)에서 서양식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신어”(408개), “2003년 신어”(656개), “2004년 신어”(626개) 가운데 서양식 외래어는 총 608개로 37.0%를 차지하며 서양식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974개로 전체의 57.6%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심화되어 몇 백 년 뒤에는 우리말에서 순수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양식 외래어보다도 훨씬 작아질지 모릅니다.

어종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
신조어 수 (1,690)	78	443	608	195	77	276	13
백분율 (100%)	4.6	26.2	37.0	11.5	4.6	16.3	0.8

그런 면에서 외래어 다듬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합의 절차 없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말 다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방적인 ‘쇠귀에 경 읽기’나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ㄷ.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줄기차게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국립국어원이 1991년 1월 23일 개원한 이래 공식적으로 다듬어서 내놓은 말만 해도 2,200여 개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극히 낮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주로 전문어를 우리말로 다듬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다듬을 말(순화 대상어)’을 선정하고 ‘다듬은 말(순화어)’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방위적인 ‘다듬을 말’ 선정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합치되는 ‘다듬은 말’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다듬을 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다듬어 쓸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는 항시 뒷북치는 일쯤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feedback, 수용자 반응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된 조정 작용) 없이 다량으로 마련하여 일방적으로 보급되는 다듬은 말은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경직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우리말 어법,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코너킥(corner kick)’의 다듬은 말로 ‘구석차기’, ‘모서리차기’ 말고 다른 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우리말 다듬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은 2004년 7월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마련하여 우리말 다듬기에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말 다듬기의 방식을 ‘정부나 전문가 집단 주도(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인 방식에서 ‘일반 국민 참여(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인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마련한 다듬은 말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 사이에 보급할 수 있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 아니냐 하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말 다듬기에서 일반 국민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생활의 주역이 일반 국민이

라면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데서 제 입맛에 맞는 ‘다듬은 말’(순화어)을 결정할 권리도 일반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입니다. 제 입맛에 맞지도 않는 ‘다듬은 말’을 억지로 쓰도록 하는 건 지나친 강권(強勸)일 수 있습니다.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언어 의식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단기간의 조그만 성과보다는 장기간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 함께 참여하여 꾸준히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ㄷ. 어떤 말을 다듬어 써야 하나?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어떤 원리로 다듬을 말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듬은 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듬은 말 대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채 보급되지 못하고 국어사전 속에 사장되어 있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듬을 말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다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듬을 말을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리말’이 아니거나(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난해한 한자어)을 순수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수 우리말 쓰기’, ‘쉬운 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우리말 다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따위와 관련된 것)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일본식 발음의 서양식 외래어인 ‘쓰레빠(slipper)’·‘사라다(salad)’ 따위를 ‘슬리퍼’·‘샐러드’ 따위로 고쳐서 쓰는 일이나, 영어·일본어·한문 번역 투 문장을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으로 고쳐 쓰는 일은 ‘바른 우리말 쓰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어, 속어, 은어, 욕설, 유행어 따위와 같은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은 ‘고운 우리말 쓰기’에 해당합니다. ‘가정부’, ‘운전사’, ‘장애자’ 따위를 ‘가사 도우미’, ‘기사(님)’, ‘장애우’ 따위로 바꾸어 쓰는 일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말을 좀 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말로 다듬어 쓰는 일로서 이 또한 ‘고운 우리말 쓰기’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다듬기는 일본어 투 용어,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난해한 한자어 따위와 같은 어휘를 주로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표기, 발음,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따위와 관련된 것)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서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특히, 영어) 남용이 커다란 사회 문제 및 언어 문제로 대두하였습니다.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원(‘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함부로 쓰이고 있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와 같은 어휘를 시급히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할 대상으로 봐서, 주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어휘를 적절한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미 우리말의 일부로 완전히 정착된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쓰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언어생활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가운데 다듬을 말을 선정할 때에는 ‘정착도(定着度)’를 적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말의 일부로 굳어져 버린 외래어(정착도가 아주 크거나 높은 외래어)는 다듬어 쓸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200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에서는 엄밀한 기준이라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정착도의 기준으로 삼아 다듬어 쓸 말을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네티즌(netizen)’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착도가 낮은 외국어 수준의 말로 봐서 다듬을 쓸 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이트를 통하여 다듬어 쓰기로 한 말은 대부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외래어로 보기 어려운 외국어 수준의 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정착도가 아주 낮은 외국어 차원의 말이라 하여 이런 말들을 모두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는 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정착도가 낮은 외국어 차원의 말 가운데 상당수는 임시 차용어(잠시 쓰이다 말 말)나 유행어(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서 쓰이는 말)인데 이들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불필요한 서양식 외국어를 학습시켜 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우리말 다듬기의 적시성(適時性)과도 관련됩니다. 임시 차용어나 유행어로 쓰이는 외국어 차원의 단계를 지나 정착도가 어느 정도 크거나 높아진 말을 다듬을 말로 선정해야 우리말 다듬기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말로 다듬어 쓰나?

우리말 다듬기의 성패는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에는 한자어, 신조어, 옛말의 활용 등 여러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얼마간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다듬은 말로 되도록 한자어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는 친구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상 언어생활에서 함부로 쓰이는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라서 굳이 한자어를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 우리말 쓰기’보다

는 ‘쉬운 우리말 쓰기’를 더 고려하여 ‘우리말 다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쉬운 한자어는 다듬은 말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슬로 푸드(slow food)’, ‘미션(mission)’ 따위의 다듬은 말로 ‘안전문(安全門)’, ‘여유식(餘裕食)’, ‘중요임무(重要任務)’ 따위와 같은 한자어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쓰레기편지(---便紙)’, ‘꾸림정보(--情報)’, ‘자동길(自動-)’ 따위[각각 ‘스팸 메일(spam mail)’, ‘콘텐츠(contents)’, ‘무빙 워크(moving walk)’ 따위의 다듬은 말]도 다듬은 말의 일부로 한자어가 활용된 예입니다.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것은 신조어입니다. 다듬어 쓸 말에 대응하는, 바꾸어 쓸 만한 우리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듬은 말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꾸어 쓸 만한 말이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새로 말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웰빙(well-being)’, ‘이모티콘(emoticon)’, ‘컬러링(color ring)’의 다듬은 말로 결정된 ‘참살이’, ‘그림말’, ‘멋올림’ 따위가 이 사이트를 통하여 새로 만들어 쓰게 된 대표적인 신조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조어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 크게 저항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조어를 만들어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먹거리’처럼 용언 어간에 직접 체언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는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저항을 느끼게 하는 축에 속하므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반면 ‘두루누리’, ‘몰래제보꾼’[각각 ‘유비쿼터스(ubiquitous)’, ‘파파라치(paparazzi)’의 다듬은 말]처럼 부사에 직접 체언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는 이전에는 그리 자연스럽지 않았으나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별 저항을 느끼게 하지 않는 축에 속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봄 직합니다.

옛말 활용 여부도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옛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잊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말입니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볼 때엔 옛말 활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듬은 말로 바꾸어 쓸 만한 우리말도 따로 없고 신조어를 새로 만들어 쓰기도 쉽지 않은 경우에는 옛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울통신’처럼 ‘어우르다’의 옛말

인 ‘어울다’를 활용한 신조어가 ‘로밍(roaming)’의 다듬은 말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옛말을 활용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옛말을 활용하여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듬은 말로 순수 우리말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누리꾼’, ‘늘찬배달’[각각 ‘네티즌(netizen)’, ‘퀵서비스(quick service)’의 다듬은 말] 따위는 각각 ‘누리’, ‘늘차다(능란하고 재빠르다)’라는 순수 우리말을 활용하여 다듬은 말을 마련한 예입니다. 이렇게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 순수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낯선, 이제는 옛말처럼 받아들여지는 순수 우리말을 다듬은 말로 활용할 때 아주 낮은 옛말처럼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다듬은 말은 되도록 최선의 것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것일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다듬은 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말 다듬기란 정답을 맞히는 문제 풀이가 아닌 것입니다. 최선의 것만을 찾느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시간만 늦추다간 우리 언어생활이 온통 수많은 외래어·외국어로 도배(?)될지도 모릅니다.

제 2 장 우리말 다듬기 실제

국립국어원은 함부로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걸러 내고, 우리말을 더 다듬어 가꾸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이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매주 하나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이 그 말을 대신하여 쓸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다듬은 말은 총 124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품 (must have) (graffiti) (beat box) (free size) (sampler) (catering) (trademark) (chick-lit) (homage) (publicity 權) (faction) (mattress) (masterclass) 168 (partnershi			
---	--	--	--

제 3 장 일본어투 용어 다듬기

우리나라는 광복 직후부터 ‘국어 정화(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본어 잔재를 우리말로 다듬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일본어 다듬기는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어 잔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본어 잔재는 한일 간의 자연스러운 언어 접촉 과정에서 우리말에 유입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의해 일방적, 강제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수 우리말 상당수가 일본어에 밀려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의 일본어 다듬기는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어를 접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자리, 즉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본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바’, ‘찌라시’, ‘빼끼’, ‘와꾸’, ‘앗사리’, ‘나시’, ‘뽀록나다’ 등의 순 일본어와 ‘노견(路肩)’, ‘대금(代金)’, ‘망년회(忘年會)’, ‘사양(仕樣)’, ‘선불(先拂)’, ‘수순(手順)’, ‘수입(手入)’, ‘지입(持込)’, ‘지참(持參)’ 등의 일본 한자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는 ‘기스’, ‘마후라’, ‘쇼바’, ‘미션’, ‘부란자’, ‘다시방’, ‘백비러’ 등의 순 일본어, 일본식 발음의 영어, 일본식 영어 등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건축, 봉제, 인쇄 현장에서도 일본어 잔재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학술 분야는 온통 일본 한자어 천지입니다. 고전 음악 분야만 보더라도 ‘광시곡(狂詩曲)’, ‘기상곡(綺想曲)’, ‘야상곡(夜想曲)’, ‘소야곡(小夜曲)’, ‘조곡(組曲)’ 등의 일본 한자어가 다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률, 화학, 식물 분야도 그렇고 심지어 국어학, 국사학, 국악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어 잔재를 지금까지처럼 계속하여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치우쳐서 다듬는 건 곤란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국수(國粹)적인 것으로 비쳐서 역효과만 날 뿐 앞으론 실제적인 차원에서 일본어 잔재를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의 일본어 다듬기입니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순 일본어는 ‘후까시’, ‘뽀로꾸’, ‘빼까빼까하다’

등처럼 점점 속어화해서 일반인은 거의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건축, 봉제, 인쇄, 방송 현장의 용어도 해당 기술자가 아닌 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학술 분야의 일본 한자어는 학자가 아닌 한 끄끙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일본어 잔재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본어 잔재를 다듬어야 합니다. 즉,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 잔재를 찾아내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회 통합의 밑바탕이 되므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교수 화법

지 연 숙(고려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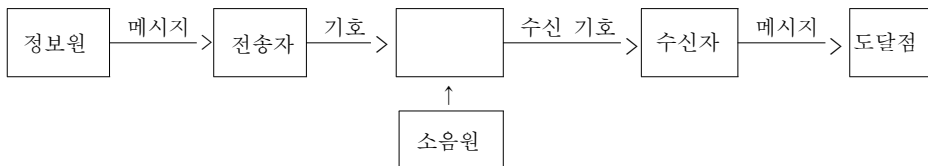
목표

1. 의사소통의 기본 개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다.
2. 구체적 상황에서 교수 화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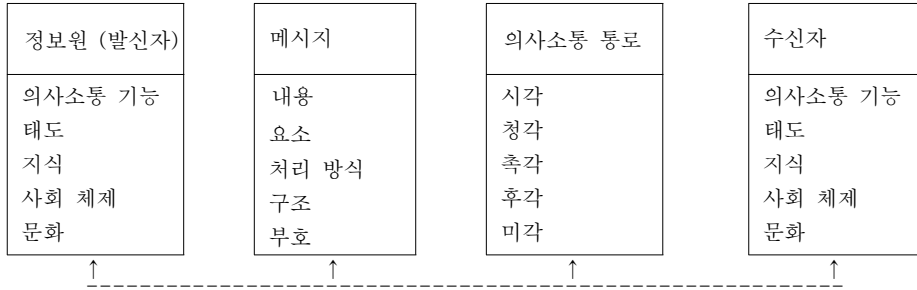
I. 효과적인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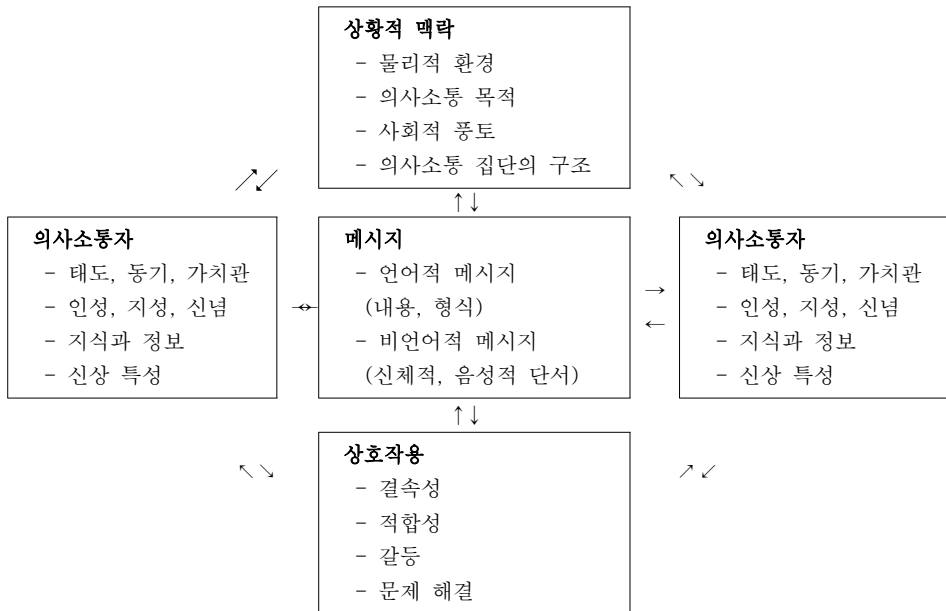
<그림 1> Shannon & Weaver(1949)의 의사소통 모형



<그림 2> Berlo(1960)의 SMCR 모형



<그림 3> Applbaum(1974) 등의 집단 의사소통 모형



인간 의사소통이란 언어적 상징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2. 의사소통의 성격

- 1)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 2) 의사소통은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 3) 의사소통은 상황 의존성을 지닌다.

- 4)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의 상호 교섭 과정이다.
- 5) 의사소통은 적절한 문법 결속성과 의미 결속성을 필요로 한다.

3. 의사소통 능력

- 1) 감정이입 능력
- 2) 객관적 관점 확보 능력
- 3) 관계 규범에 대한 민감도
- 4) 상황에 대한 지식 정도
- 5) 상위 인지 능력
- 6) 상황 운영의 전략
- 7) 효과적 듣기 기술
- 8) 말하기 불안 대처 기술

4. 의사소통 원리

1) 협력의 원리

-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iy)
-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2)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

-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라.
-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어라.
-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3) 공손성 원리

- 요령의 격률(tact maxim)
-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
-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
-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
-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

5. 언어적 의사소통

1) 효과적인 듣기

유사청취와 진정한 청취

적극적으로 듣기 (바꾸어 말하기, 명료화하기, 피드백)

공감하며 듣기

개방적으로 듣기

인식하면서 듣기 (분석적 듣기, 공감적 듣기, 비판적 듣기, 대화적 듣기)

예문 1

살기가 정말 힘들어. 죽고 싶어.

1단계. 뭐가 힘들다고 그래? 네가 심약하니까 별말을 다 하는구나.

2단계.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면 되잖아? 설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쉽겠어.

3단계. 그래, 다 살기가 힘들지. 나도 그래.

4단계. 맞아. 정말 살기 힘들지.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5단계. 그러니까 이번 일만 도와주면 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지?

2) 효과적인 말하기

메시지 표현 (자아 인식, 발화 맥락과 상황 고려, 청자 파악, 목적과 주제 정리, 자료 수집, 내용 조직, 표현 전달)

자아 표현 (사회적 자아, 문화적 자아, 개인적 자아)

예문 2

남편 : 오늘 오후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꼭 가야 하나?

아내 : 왜요, 가기 싫어요?

남편 : 글썄, 그거 매번 똑같잖아.

아내 :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 : 아니, 아무것도. 강사들은 가끔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글썄, 기

훈이 엄마가 회장이잖아.

아내 : 기훈이 엄마가 모임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편 : 기훈이 엄마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조직적이야. 신경 쓰지 마. 갈 거라면 어서 가자고.

예문 3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업체로 견학을 갔다. 이는 수학 교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수학 교사는 학생들이 데이터 처리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인상적인 경험을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혼자서 이번 견학을 결정하고 계획했다. 업체 대표는 소프트웨어업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장황한 소개를 했다. 10분이 지나자 학생들이 벌써 졸렁이고 집중력을 잃고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업체 대표가 불쾌한 표정을 짓자 수학 교사는 업체 대표에게 그쯤에서 회사 소개를 끝내고 회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학생들이 별 관심이 없고 소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학생들은 그제서야 견학을 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견학은 무사히 끝이 났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 전략

- 일반적인 낙인
- 빈정거림
- 과거의 일을 들춤
- 부정적인 비교
- 판단 (너는 말이야 메시지)
- 위협

메시지 표현 전달의 방법

- 상황을 통제하라
- 발음을 정확히 하라

-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말하라
- 어법에 맞게 말하라
- 간결한 문장으로 말하라

최대 10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대 16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이해할 수 있다.

최대 22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아직 이해할 만하다.

22개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이해할 수 없다.

- 모든 이용 가능한 단서를 활용하라
- 개방적인 태도로 전달하라
- 상황에 맞게 메시지 전달 방법을 선택하라

개인적 자아의 유형

열린 자아, 가려진 자아, 숨겨진 자아, 미지의 자아

- 열린 자아 :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진 자아
- 가려진 자아 : 자신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에는 알려진 자아
- 숨겨진 자아 : 자신에게는 알려졌지만 다른 사람에게에는 알려지지 않은 자아
- 미지의 자아 :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자아

부모, 아이, 성인

-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부모는 부모가 자신에게 부여했던 규율, 도덕적 금언, 행동에 대한 지시 등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는 ‘항상’, ‘결코’, ‘그만 해라’, ‘하지 마라’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특히 엄격한 부모는 ‘지겨운’, ‘어리석은’, ‘우스꽝스러운’, ‘바보 같은’과 같은 판단을 하는 단어들을 사용한다. 지지적인 부모는 ‘완벽한’, ‘환상적인’, ‘뛰어난’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 아이는 발견과 감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또한 부모의 명령에 맞부딪치면서 생긴 모든 거부, 비난, 부정적인 느낌의 결정체이다. 아이는 ‘나는 ...를 증오한다’, ‘나는 ...를 하고 싶다’, ‘왜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지?’라는 문구를 좋아한다. 올바르게 앎다는 이야기를 참지 못하

고, 거절을 느끼면 상처와 분노의 감정으로 퇴행한다.

- 성인은 아이로서의 강렬한 느낌이나 욕구와 부모의 규율이나 명령 사이의 긴장을 조절한다. 성인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면서 아이의 요구와 반응에 주의를 기울인다. 성인의 입장에서 하는 대화는 직접적이고 솔직하다. 성인은 설명하고, 질문하고, 가능성을 평가하고,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모두 검토한다.

연습

* 다음의 진술들이 부모, 아이, 또는 성인 중 어떤 입장에서 진술된 것인지 구별해 보라.

- ① 난 안 갈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절대 안 가.
- ② 너는 너무 게을러. 달리 할 말이 없구나.
- ③ 서둘러. 우린 늦었어.
- ④ 너는 3시간 동안이나 여기 있었는데 하나도 끝낸 게 없구나.
- ⑤ 내가 한가할 때 짐 꾸리는 것 좀 도와주면 고맙겠는데.
- ⑥ 왜 내가 항상 일을 더 해야 하지?
- ⑦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어깨 좀 펴고, 삶을 즐겨.
- ⑧ 오늘은 제발 외식을 하자.
- ⑨ 넌 그걸 웃이라고 입었니?
- ⑩ 우리 중 한 사람이 오늘 오후에 쉴 수 있어.

해리스의 규칙

⇒ 자신의 아이, 즉 약함,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라.

⇒ 자신의 부모, 즉 규칙, 명령, 고정관념, 그리고 이러한 명령들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라.

* 존은 수잔에게 만약에 늦을 것 같다면 전화를 하라는 말을 하려고 한다. 세 가지 자아 상태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부모 :

성인 :

아이 :

* 데이비드가 사장에게 봉급인상을 요구하려 한다.

부모 :

성인 :

아이 :

부모와 부모

A : 근로자들이 모두 뺑질거리면서 일을 안 한단 말이야.

B : 맞아. 혐오감이 들 정도야.

아이와 아이

A :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곧바로 가는 게 싫어.

B : 정말 그래. 재미있는 걸 하나도 할 수 없잖아.

A부모→B아이, B부모→A아이

A : 방으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좀 그만해.

B :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저녁을 만들면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남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잖아.

A아이→B부모, B아이→A부모

A : 나는 프랑스 영화를 싫어하는데, 왜 우린 매번 프랑스 영화를 보러 가야 하는 거지?

B : 만약 당신이 그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영화를 보러 갈 이유가 없어.

A부모→B아이, B성인→A성인

A : 저 끝도 없는 TV 드라마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책 좀 읽을 수 없어?

B : 오늘 밤에는 TV를 보는 게 더 좋은데.

A아이→B부모, B성인→A성인

A : 왜 내가 매번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 왜 당신은 안 하는 거야? 난 쓰

레기 치우기 싫단 말이야.

B : 우리는 의논해서 각자 할 일을 나누었잖아. 가능한 한 빨리 쓰레기를 치워주면 좋겠어.

- 자신이 어떤 자아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라.
- 자신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의 자아 상태를 인식하라.
- 다른 사람의 아이 상태에 민감하고,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가 전달하는 옳지 않은 메시지를 인식하라.
-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라. 다른 사람이 화가 났거나 공격을 가하면 안전하게 감추어라.
- 대화 중에 벌을 잘 주는 부모의 상태를 사용하지 말라. 아무도 그것을 듣기 좋아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옳지 않다는 공격을 가해 당신의 아이를 자극할 것이다. 적당할 때 지지적인 부모를 사용하거나 또는 성인의 상태를 유지하라.
- 성인을 통해서만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라. 자신의 부모와 아이에 귀를 기울이되 문제를 풀 때는 성인을 사용해 의사소통하라.
- 자료를 처리하는 데 성인의 시간을 할애하라. 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숫자 열을 세라. 부모와 아이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요구하는 진술 중에서 정말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가려내라.

6. 비언어적 의사소통

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해 주고 강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말이라는 음성언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청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표정이나 몸짓이라는 동작언어에 의한 시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문화적이고 지식적인 성격이 강한 데 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다분히 무의식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성격이 강하다.

2)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침묵, 준언어(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몸짓 언어(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 신체접촉) 공간 언어

II. 교수 화법

1. 교수 화법의 개념과 유형

교원 화법 중의 하나로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떤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관련하는 교수 학습상의 언어 활동. 교수 언어, 수업 화법, 수업 언어라고도 한다.

정보 전달 화법, 질의응답 화법, 설득 화법, 칭찬화법, 질책 화법

준비언어, 진행 언어(도입 언어, 계약 언어), 내용 언어(목표 언어, 동기 유발 언어, 해설 언어, 문답 언어), 마무리 언어 / 강의 도구 언어(표준 언어, 준언어)

	효율적 지도 교사	비효율적 지도 교사
1	가르침이 즉시 나온다.	더디게 나온다.
2	자료를 순서대로 가르친다.	두서없이 비조직적으로 가르친다.
3	학습에 초점하여 지도한다.	주제와 무관하게 가르친다.
4	시종을 조절한다.	시간 조절에 실패한다.
5	질문 : 단일 질문을 한다. 분석 근거를 요구한다.	질문이 복잡적이다. 비학구적 질문을 한다.
6	반응에 따라 피드백을 한다.	학생 반응을 무시하거나 조롱한다.
7	학구적 칭찬을 한다.	일반적, 비학구적 칭찬을 한다.
8	실습을 행하게 한다.	실습을 하지 않는다.
9	지침과 숙제, 점검 등을 한다.	부적절한 지침, 무과제, 무점검
10	순회하며 학생을 지원한다.	책상에만 있고 부적절하게 순회한다.
11	인과, 적용, 원리 지도한다.	그렇지 않다.
12	가치 판단의 기준을 유도한다.	그렇지 않다.
13	요점을 강조한다.	모호하게 말한다.
14	열정을 표현한다.	냉담하다.
15	미소와 제스처를 쓴다.	쫄그리고 무기력, 무표정하다.
16	비행을 중지시킨다.	비행을 통제하지 못한다.
17	교훈적 상황을 유지한다.	교훈적 기회를 상실한다.

2. 교수 화법을 위한 고려 사항

1) 문어와 구어의 차이점 인식

- 2) 메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3) 학생의 학습능력, 언어능력 고려
- 4) 학생 간의 의사소통 장려

3. 교수 화법의 구체적 방법

1) 교수 내용의 철저한 준비

교수의 세 가지 원리 : 명료성, 안내, 책임 (Highet :1951)

그 첫째는 명료성이다. 당신이 무엇을 가르치건 간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라. 그것을 햇빛처럼 견고하고 밝게 하라. 당신 자신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것이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하도록 하라. 그것은 어렵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서동요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교사가 정리하고 있다.)

선화공주님이 밤마다 서동을 안으러 갔다. 이런 시조. 모함이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남을 난처하게 하는 것, 이런 걸 참요라고 합니다. (PPT 화면 넘김) 성격 동요적, 민요적, 직설적, 주술적. 어, 주술적 아까 지명법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까 발표한 조가 참 잘했습니다. 주술적이고, 참요적이다. 참요라는 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남을 헐뜯는 것, 두 번째는 예언과 암시의 노래. 다음, 제재 ...

2) 학생의 문제제기에서 시작

문제의 정의-가설 설정-가설 검증-결론 도출-적용 및 일반화 평가

(교사는 15세 된 학생들에게 사과 속의 설탕과 전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두 개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교사 : 그래프를 살펴보고, 스스로 질문을 해 봐.

학생 1 : 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죠?

교사 : 그래, 누군가 대답을 해야 할 질문이구나. 또 다른 질문이 있니?
(잠깐 쉬었다가) ...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 시기에 떨어지니?

학생 2 : 아니요. 전분은 설탕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떨어져요.

학생 3 :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전분이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 설탕도 상승하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져요.

교사 : 그래, 관찰을 잘 했구나. 할 수 있으면 이 두 개의 좋은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볼까?

학생 2 : 선생님, 두 개의 질문이요?

교사 : 그래, 전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설탕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설탕은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3) 개념어의 사용

4) 구체성과 친밀성을 갖춘 설명

5) 시청각 자료의 제시

(초등학교 고학년 공개수업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 교사가 뉴스를 인터넷으로 제시하였다.)

교사 : 먼저 선생님이 자료를 제시해 주겠어요.

(인기 가수의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열광하는 10대 학생들에 대해 보도하는 텔레비전 뉴스였다. 학생들은 진을 치고 기다리고, 학부모들이 걱정이 되어 같이 오고, 경찰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무사히 끝났다는 이야기였다.)

교사 : 잘 보았어요.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니까 열광했는데, 그럼 이런 팬클럽 문화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해 봅시다.

학생 1 : 저는 팬클럽을, 팬클럽을, 팬클럽을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또

학생 2 : 저는 팬클럽 문화는 우리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쯤은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또

학생 3 : 저는 팬클럽 문화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며칠씩 기다리는 것은 자기 권리이고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 오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듣기 연습을 하고 있다.)

교사 : 지금까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두 번째 활동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통해 문장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사실인 문장들을 찾아내었던 학생들은 의견인 문장들을 찾아내고, 의견인 문장들을 찾아내었던 학생들은 사실인 문장들을 찾아내세요. 두 문장을 구분하려면 무엇을 참고해야죠?

학생 : 기준표요.

교사 :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표를 생각하면서 동영상에서 말하는 문장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하세요.

(카드 광고 동영상 제시)

교사 : 잘 들었지요. 광고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던 것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알죠? 이제 광고에 나온 문장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두 학생들과 의논해 보세요.

■ 질문의 유형

목적	연습, 발전, 시험 질문	
내용	교육 목표 분류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에 관한 질문
	사고의 수준	구체적 사고 수준, 추상적 사고 수준, 창의적 사고 수준의 질문
	사고의 폭	제한형, 확장형 질문
	인지과정	개념적 과정의 질문, 경험적 과정의 질문, 평가적 과정의 질문, 형이상학적 과정의 질문
	교수 행동의 이행	도입 질문, 초점화 질문, 사고의 차원을 끌어올리는 질문,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 부가적인 보조 질문

■ 질문과 응답 방법

질문은 교육 화법의 중추를 이룬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을 하기 전에 질문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질문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은 질문의 목적, 질문의 유형, 질문의 대상, 질문의 양 결정, 질문의 배분, 질문과 응답의 간격 등이다.

질문은 확정성, 간결성, 명료성, 정확성, 용이성, 논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70음절 이내의 단문으로 질문해야 한다.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5초로 연장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질문해야 한다.

학생이 응답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조언을 해야 한다.

이때 조언은 개안성, 시사성, 유발성, 임상성, 포용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대화와 인간관계

전 정 미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 의사소통과 대화

1.1. 말하기 강좌는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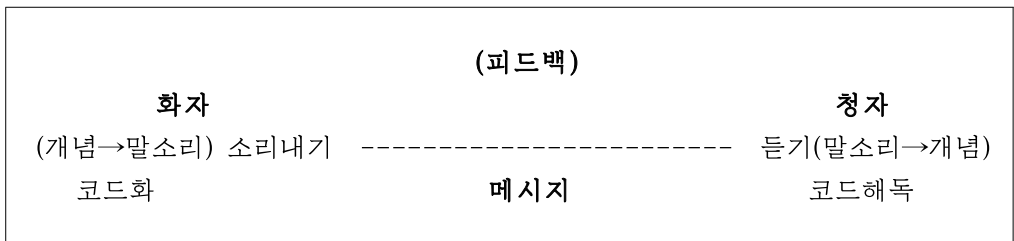
인간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장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말을 배울 수 있다. 첫 언어인 울음으로 생리적 욕구를 표출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로 언어의 수준이 달라져 간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욕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말하기 능력도 점차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업무능력이 국어 관련 능력이고, 그 가운데서도 ‘표현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말하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배운 절차를 따라 나오는 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1977년도에 나온 상식백과라는 책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위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하기가 누구에게나 두려운 요소라는 것은 말하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1.2. 의사소통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화자는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기호라는 일종의 코드로 바꾸는데, 이것을 코드화(encode)라고 한다. 한편 청자는 코드를 해독함으로 전달된 내용을 이해한다. 이것을 코드해독(decode)이라 한다. 그러므로 코드화는 개념을 말소리로 바꾸는 것이고 코드해독은 말소리를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전달되는 언어기호의 연속체를 메시지(message)라고 하고, 화자가 코드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청자가 코드 해독하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의사소통의 과정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의사 전달과 이해 과정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 아내: 여보.

남편: 응?

아내: 이번 휴가는 우리 좀 폭 쉬었다 싶게 좀 쉬어 봐요.

남편: 좋지.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동안 너무 일에 시달렸어.

아내: 우리, 이번 휴가는 일상을 좀 벗어나서 동남아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남편: 동남아 여행? 그게 쉬는 거야? 괜히 돈 버리고 시간 쓰고 몸만 피곤하지. 작년에도 휴가 갔다가 고생만 잔뜩 했잖아. 이번 휴가 만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좀 쉬자고. 난 정말 좀 쉬어

야 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아내: 당신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이창덕 외, <삶과 화법> 중에서)

의사소통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해 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 문화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1.3.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의사소통의 방법이란 메시지가 청자에게 전달되는 통로나 수단과 같은 매개체를 말한다.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하나의 매개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매개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지닌 오관을 기초로 한다.

(1) 청각 의존적인 의사소통 방법

- ① 말소리
- ② 심리적 반향음
- ③ 음향효과
- ④ 목소리 조절

(2) 시각 의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 ① 문자
- ② 상징
- ③ 수화

(3) 촉각 의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 ① 악수나 포옹
- ② 점자
- ③ 태도마

수업과 같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법을 활용하면 수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올릴 수 있다. 사람이 학습에 사용하는 감각은 시각 83%, 청각 11%, 후각 3.5%, 촉각 1.5% 라고 한다. 그러므로 수업에 시청각 자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1.4. 대화의 정의를 알아보자.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대화를 ‘서로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화란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을 말하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두 사람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자유로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꾸면서 집약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대화이다.

1.5. 대화의 요소는 무엇인가?

대화도 위의 <그림 1>과 같은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누가	-	화자
누구에게	-	청자
무엇을	-	메시지

1.6.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가?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언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는 대화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화자는 대화의 필요를 느끼고 대화를 위한 경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구성한다. 청자는 전달된 기호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

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고, 정보를 저장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보낸다.

기본적으로 화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청자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지만, 이 역할은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화제를 계속 이어감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대화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중심적 욕구에 빠지기가 쉽다.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1.7. 대화 참여자의 자기중심적 욕구란 무엇인가?

대화 참여자는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하는 화자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하며, 어떻게 말하든지 상대방이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비해서 청자가 되면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구별성의 원리를 추구하며 어떻게든 상대방이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하고, 청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은 대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조절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화법에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가장 이상적인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화자이고, 가장 이상적인 청자는 화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청자이다.

1.8. 메시지가 찰흙이라고?

메시지는 말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내용을 말한다. 위의 <그림 1>에서 메시지는 화자에게서 청자에게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대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통해 파악하는 의미는 과거의 경험과 그 정보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는 벽돌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고정되어서 청자에게도 그 모습대로 전달되는 요소가 아니고 청자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 찰흙과 같이 모양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메시지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나 과거의 경험 등에 따라 달리 전달된다.

대화를 하면서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화를 주사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투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시지는 주사약과는 달라서 말의 효과는 화자가 무엇을 말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메시지를 구성하기 전에 생각해 보았나요?

메시지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과 청자에 대한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Reardon 1987).

2. 이상적인 대화 참여자 되기

2.1. 대화와 인간관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하게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모두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눈빛,

손짓, 목소리, 자세 등과 같은 요소들도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내가 신호를 구성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신호를 구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신호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를 실천하는 것이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측면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된다.

2.2. 대화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남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영역과 다른 사람과 일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대관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립을 피해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도 자기만의 독립된 자리를 필요로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양면성이 대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자의 관점을 고려하고, 청자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독립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 친절한 말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움추려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대방이 자기의 독립적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유대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없어도 일상적인 이야기나 잡담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 인간의 두 가지 측면: 독립과 유대관계

■ 인간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거리: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2.3.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교사의 화법

교사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돕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한다. 사표(師表)라는 말은 교사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표라고 하여 권위적이고 표본적인 대상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갈등, 좌절 등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이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화법은 학생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1) 존중의 대화 - 정중어법

정중어법이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말한다. 공손하다는 것은 남에 대해 너그럽고, 겸손하고, 동정적이다라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정중어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Leech, 1983).

예 A: 선생님, 저녁 어디서 사주실 거예요?

B: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윤호 네가 결정해.

(TV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중에서)

(2) 배려의 대화 - 나-전달법

나-전달법이란 주어를 일인칭인 ‘나’로 시작하여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이다. 대부분 대화를 가로막는 대화의 걸림돌들은 주어가 ‘너’로 시작하는 ‘너 전달법’이다.

예 학생 :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제가 자꾸 아파요.

명령 : 너 그래도 수업부터 들어라.

경고 : 너 그렇게 요령만 부리다 너 한 번 제대로 혼난다?

충고 : 너 그렇게 운동도 몸 상태 보가며 하라고 그랬지?

훈계 : 너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줄 알아야지.

설득: 너의 문제점은 공부를 싫어하시는 거야.

비평: 너 그런 식으로 지내면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니?

분석: 너 어제 또 운동했구나.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동정: 저런, 너무 안됐다. 불쌍한 것. 찢찢찢...

캐묻기: 왜?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냐? 집에 뭐 문제 있니?

‘너’가 주어가 되는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비난의 느낌이 드는 말보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특히 나 전달법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이나 자녀와 이야기 할 때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다.

예 부모가 피곤한 상태에서, 자녀가 계속 놀아주기를 바라는 상황

“내가 너무 피곤해서 놀아줄 수 없구나.” (아빠는 피곤하시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니?” (나는 나쁜 아이다)

나-전달법을 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ㄱ. 비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예 네 옷이 땅바닥에 있구나. (○)

네 방은 왜 늘 이 모양이야? 이게 사람 방이니? (×)

ㄴ. 문제가 된 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예 나는 옷장을 정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단다.

ㄷ. 그 결과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예 나는 화가 난단다. (또는 힘이 든단다).

나-전달법은 ‘너’의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심정이나 상태를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예 토요일 오후,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외출을 하였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어두워져서 집에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 아내에게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ㄱ. 남편: 당신 뭐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점심 한 끼 먹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하여간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지.

아내: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러는 당신은 안 늦어? 허구한 날 늦으면서. 참나.

ㄴ. 남편: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늦게 오니까(상대방의 행동) 걱정이 되잖아. (나의 느낌). 아이들도 엄마만 찾아서 힘들었던 말이야.(결과)

아내: 걱정했어? 친구들 만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연락할 생각을 못했네. 걱정할 줄은 몰랐어. 미리 연락을 할 걸 그랬네. 아이들하고 많이 힘들었지?

(3) 공감의 대화 - 공감적 경청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의 약 반 정도만 기억한다. 그리고 8시간 내에 자기가 들은 것의 1/3에서 1/2을 잊어버린다. 두 달 후에는 들은 것의 25%만 기억한다. 미국인은 평균 하루의 50~80%를 듣는 데 쓰지만 그 중 반만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중에서 25%만 이해하고, 기억은 그보다 더 적게 한다고 한다. 듣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듣기도 말하기, 쓰기, 읽기처럼 기술이 필요하고, 학습해야 한다.

다음은 듣기의 다섯 단계이다.

ㄱ.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다.

- ㄴ. 경청의 표지를 사용하면서 듣는 척만 한다.
- ㄷ. 선택적으로 듣는 것으로, 대화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듣는다.
- ㄹ.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충력을 기울여서 듣는다.
- ㅁ. 가장 고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인 공감적 경청을 한다. 공감적 경청은 먼저 경청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화 방법이다.

공감적 경청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많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곧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게 된다.

공감적 경청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메시지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단지 상대방이 말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는 언어적인 반응만을 하면 된다.

ㄱ. 상대방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확인하는 종류의 언어적 반응

예 학생: (열에 반쳐) 그 녀석이 어떻게 100점을 받은 줄 아세요? 내 노트를 훔쳐 갔다구요.

교사: 그 녀석이 네 노트를 훔쳐갔구나.

학생: 그 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노트 한 번 못보고 시험을 쳐야 했다구요. 그런데도 저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교사: 부당한 일인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구나.

학생: 네. 그래요, 선생님. 이제야 속이 후련해요.

ㄴ. 상대방의 메시지 재구성하기

예 학생: (조용하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교사: 결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특히 화가 나는 모양이구나.

학생: 네, 정말 그래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이중인격자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적 경청을 나타내는 표지는 어말에 붙는 어미 ‘-구나’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나’는 대화체에서 화자 중심적 기능을 가지는데, 이것은 청자에 대하여 말하는 상황에서도 화자 중심적 관점으로 말하기 때문에 청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표지가 된다.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어 정중어법을 준수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구나’를 사용하는 것은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정중어법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2.4.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1) 화성에서 온 남성, 금성에서 온 여성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원하고, 여성들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Tannen 1986). 그래서 남성들의 대화는 정보 전달을 주기능으로 하는 것에 비해 여성들의 대화는 친교 유지를 주기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인 화자와 이상적인 청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집에 돌아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없거나, 집안일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를 중심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고, 잡담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오래도록 주고받고 있는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수다를 떠다는 편견으로서가 아니라 친교 유지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오해가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아내: 오늘 밖에서 별 일 없었어?

남편: 응.

아내: 난 오늘 신발 하나 샀어. 이거 봐. 예쁘지?

남편: 응, 좋은데.

아내: 이거 얼마에 샀는지 알아?

남편: 얼마데?

아내: 이거 원래 5만원 하는 건데, 만 오천 원밖에 안 줬어.

남편: 거기 신문 좀 줘봐.

아내: …….

남편: 아, 참.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회사 사람들 우리 집에 온다.

아내: 뭐? 우리 집에 온다고?

남편: 응.

아내: 이번 금요일에? 왜?

남편: 집들이를 안 했잖아. 한 열 명 정도 올 거야.

아내: 그럼 미리 의논이라도 좀 하지. 나 그날 동창회 있는데.

남편: 다들 그날밖에 시간이 없대. 그리고 그런 일까지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아내: 누가 허락 받으랬어? 말이라도 해 주면 좀 좋아?

남편: 지금 말하잖아. 어쨌든 그렇게 알고 준비해.

아내: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중국집에 시키든지.

남편: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이현호 외, <대화와 인간관계의 기초> 중에서)

(2) 말을 듣지 않는 남성,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성

남성과 여성은 두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남성의 두뇌는 단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성의 두뇌는 다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두뇌 구조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생활 태도의 차이, 대화 습관의 차이를 만든다.

남성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한다: 남자의 두뇌는 특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다. 우뇌와 좌뇌의 연결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두뇌를 스캐닝해 보면, 거의 귀머거리 상태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걸어 다니거나 이런저런 화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양치질도 하고 전화도 받지만 남성은 이를 닦을 때는 이 닦는 일만 생각한다.

여성은 간접화법을 좋아하고 남성은 직접화법을 좋아한다: 여성의 두뇌는 과정 지향적이고 그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즐긴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다중트랙의 간접화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남성이 사용하는 문장은 짧고, 직접적이고, 해결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곧 자기중심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대화 습관을 이해하는 태도가 이상적인 대화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교사는 늘 학생의 입장을 배려하고 학생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배려가 바탕이 될 때 인간적인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

3. 대화는 음성언어로만 이루어질까?

대화가 언제나 음성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달하는 말보다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또는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말의 의미를 결정하기도 한다.

예) 잘했다, 잘했어.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것에 의하여 30~35 % 정도가 전달되며 65~70 %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무언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동작언어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1. 목소리는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의 목소리는 상황에 따라서 크기, 높낮이, 빠르기 등을 다르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친구에게 비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

의 크기가 작고 낮아진다. 운동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고 있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소리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또한 위급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평소 말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야기하게 된다.

목소리의 특성은 습관적이기도 하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큰 식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크고 높은 소리로 말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작고 낮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 이처럼 서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예 가: 조용히 말해도 될 걸,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나: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 정말 소리 한 번 질러 볼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전화를 했다. 어떤 목소리로 말할까?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멋진 여성과 만났다. 이럴 때는 어떤 목소리로 말할까? 두 목소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듣기 좋은 목소리는 분명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도 한다. 편안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

3.2. 눈으로 무슨 말을 할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눈이다.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과 마주쳐야 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쓴다. 눈은 의사소통의 흐름을 규제하기도 하고, 반응을 전달하며,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한다. 눈은 예로부터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눈의 이러한 기능 때문이다.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는 경우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른 시선을 피해 모른척한다. 시선이 마주칠 때 ‘왜?’ 또는 ‘나?’와 같은 반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를 쳐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원하는 신호로 우리는 시선을 마주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거나 지루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시선을 피하게 된다. 특히, 수업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이 덮이는 현상은 수업 내용에 흥미가 없거나 지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문화에 따라 눈 마주침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 문화권에서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똑똑히 들여다보는 것을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여긴다. 미국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대화할 때 학생이 교수의 눈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래 마주보면 존경과 애정의 표시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나이가 위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똑똑히 뚫어지게 보는 것은 오히려 무례한 사람으로 여긴다. 눈을 통한 의사소통은 문화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화 도중 시선을 너무 피하면 관심이 없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불신을 나타내므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눈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을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상황에 ‘내 눈 똑똑히 보고 말해.’라는 대사가 나오는 것도 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눈도 깜박거리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여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 대화 상대자와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3.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표정은 언어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음성언어에 의한 메시지 전달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표정은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감정, 태도, 반응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의 얼굴표정 속에는 한 개인의 모든 정보(마

음의 상태, 특성, 건강, 개인성, 사회적 위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가 들어 있으므로, 그 사람의 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는가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두고 표정이 무뚝뚝하다는 지적을 하곤 한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또 그것을 대답할 때, 심지어 결혼식 같이 즐거운 행사에서도 웃음은 절제되어 있다. 우리에게서 ‘혼인할 때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와 같은 말이 있어 특히 여성에게는 웃음을 금기시하는 풍토마저 있었다. 소설 속에서도 여성의 웃음은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도구로 그려지면서 웃음이 많으면 품행이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웃음만큼 좋은 의사소통 방법도 없다. 열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효과적인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4. 몸짓을 읽으면 사람이 재미있다.

몸짓은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욕구나 필요성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각 문화 사이에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울고, 웃고, 화날 때 펄펄 뛰는 일, 손들어 인사하기, 배가 아프면 배를 만지는 시늉을 하는 행위 등은 보편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몸짓은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배우게 되므로 문화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

(1) 엄지손가락은 늘 최고인가?

손가락 움직임은 문화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면 돈을 나타내지만 미국에서는 “O.K” 나 “Good”을 의미하고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엄지손가락을 올릴 경우 미국에서는 진

행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의 표시지만 영국인들에게는 성공의 표시이고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에게는 “우두머리” 혹은 최고라는 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도 일부 지방에서 이러한 행위는 무례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렸다간 한바탕 싸움이 붙고 만다고 한다.

손바닥을 벌리는 것은 결백, 정직, 충실과 복종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기본 손바닥을 사용한 자세가 있다.



순종적인 손짓



권위적인 손짓



우세한 손짓

하나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인데 이 행위는 거지가 돈이나 음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징을 보여 준다. 두 번째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정직한지 못 한지의 여부를 보는 방법은 손바닥의 모습으로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고 싶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손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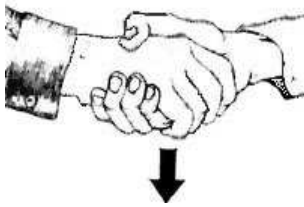
(2) 다리를 꼬고 이야기 하지는 않나요?

다리를 꼰 자세는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가슴에 팔을 ×자로 얹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며 초조함이나 방어적인 태도로 인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루하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논쟁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3) 악수 할 때 손등을 보이나요?

악수하는 것은 기원전 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행하였던 행위이다. 현대의 대부분 영어권 나라에서는 악수가 인사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악수할 때 내미는 손의 모양은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손등이 보이도록 손을 내미는 것은 매우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손을 내미는 경우는 타협이나 순종을 의미한다.



우월감을 나타내는 악수



순종적인 악수

(4)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더 편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꾸 피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① 친밀한 거리 (15cm~46cm) : 자신의 소유물처럼 보호하는 지역이므로 오로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
- ② 개인적 거리 (46cm~1.2m) : 친구 사이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지낼 때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 ③ 사회적 거리 (1.2m~3.6m) : 낯선 사람이나 배달원, 가게 주인, 새로 온 종업원과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유지하는 거리이다.
- ④ 공공적 거리 (3.6m 이상)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 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이다.

사람들이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유지하고자 하는 거리에 대하여 파악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언어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음성언어 외에도 목소리나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을 통해 더 다양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작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좀 더 관심을 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태도이다.

국어생활의 쟁점

김 진 해 (경희대학교)

1. 들머리

- 언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다중적인 언어생활
 - 언어를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 인간 활동의 대부분은 언어활동. 그런데 언어는 객관적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존재. 또한 언어는 언어 내적인 논리로만 정연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인 층위가 중층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성됨. 특히 그것이 언어정책 등 국가에 의해 제도화·규범화·단일화될 때 그 속에 담긴 다양한 함의나 복선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제도와 규범은 개인을 규정하기 때문.
 - 개인의 문제(건강, 교육, 희망 등)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듯이, 언어도 개인과 사회 간의 긴장 속에 존재. 그 긴장을 망각할 때 개인은 외롭고 우매한 ‘섬’이 됨.
 - 익숙한 질문과 익숙지 않은 질문
 - 익숙한 질문: 이게 표준어 맞아? 어떻게 띄어 쓰지? (How, What)
 - 익숙지 않은 질문: 표준어가 꼭 필요해? 한글맞춤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건가? (Why)
- ⇒ ‘왜’에 대한 질문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며 시민 공간(civil space)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음.

<국어생활의 쟁점들>

- 정책적 차원 : 한글과 한자, 표준어와 사투리(방언), 한글맞춤법, 한국어와 영어(영어 공용화, 영어마을, 국제자유도시 내 영어공용), 언어순화 등
- 그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국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와 언어 효과 발생
예) 호칭, TV 자막, 구호, 안내문·공문, 대화, 통신 언어 ...∞.
- 언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으로 존재

▪ 토론을 이끄는 읽기 자료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는 피아니스트에게 연주회장의 피아노 앞에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게 하고, 그 사이에 들려오는 소리에 청중이 귀를 기울이도록 해서, “4분 33초”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연주회장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참을성 없는 청중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덧붙여져서 음악은 ‘연주’되었다.

이러한 예상 밖의 연주를 통해 우리는 장소를 대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연주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자명한 행동을 기대한다. 미술관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이 어떠한지 한다고 예측한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자명한 예측, 경험의 안정성을 어겼을 때 우리는 불편해 하거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 바탕에 깔린 무의식을 의심할 때 비로소 일상사의 근저에 흐르는 통념, 관습, 편견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사회나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다.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사회화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도 고정된다. 옷깃을 여며야 하는 곳이 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야 하는 곳이 있다. 그렇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가. 옷깃을 여밀 곳에서 옷을 벗을 수도 있고 통탕거리며 행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수연구동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붉은 글씨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뜻말이 서 있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늘 ‘여기서 관계자란 누구일까?’ 하는 환청이 들렸다. 교수는 관계자인가, 거기에 연구실이 없이 동료 교수를 만나러 가는 교수는 관계자인가, 학생은 관계자인가, 교직원도 관계자인가, 서적 판매상은 관계자인가, ‘배달의 기수’ 아저씨는 관계자인가? 그 말은 분명 ‘불일’ 없는 사람, 그냥 산책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금지의 언어일 텐데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그 뜻말은 크기와 색깔과 상관없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옥죄다. 늘 ‘나는 관계자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만든다.

그걸 며칠 전에 ‘여기는 교수 연구동입니다’라는 문구로 바꾸고 있었다. 어찌 보면 둘 모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같다. 단도직입이나, 애둘러 표현하느냐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는 교수연구동’이라고 써 놓아도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바뀐 문구에 기뻐다. 너무나 ‘싸늘하게’ 중립적인 안내문이 마음에 들었다. 똑같은 통제의 말이지만 그 판단을 ‘나’에게 맡기는 강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서관 열람실을 나오려면 차단기를 통과해야 한다. 대출하지 않은 책을 갖고 나가면 책에 붙어 있는 전자 칩을 인식하여 “삐” 소리가 요란하게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도서관 차단기 입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벨소리가 울려 놀라셨죠? 열람대로 와서 문의하세요.”

2. 한글 · 한자(한자 폐지) 논쟁¹⁸⁾

1) 발단

- 1945. 12. -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과위원회 :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중등 학교의 교과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도림(괄호) 안에 적어 넣을 수 있음”
- 1948. 10. -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도 있다.”
- 1951. 9. - 상용한자 1,000자 제정, 공포
- 1965. 3. - 국어교과서에 한자 노출(단독표기)
- 1968. 10. - 대통령 한글전용 지시. 교과서에 한자 삭제
- 1970. 3. - 초중고 교과서 한글전용
- 1972. 8. - 중고교 교육용 한자 1,800자 선정 발표(중학교 900자, 고교 900자)
- 1973. 3. - 중고교 교과서 한자 병용

2) 한자 폐지론자

- (1) 최현배 : 인류 사회의 문자사 · 문화사의 발전단계로 보아 한자의 폐지는 필연……. 문자사를 보면, 뜻글자는 소리글자로 변하고 말았다. 한자가 아무리 연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내 소수 유한계급의 봉건적 문자이라, 대중의 문자, 생활의 문자를 삼고자 함에는 도저히 그 불리와 불편을 견딜 수 없게 됨에 …….
- 민중적 관점

(2) 주장 내용

- 한자는 나라 망친 글자이므로 없애야 한다.

18) 한글·한자 논쟁(한글전용, 국한혼용)에 대해서는 고길섭(2005),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도서출판 엘피 참고.

- 한자 안 써도 우리말에 잘 맞게 쓸 수 있다.
- 한자는 비능률적이어서 비현대적이다.
- 한자는 대중적이지 않고 교육적 귀족주의와 문화적 계급주의이므로 비민주적이니 없애야 한다.
- 한자 폐지는 민족의 독립성을 기르는 것이다.
- 한자 폐지 반대는 일종의 보수적 타성의 결과이다.
- 한자로는 고유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기 불가능하다.
- 한자를 신성시하는 태도를 버려라.
- 한자는 예술적이 아니다.
- 한자 폐지는 문자 발달사상, 문화발달사상 자연적 진보 과정이요, 적극적 혁명이다.
- 한자 폐지와 한자어 폐지는 다르다.
- 한자 폐지하면 중국과의 문화 제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 한자 폐지 운동은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 한자 사용은 2중 생활의 고통과 부담을 지자는 것이다.
- 한자 교육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 힘을 과학연구와 일반 문화연구에 노력하자.

3) 한자 폐지 반대론자(국한혼용론자)

(1) 주장 내용

- 한자가 아니고는 성명의 표기가 분명하지 못하다.
- 한자는 예술적인 글자이다.
- 한자를 폐지하면 동양 문명의 기초가 근본부터 파괴된다.
- 한자 폐지 주장의 근본 사상은 유물론적 공리론에 있는 까닭에 안 된다.
- 한자 폐지 주장은 편협한 국수주의이다.
- 한자 폐지하면 중국과의 문화 제휴가 어렵다.
- 한자는 동양의 공통 문자이며, 한자어는 동양의 공통어이므로 버릴 수 없다.

- 한자는 상형표의문자이므로 직각적(直覺的)·시각적 장점을 버릴 수 없다.
- 한자어는 유의어를 풍부하게 한다.
- 한자어는 조어력이 풍부하다.
- 한자어는 과학적이어서 과학적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다.
- 한자를 폐지하면 대부분의 한자어가 문제가 될 것이니, 이를 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인공적 비자연적 어휘 증가로 혼란을 초래한다.
- 한자어만의 독특한 어감을 무시할 수 없다.
- 과거 천여 년 간 한자를 써 왔고 현재도 써 온 것을 보면 한자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질 문	한글전용론자	국한혼용론자
한글 전용/ 한자혼용을 해야 하는 이유	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글자. 한글은 가장 현대적이고 쉬운 글자. 습득 시간 단축. 요컨대 한자에 대한 한글의 절대 우수성이 그 이유	한글은 음운 풍부, 발음기호적 성격을 겸한 표음문자, 한자는 조어력·함축성·축약력 뛰어난 표의문자이니 적절히 조화 필요. 사전에 70% 한자, 전문용어 대부분이 한자이므로 한자 익혀야 뜻 파악이 분명하게 되고 어휘 확장 용이
한자교육의 방식	‘한자’ 교육이 아닌, ‘한문’교육 필요. 중학교에서 한문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	한자교육은 어릴수록 효과적. 초등학교에서 1,000자 정도 습득. 중고교 과정에서는 팔호 삭제해서 노출해야.
득과 실	득 : 배우고 쓰는 데 경제적, 컴퓨터 사용 용이, 한자를 한글로 적어 놓아도 읽는 속도 느리지 않다. 실 : 없다. 전통의 고아가 된다는 것도 한문문헌을 한글로 번역하면 한다.	득 : 국민 지성 고양, 교육 효과 증진. 어휘 의미 파악 용이하여 학술발전 가능. 젊은이들의 전통 문화 이해 용이. 실 : 없다.
한자 전용/ 한자혼용을 위해 필요 한 조치	전용법의 ‘다만’ 조항 삭제하고 이법을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2,000자 정도의 상용한자 제정해 신문, 잡지, 출판물에 혼용하면 효과적이며 언중의 사고력과 어휘력 향상, 발음 교육과 전통성 회복에도 효과적

▪ 대립적 관점 정리

4) 한글 · 한자의 주술화, 신화화

(1) 한자 폐지론자의 상대적 우월성

- 대중들의 민주적 삶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ex. 한자폐지 반대론자의 경우 한자를 ‘남자다움’이나 ‘권위’에 일치시키고 있어 당시 유행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 없이 전통적 문자 인식론에만 얽매임. 반면 한자폐지론자의 경우 일제의 민족어 말살 정책의 악몽을 역사적 경험으로 교훈 삼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을 강조).
- 당시 한글보급과 문맹퇴치 문제와 직결되었으므로 한자폐지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었음.
- 미 군정청 학무국의 여론조사(1945.12) : 일반인은 88.2%, 교육자는 56.7%, 전체적으로 72.9%가 찬성.

(2) 문제점

- 일반 대중의 요구와 달리 지식인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한자폐지 반대 경향.
- 백남운(학술원 원장; 중도좌파, 월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역임) : 국가법령과 같은 강력으로 결정된다 할지라도 여론을 토대 삼지 않는 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 사실 학무국의 한자 폐지 정책은 80명가량의 교육심의회 위원들의 절대다수가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중대사를 대중과 지식인들의 여론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공표 후 여론 조사)

(3) ‘비행기’와 ‘날틀’

- 한자폐지 반대론자들의 새말만들기 비판
 - 김형규(‘47.『조선어의 과거와 미래』) : ‘산에 가자’를 ‘뫼에 가자’고 하면 의미 안 통할 것.
 - 이희승(‘47.『조선어학논고』) : ‘순우리말이 정답’이라고 해서, 한자말을 모조리 없앨 듯이 새말을 지어내는 일은 자아의식에 충실한다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새말만들기 비판. 그는 ‘물리학’을 ‘문결학’, ‘수학’을 ‘셈갈’, ‘전기학’을 ‘번개갈’, ‘비행기’를 ‘날틀’로 지어냈다고 비난.

- ‘비행기’, ‘날들’ 논쟁의 왜곡

- 최현배가 ‘비행기’를 ‘날들’로,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배꽃계집오로지배움집’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님.
-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어느 학자가 최현배의 주장에 반론을 펴면서 “한자를 폐지하게 되면 ‘학교’는 ‘배움집’, ‘비행기’는 ‘날들’, ‘이화여자전문학교’는 ‘배꽃계집오로지배움집’, ‘전차’는 ‘번개 딸딸이’나 ‘번개 수레’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자 최현배가 “한자와 한자어를 구별해서 쓰라”고 주장한 것이 와전.
- 최현배(글자의 혁명) : “‘學校’ 대신 ‘학교’로, ‘電車’ 대신 ‘전차’로 적자는 것일 뿐”

- 그러나 한글전용을 지나친 말바꾸기로 일관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은 피하지 못함. 물론 최현배가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전환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시도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개인적 언어 실험으로 한정해야지 공직에 있다고 공식적 언어정책으로 밀어붙이려 한 것은 잘못. 왜냐하면 언어실험은 대중들에 의해 선택,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정태진 : 「한자 안쓰기 문제」(1946)

- ‘점진적 폐지론’ 제시 - 두 주장을 각각 방임주의와 박멸주의라고 모두 비판.
- 한자폐지에 앞선 준비 미비/한자폐지 위해서 한자 배워야 한다는 등의 근거
- 시기적 제한, 자수의 제한, 어휘의 제한, 사용범위의 제한, 자획의 제한 (약자사용), 일본식 한자어의 폐지, 2중어의 폐지 등 제시

(5) 관념적 민족주의의 오류

- 시비과정에서 한글과는 한글전용을 ‘애국행위’로 한자혼용을 ‘비애국행위’로 비약. 국한혼용과는 한글전용을 ‘공산주의, 빨갱이 주장’으로 매도. 한자파들은 걸핏하면 신문도 읽지 못하는 ‘대학생 한자 실력론’¹⁹⁾을 들

19)다음은 ‘앵터리’로 대답한 몇 가지 예이다.

고나오는 반면, 한글학회는 ‘최만리’의 상소를 즐겨 사용.

- 문자개혁은 현대사회의 세계적 추세. 현대적 삶에는 대중들에 있어서 문맹 퇴치, 문자생활은 필수적.
- 즉 서구문화에 영향을 받아 봉건사회를 청산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전면적인 문자생활이 불가피.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자는 지배계급의 특권적 소유물이었고, 게다가 배우고 사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민대중과는 거의 무관.
- 중국은 청말(靑末)에 이미 한자를 ‘네모난 귀신’이라고 적대시하여 1930년대 경부터 라틴화 새글자 운동이 열풍 불(노신 :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 일본은 1866에 한자폐지론 제기. 우리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 곧 중국처럼 방언 문제에 시달리거나 일본처럼 가나-한자의 혼용 문제 같은 난제가 존재하지 않음.
- 우리는 대중들의 현대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글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한자폐지론자들이 안에 대한 고민 없이 곧바로 한글전용론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음.
- 그러나 전통문화가 계속 발목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대중들이 글자생활로서 한글만을 욕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 한자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싶어함.
- 즉 심정적 동의와 현실의 구조는 다르기 때문.
-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이라는 대중적 글자보다 한자라는 비대중적 글자가 개인적으로 더 과시의 원천이 되기 때문.
- 이는 한글전용론자들이 비난하듯 ‘사대사상’이나 ‘노예근성’과는 무관. 설명 허위의식일망정 대중들의 삶을 구성하는 현실의 요소.

사필귀정(事必歸正) - 4필의 말을 타고 돌아옴. 곧 성공하여 온다는 말.

일석이조(一石二鳥) - 밤은 하나로되 아침이 다르다.

여인숙(旅人宿) - 여자들이 있는 잠자는 곳

명약관화(明若觀火) - 쓴 약일수록 효과가 있다.

고희기념(古稀紀念) - 고대 희랍 축제일

삼강오륜(三綱五倫) - 낙동강 · 두만강 · 한강, 청, 홍, 백, 흑, 남

- 한글과는 한자의 비민족성만 보려했지, 한글의 현실 사용과정에서 지배의 논리와 민중들의 해방사상이 중층적으로 얹혀 투쟁하고 있음을 보려하지 않음. 이는 한글과 사람들이 이미 억압적 국가장치의 주재자로 기능하려고 하는 민족 부르주아지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 그들은 집권자나 국가권력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도리어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어문정책상의 해계모니를 장악(4.19 혁명 시 시국선언서 작성에 한자파인 이희승, 조운제가 가담한 반면, 한글학회 쪽은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배알, 최현배는 미군정 때부터 문교부에서 어문정책 주도한 것은 매우 강력한 효과 발휘).

- 한글전용은 엘리트주의적 발상 : 어려운 한자를 버리고 쉬운 한글만 쓰자는 논리는 일면 민중적·대중적·민주적 성격을 띄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중들의 문자적 욕망을 차단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적 발상. 한문을 전문가들의 특권적 영역으로 제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 허물기는 대중들의 민주적인 문자 활동의 기초. 문자는 특권적 전문가의 표시, 해설, 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삶의 육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선택은 대중들 자신의 권리이다²⁰⁾.

- 요컨대 현대적 삶과 관련하여 대중들의 언어적 욕망이 복잡한 층위들로 형성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통로로 모든 것을 단일화하여 몰아넣는 것은 ‘관념적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5) 현실적 대안 - 표기보다 이해를

• 한자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하기 위해, 그리고 한자가 섞인 예전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한자를 배운다면 ‘쓰기’보다 ‘읽기’ 중심의 학습이 적절하다. 쓸

20) 우리나라의 문자생활이 한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복잡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자교육 및 필요에 따라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신문 하나 못 읽는다는 한자파의 주장에 한글과는 신문을 한글로 쓰면 될 것 아니냐고 대답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게 개조되지 않는다. 대중들의 욕구는 한글에만 있지 않고 한자에도 있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대중들은 지식인과 달리 한글전용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자 문맹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해방 직후 한글관련 책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는 사실 뒤에는 1970년대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에서 「상용한자 1,800자」나 「천자문」 따위들이 마찬가지로 수없이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줄은 몰라도 읽을 줄만 안다면 이런 목적으로 한자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은 글을 쓰는 도구로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한자를 필기구로 쓸 줄 몰라도 인쇄해 낼 수 있게 되었다. 한자 학습은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궁극적으로 한글전용은 옳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한글전용은 문자생활에 국한된다. 한자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한자 학습이 불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에 대한 지식은 우리말 어휘를 구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필요한 수만큼의 한자를 배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결국 한자를 표기에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말 이해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이다(배주채 1999: 88~89).

3. 영어 공용화 논쟁²¹⁾

- 영어는 우리(또는 나)에게 무엇인가?
- 영어를 공용화하면 국어의 순수함, 민족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가? 반대로 영어를 자유롭게 쓰면 세계인이 되는가?
- 그런데 언어는 순결한가?(순결한 적이 있었는가?)

21) 영어 공용화 논쟁과 관련하여 고종석(1999),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pp. 73-184에 실린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를 읽어보길 권한다.

“영어 능동적 도입해야” - 「공용어 주장」 동조

함 재 봉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배타적 민족주의는 열등의식의 발로이다. 만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올바른 것, 즉 보편타당한 것이라면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내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자신이 없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기준은 객관적인 옳고 그름일 수밖에 없다.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성이란 곧 ‘강자의 것’이라는 냉소적인 주장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강대국이나 할 수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 민족국가에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뿐이다.

실제로 한민족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기약해왔다.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보편적인 사상과 철학,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불교를, 조선조에서는 유교를, 근세에 들어와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문명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상과 제도는 특정 민족과 사회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굴절되고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래문명과 문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살찌웠다는 역설 아닌 역설이 성립된다. 불교와 유교는 ‘외래’ 문명이지만 우리 특유의 모습으로 일구어 왔다.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한문, 즉 중국 글자로 되어 있지만 지극히 한국적인 보물들이다. 그러면서도 한문이라는 국제어로 쓰여졌기에 보편성도 확보하고 있다.

민족문화는 결코 불변의 고정태가 아니다. 늘 바뀌고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결코 무국적의 보편주의자나 자유주의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우리의 문화’, ‘우리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기약해보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얘기들이다. 복거일 씨의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민족주의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수용하는가이다. 복거일 씨는 영어를 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사상과 체제를 보다 빠르고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족주의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역설이 있고 동시에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철학적, 사상적 도전이 있다.

그렇다면 영어를 국어와 함께 우리의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그것이 진정 한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우리의 지식인들, 관료들, 학자들, 도입하려는 언어를 능동적으로

▪ 읽기 자료 1

▪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니...천박한 과잉 세계주의

남 영 신 (사전학자,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 저자)

요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도 상당히 다양해져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장들이 제기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최근 간행된 소설가 복거일 씨의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에 실려 있는 주장들은 그런 부류의 하나로 보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독이 들어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민족주의를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민족어를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구 제국' 시대에는 민족주의나 민족어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인 것 같다. 그의 말대로 이는 대단히 '용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동해 표기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여러 부정적인 민족주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민족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만 따진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서 약한 나라는, 그래서 둘 사이의 분쟁에서 훨씬 손해를 크게 입을 나라는 우리다. 아쉬운 쪽은 일본이 아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민족주의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민족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약소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국제 사회에 호소하고 국제기구에 하소연하는 것인가? 그가 주장한 우리 사회의 감정적인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민족주의 죽이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두 번째 주장은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는 것이다. 그가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놀랍게도 단순하다. 지금은 미국을 지도국으로 하는 '지구 제국' 시대이고 이 시대에는 영어가 국제어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가 '지구 제국' 중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영어를 처음부터 모국어로 배우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은 민족주의자들의 맹렬한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국어와 함께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구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가 밝히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으나 공용어인 영어만 잘하면 그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천박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으로 보는 생각도 단순하고, 민족어 생활 위협하기는 그가 배척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어를 국제어로 보고 국어까지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가 어떻

읽기 자료 2

■

열린 민족주의를 찾아서
한국은 민족주의 과잉…… 영어 공용어는 현실

복 거 일 (소설가)

이 글은 줄저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를 비판한 남영신 씨의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고?’에 답하는 글이다. 남씨의 글을 읽으니, ‘민족주의와 민족어는 너무 예민한 주제들이어서 논의가 차분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민족주의와 민족어에 관한 내 생각은 지금 인류 사회들이 느슨하게나마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국경 안에서 끝나는 일은 드물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또는 환경 문제 등. 이번 외환 위기가 우리에게 아프게 일러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영어가 실질적 국제어로 자리 잡았다.

놀랍지 않게도, 이제 민족주의는 점점 현실에서 유리되고 비적응적으로 되어간다. 특히 다른 민족들과 민족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단힌 민족주의’를 지닌 사람들은 둘레에 괴로움을 끼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해를 입힌다.

민족주의적 열정은 불이다. 그것을 잘 다스리면, 사회에 활력이 넘치지만, 잘못 다스리면, 많은 것들을 잃는다. 우리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잘 다스려서 ‘열린 민족주의’로 다듬어내야 할 것이다. 남씨의 주장과는 달리, 나는 ‘민족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민족주의에 대해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의 논지는, 민족주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 근해에 나타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군함을 보내 시위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국내 정치를 겨냥한 과잉 대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자, 바로 그 대통령은 서둘러 경제 부총리를 일본에 보내 원조를 요청했다. 그나마 돈도 빌리지 못했다. 나는 이런 공허한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국제어와 민족어에 관한 내 주장을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로 요약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국제어로 자리잡은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손해가 이미 너무 크고 앞으로는 더욱 커질 터이므로, 경제 논리는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삼도록 만든다는 것이 내 주장의 바탕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는 생존에 결정적인 기술이 되었고, 모두 영어를 배우는 데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아직 모국어도 배우지 못한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부터 이어폰을 끼고 영어 회화를 배우는 중년들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그런 투자는 효율이 아주 낮다. 그래서 나는 일단 영어를 우리말과 함께 공용어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읽기 자료 3

민족과 민족어

김진해 (경희대)

북거일 씨(이하 ‘북 씨’)가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한 이래 언론이나 컴퓨터 통신에서는 허다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북 씨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세계화(그의 용어를 빌자면 ‘지구제국화’)되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와 민족어를 버리자는 것이다.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로 모든 언어를 표준화(standardization)시키자는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하나의 ‘지구 제국’이라는 바벨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미래학자’ 북 씨는 영어가 단 하나의 국제어로서 거의 모든 부문에 쓰일 것이며, 민족어들은 점점 활력을 잃고서 차츰 사라져 중국에는 ‘박물관 언어’가 되어 일부 학자들이나 작가들에 의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 제국으로 나가는 마당에 민족어를 고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 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처절한’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단다. 우리가 모국어를 계속 떠받드는 것은 언어가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것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한다.

그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런 질문을 해 보자.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해명되면 언어로서의 민족어, 언어로서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북 씨의 주장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이나 민족어라는 개념은 국가가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형성되었다. 이전 시대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일한 민족어(national language)로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보통 한국 표준어, 즉 한국어 중에서 표준화된 방언을 말한다. 표준화된 방언이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통일화·동질화의 한 부분으로써 ‘표준화’를 성취한 결과이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어의 표준화가 필요했던 것은 생필품의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해져서 통일화된 국내 시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민족어로서의 표준화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상품 거래에 직접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민족이나 민족어라는 개념이 갖는 역사성은 이런 것이다. 북씨가 영어를 지구 제국의 표준으로 삼자는 주장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 제국으로 변하게 되리라는 그의 예측은 세계가 이제 상품, 문화, 언어, 의식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통일화·동질화·단일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한다. 인간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힘을 놓치고 있다. 북 씨는 언어가 단지 도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 읽기 자료 4

민족어의 미래

도 정 일 (경희대)

(1) 21세기는 한글과 한국어에 어떤 운명을 예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완곡한 것이다. 훨씬 급진적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 그것은 “21세기에 한글-한국어는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두 질문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다. 전자는 민족어문이 인접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모종의 ‘변화’ 가능성에, 후자는 민족어문의 ‘소멸’이라는 훨씬 과격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 ‘모종의 변화’란 민족어문의 존속이라는 전제 위에서의 언어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지위, 세력)를 의미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어문체계의 약화, 쇠퇴, 소멸과 어떤 다른 어문체계에 의한 ‘전면적 대체’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민족어문의 미래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은 별 적절성도 진지성도 없는 것으로 들릴지 모른다. 언어의 통시적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한 언어에 발생하는 역사적 변화라는 것은 어문 체계(langue)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퍼포먼스/빠를 차원의 것이며 따라서 민족어문의 전면적 소멸이나 대체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정치적 지위 변화라는 것도 민족어문이 존속하는 한 그리 걱정할 일은 못된다. 그것이 존속하는 한 지위의 부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낙관론의 근거는 대체로 세 가지이다. 첫째, 한글-한국어는 소수 부족언어가 아니라 국민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어이고, 민족어는 민족 자체의 소멸이라는 극단적 상황 전개가 없는 한 소멸하거나 소멸의 위기로 몰리지 않는다. 한국어는 한반도에 영토 기반을 둔 7천 5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고 있고, 이 규모는 천(千) 또는 백(百) 단위의 사용 인구를 가진 소수 부족언어나 만(萬) 단위 수준의 소수민족(독립 국민국가를 갖지 못한) 언어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인구학적 영토적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에 걸친 사용의 역사를 가진 토착 민족언어는 외부 영향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영향을 이겨내는 강한 내성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지배계급의 공용문이었던 한자의 영향이나 일제 식민통치세력에 의한 민족어문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어가 살아남은 것은 그 내성의 크기를 보여준다. 셋째, 한국어는 5백 년 역사의 문자체계, 높은 문자해독-사용률(literacy), 문화적 기반, 대중매체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족어의 발전을 위한 교육-어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인구학적 규모와 영토 기반, 전승체계와 문자사용력, 전통과 문화적 토대, 매체환경, **국어생활의 쟁점** 223 등은 한국어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어떤 위기 상황의 고려도 부적절한 것이게 한다. 이런 낙관론에 근거할 때, 위험 상황의 발전 가능성을

▪ 읽기 자료 5

▪

한-일 영어 현실 비교

로버트 파우저 (일본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 교수, 응용언어학)

소설가 무라카미 류는 일본 불경기가 극에 달했던 몇 년 전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은 피상적인 개혁으로는 되지 않는다. 포맷을 새로 해야 하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운영체제(OS)를 갈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본 총리자문 ‘21세기 일본구상 간담회’ 보고서 가운데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완전히 이중 언어,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뒷받침과 영어 인프라가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을 이 두 가지를 통해 비교해보자.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모두 영어는 여전히 시험용 언어다. 그러나 일본은 나름대로 영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실천해 왔다. 특히 학교에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정은 더 나쁘다. 극소수의 영어 교사를 제외하면 영어로 자신 있게 교과목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영어권 국가에서 교사를 데려 올 수도 있지만 교사들의 낮은 급여, 예산의 제약, 그리고 한국적 ‘장벽’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한국의 대학 분위기를 감안하면 회의적이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대학은 그런 시도조차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사정이 좋다. 교사들 급여가 한국보다 좋아 일반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너지는 교실’이라는 애기에도 불구하고 인재들이 학교로 모인다. 비판도 있었지만, AET(Assistant English Program)를 통해 수만 명 영어 원어민이 1980년대 중반부터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정규 교과목 내에 영어 집중코스를 만들어 넣은 중-고등학교도 있다. 아사히신문 ‘대학 랭킹 2000’을 보면 외국인 교수의 비율이 10%가 넘는 대학의 전체 63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65개나 된다.

영자 신문과 출판 수준도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나다. 지방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영어 번역-교열의 질도 높으며 관광 안내에는 오자나 이상한 표현이 거의 없다. 인쇄 매체의 영어 수준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간다. 언어산업에서 일본인들과 영어 원어민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본인들의 영어가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어교육을 새로 포맷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백국어생활의정점업**’ 225
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와 교육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력하며, 학교에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정

4. 나오는 말

- 다시 언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도구인가, ‘존재의 집’인가? 아니면?

국립국어원 2007-3-3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연수 교재

2007년 7월 18일 인쇄

2007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 이상규

발행처 :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 (02) 2669-9775

(02) 2669-9752
